현대불교

제 79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음력 6월 10일 · 불기 2554년 · 주간)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7월 14일 조계사에서 2만 재가불자 생명평화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 목소리 외면 말라”

2만 재가불자 선언… 추모제 후 2차 서명

2만 여 재가불자가 5000여 스님에 이어 4대강 개발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가불자들은 특정 구간 한 곳을 지정해 4대강 사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생명평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7월 14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재가불자 1만인 생명평화 선언 결의 10일 만에 1만6917명이 생명평화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재가불자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생명파괴를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특정구간 한 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사업을 집행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평가 한 후 확산여부를 결정하자는 국민 다수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뜻을 불교도들이 살려 생명평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밝힌 선언문은 8일 5000여 조계종 스님들의 생명평화 선언 같은 내용으로 승가와 재가가 뜻을 함께 할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토회 자제법사,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웅기 사무총장, 대한불교청년회 현일환 사무총장,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김영란 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박경호 회장, 봉은사 이연수 사무총장, 길상사 맑고향기롭게, 불교여성개발원 등이 자리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국민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서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이 과연 생명을 위한 것인지, 토목사업을 위한 것인지, 반짝 정치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의 간곡한 부탁도 모른 채는 정부는 권력에만 눈멀어 있다”고 지적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의미를 설명했다. 우희종 교수는 “문수 스님은 소신공양으로 분노와 항거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준열한 꾸짖음이고 타이르는 자비행”이라며 “불교의 생명존중과 비폭력의 총체적 모습이며, 진정한 ‘방생(放生)’을 잘 보여준 수행자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불자들이 소신공양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일반인들에게 소신공양의 참 뜻을 전달하고, 실천하도록 하자”고 당부면서 “종단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문에 동참한 인원은 정토회 7341명, 불교환경연대(조계사 분향소 포함) 2143명, 불교여성개발원 1774명, 봉은사 1354명, 길상사 800명, 참여불교재가연대 750명, 법장사 600명, 화계사 46 7명, 금선사 401명, 대한불교청년회 372명, 불교인권위원회 220명, 조계종 원우회 216명,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84명, 중앙신도회 60명, 우리는 선우 45명, 나무여성인권상담소 18명이다. 그밖에도 13일 전국 사찰에서 진행된 문수 스님 추모 법회에서 뜻을 함께한 이들의 인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동참인원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동참자 발표는 1차로 진행됐다. 불교단체들은 17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문수 스님 범국민 추모제 이후에는 2차 서명 운동도 전개될 예정이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문수 스님 뜻 잇겠습니다”

조계종 전국사찰서 추모법회 동시 봉행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법회가 조계종 전국사찰에서 동시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12일(음력 6월 초하루) 오전 11시를 전후해 ‘4대강 사업 중지’와 생명평화를 발원하며 소신 입적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전국 본말사 동시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추모법회는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비롯한 조계종 소속 주요사찰이 동시 참여해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열반한 문수 스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사찰에서 추모법회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죽어가는 강과 뭇생명을 살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한 문수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사회에 생명 ·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자는데 한마음을 이뤘다.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는 낮12시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문수 스님의 분향소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반야심경> 봉독 △추모 입정 △문수 스님 행장소개 △추모사 △찬불가 △주지 스님 추모법문 △정근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토진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4대강은 MB 혼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쓰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위해 몸을 던졌듯이 문수 스님은 불자와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려 자신의 몸을 던져 보살행을 한 보살이다. 오늘 이후 문수 스님을 문수 보살로 부르며 찬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대각심 조계사 신도회장은 추모사에서 “문수 스님은 중생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생명존중과 맑은 세상을 염원하며 길 떠난 분”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불광사는 보광당에서, 화계사는 오전 11시 40분 대웅전에서, 봉은사는 오전 11시 법왕루에서 각각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동화사와 영천 은해사 등은 7월 14일, 음력 6월 초삼일 법회에 추모법회를 진행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천진불 천운 스님 다시 오소서

해남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7월 14일 오전 10시 광주 향림사에서 입적했다. 세납 82세, 법랍 65세.

스님의 장례는 18일 오전 11시 해남 대흥사에서 종단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천운 스님은 입적 전 문도들에게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악한 일 행하지 말고 선행을 받들어 실천하라. 마음을 늘 청정하게 수행하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니라)’는 유훈을 남겼다.

관련기사 10~11면

조동섭 기자

‘화쟁’ 개념 정립할 워크숍 연다

조계종 화쟁위 8월 12일 개최… 23 · 31일 낙동강 등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들이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과 영산강을 방문한다. 또 ‘화쟁’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화쟁위원들은 7월 23일과 31일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과 영산강을 찾아 주민과 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화쟁’ 개념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8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며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이 ‘4대강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를, 조계종 환경위원 이병인 교수(부산대)가 ‘불교적 관점에서 본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4대강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표했다.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최근 불교계에 많은 일이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화쟁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법 · 법등 · 진관 · 원택 · 지홍 · 법안 · 자민 스님, 김종빈, 성태용, 윤시영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의 4대강 사업지지 호소문 발표 자리에 참석했던 성타 스님은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조동섭 기자



국내 最古 면직물 공개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국내 최고(最古)의 면직물이 첫 공개됐다. 폭 2cm, 길이 12cm 가량의 면직물은 1999년 능산리사지 6차 발굴조사 때 발견됐다.

국립부여박물관이 6월 8일~8월 15일 개최 중인 ‘백제 중흥을 꿈꾸다-능산리사지’ 특별전에서 공개된 이 면직물은 고대 일반적 직조법과 달리 강한 꼬임의 위사(緯絲)를 사용한 백제의 독창적인 직조 기술이 이용됐다.

국립부여박물관은 “고려 문익점이 목화씨를 처음 들여 온 14세기에 비해 800년이나 앞서는 국내 최고의 면직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0년 10월 경 국립부여박물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면직물을 만날 수 있는 능산리사지 특별전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 등 400여 점의 유물이 동반 전시된다.

노덕현 기자







"헌법 위에 4대강 사업?… 말도 안돼!"



영담 스님, '공직 사퇴' 속 출근 4대강사업 지지 호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7월 14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입구에서 '공직 사퇴' '4대강 목도 따는 00 스님 사퇴하라' 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불교단체 활동가들 앞을 지나 출근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등 영담·성타 스님 참회 촉구
이명박 대통령에게 평통위원 해촉 공문 발송

"헌법기관 유린하고 종도 의견에 반한 영담 · 성타 스님은 불조와 사부대중에게 참회하고 종단의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조계종 5000여 스님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생명평화선언에 앞서 4대강사업지지 발언을 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7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영담 · 성타 스님은 종단공직에서 사퇴하고 불조와 대중 앞에 참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응 스님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명박 정부가 급조한 미증유의 국토파괴 토목사업"이라며 "거시적으로 불교문화 소멸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은 조계종 중앙종회와 환경위원회가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종도의 절반 가까이가 서명으로 반대했다. 또,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하고 수경 스님이 승적과 소임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면서 "종단을 대표 · 대변하는 지도급 중진인 영담 · 성타 스님의 (4대강 사업지지) 행동은 수행자로서의 자세 및 철학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환경연대는 "두 스님의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부처님 가르침인 연기론 · 생명관이 부정되고 △조계종과 승가의 위상이 실추됐으며 △조계종도간 화합이 저해되고 △불교환경운동 업적 등이 훼손됐다"며 영담 · 성타 스님의 공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영담 · 성타 스님이 위원으로 위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이명박 대통령)는 헌법 제92조에 의한 남북한 종교 교류 · 인도적 대북지원 등 통일에 관한 자문기구이다.

불교환경연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호소문 6개항 중 5개항이 4대강 사업을 찬동한다는 내용"이라며 "헌법기관의 권위를 이용한 4대강 사업 찬성이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 4대강을 위해서는 헌법도 초월할 수 있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법응 스님은 "영담 · 성타 스님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 밖의 행위로 헌법교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법응 스님은 "오늘 성명서는 자비문중의 미덕을 살려 영담 · 성타 스님이 스스로 참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문수 스님의 49재(25일)까지도 두 스님이 참회하지 않으면 종단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두 스님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도위원 위촉을 해제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환경연대는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담 · 성타 스님을 해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13일 '문수 스님의 고귀한 뜻을 지키려는 전 종도들의 뜻을 해친 영담 · 성타 스님은 종단의 주요한 소임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중결사는 성명서에서 "조계종의 공적 소임을 맡은 스님에게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보다는 종단의 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타 스님이 개인 자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4대강 사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영담 스님 "반종단 주장은 억측"

영담 스님은 "추모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면 정중히 사과하겠으나, 사실을 왜곡해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문수스님소신공양추모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의 성명에 대한 입장' 제하의 성명을 배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영담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평통 종교인도지원위 위원장과 조계종 총무부장 직의 무관함 △총무부장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 반종단적 · 반불교적 행위를 했다는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의 주장은 억측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오전부터 불교단체 관계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공직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종단 수익사업 본격화

재향군인회와 상조사업 MOU 체결

조계종이 승려노후복지와 승가교육 개선 등 종책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종단수익사업을 벌이고, 이에 대한 동참을 촉구하는 지역별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종책특보실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올해 안에 재무부서 수익사업 계획 · 시행 준비가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포교 · 재무 부장과 함께 전국을 돌며 수익사업 동참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포교부장스님의 전국 순회 동행은 조계종 신도를 대상으로 신도증 가입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재무부가 준비 중인 수익사업은 (주)향군가족과의 상조서비스 업무 제휴이다.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상운 스님(왼쪽)과 (주)향군가족 한재룡 대표가 MOU를 체결했다.

자승 스님은 종책특보단의 확대 운영 방침도 내비쳤다.

스님은 "15대 종회가 꾸려지면 수익사업 등 몇 개 분야에 특보를 더 임명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재무부(재무부장 상운)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 (주)향군가족(대표 한재룡)과 상조업무 협약식을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시민사회 이슈에 공동대응

불교단체들, 네트워크 형성키로

범불교 단체가 연합한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결성돼, 종단 안팎의 이슈에 대해 불교계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결집시키게 될 전망이다.

청화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前 대표 · 前 조계종 교육원장),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퇴휴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지현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성태용 건국대 교수,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등 범불교 단체 관계자들은 7월 13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웅기 재가연대 사무총장은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회적 이슈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네트워크가 연합기구 등 어떤 형태가 될지는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범불교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4대강 지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영담 스님 건에 대해서는 문수 스님 추모재 이후에 적극 대응키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東大 기본교육기관 제외 철회하라"

석림동문회 졸업생, 교육원안 비판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동국대를 승려 기본교육기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동국대 출신 스님 모임인 석림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국대 석림동문회 제24기 졸업생 일동(회장 현조)은 7월 15일 성명서를 내고 "동국대를 기본교육기관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은 기본교육기관 개편의 뚜렷한 목적의식의 부재와 현실인식의 부족에서 나온 근시안적인 대안"이라며 "동국대를 승려 기본교육기관에서 배제하겠다는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교육원은 5월 4일 열린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동국대를 기본교육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다툼과 삶의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일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대학은 불교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계사 앞 동산불교회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초의 2년제 불교대학으로서 많은 불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불교대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동산불교대학을 만나십시오!

www.dongsanbud.net

2010년도 후기
동산불교대학·대학원·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 안내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불교학과

1. 교과목 및 교수

	교 과 목	교 수
1년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대) 묘주스님(동국대), 정병조교수(동국대),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대학) 김상현 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권경희교수(서울대학원대학)
2년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대학), 장엄스님(승가대), 법상스님(승가대) 종석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귀교수(동국대) 윤열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모집인원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6시 (80명),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명), 통신반 (50명)

3.입학일시 : 불교학과 2010년 8월 7일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4.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0년 7월1일 부터 접수중
▶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신반 30명)	초발심자경문, 한문해석 금강경(1),(2), 유마경(1), 중국고전(장자) 등	심만춘교수	9월 9일(매주-목) 오후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T-테이블셋팅,(한국, 중국, 일본, 유럽 차문화사) 제다학(1),(2) 한국의 현다래	오양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9월 9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30명) 불교학과목요반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20명)	불교포교론	활 안스님	9월 6일(매주-월) 오후7시
	아함의 수행론	김형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7시
	초기불교수증론(2)	최봉수교수	10월 7일(매주-목) 오후4시
다도학과(2년과정)	다경, 대관다론, 다부, 동다송, 다신전	김진숙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9월 4일(매주-토) 오후2시
범패의식반 (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	인각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3시

본회사무처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 732-1206 FAX : 732-1207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팜플렛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학 장 무 진 장 / 이사장 안 동 일

개신교 왜 이러나

전통문화 몰이해 어이없다

단체 통한 MB정권의 불교탄압 대리전 의혹… 조계종 '신중' 입장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전폭 지지했던 일부 개신교단체들이 신문광고를 통해 불교계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MB정권의 불교탄압이 개신교단체를 통한 대리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종윤),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회장 신명범 장로),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김승동 목사),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총재 이민구 목사)는 7월 14일자 동아·문화·국민일보에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을 운영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광고를 냈다.

개신교단체들은 광고에서 "정부의 원칙 없고 무분별한 국가 재정지원이 종교계를 병들게 한다"며 불교계에 지원되는 국고를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템플스테이에 6년간 563억원, 문화재 관리 보수비에 10년간 4570억원, 대구불교테마공원 조성에 1200억원이 지원됐고, 문화재관람료로 한해 330여 억원이 징수되는 등 불교계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세금에서 받아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신교계는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연간 5000억원이 문화재관리 명목으로 불교계 등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박근혜 한나라당 前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개신교단체들은 "템플스테이 사업이 불교포교에 사용되고 있다"며 종교편향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템플스테이사업단 이민우 팀장은 "템플스테이를 방문한 외국인이 14만명, 내국인도 불자가 아닌 이들이 60~70%가 참여하는 등 템플스테이 사업은 정부와 OECD가 지정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신교단체들은 태고종이 불교문화전승관 명목으로 60억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 등을 예로 들어 마치 불교계가 국고 횡령을 일삼는 부도덕한 단체인 양 매도했다.

개신교 단체들은 "고려불교로 인해 고려왕조가 망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며, "불교계가 국가정책에 압력을 행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어 국가가 위태롭다"는 주장도 펼쳤다.

불교계는 "불교문화가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국고지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신교계의 템플스테이 사업이 종교편향이라는 지적에는 강원도 횡성에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어지는 바이블파크를 예로 들어 종교적 아이템을 잠재성 있는 관광자원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신교단체들은 "불교계와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과의 갈등은 정종(政宗; 정계와 종교계)유착이다. 불교계는 '종교편향'이라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예산을 더 받아내기 위해 '로비'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단체들은 불교계 소유 토지를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은 "일제 식민 치하에서 기독교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으나 불교계는 조선총독부와 밀착해 엄청난 재산을 얻었다"는 억지를 펼쳤다.

이에 대해 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일제가 한국불교계에 왜 토지를 주겠느냐?"며 개신교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연구교수는 "일제 강점기에 근대식으로 법령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토지측량을 해 등기한 토지를 개신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시 스님들 중에는 '일본 놈에게 토지를 신고하면 뺏긴다'며 토지소유 신고를 안해 유실된 삼보정재도 많았다. 일본 강점기를 거쳐 불교계 소유 토지가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개신교계의 전면공세에 조계종 총무원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최근 개신교계의 반불교계 정서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포착돼 여러 경로를 통해 배경 등을 확인·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대구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사업의 일부를 수정해 시의회에 불교테마공원 사업을 블로동 고분공원 정비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대구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사업은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템플스테이 사업과 함께 언급해 물의를 빚었던 사업으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해왔다.

조동섭 기자



7월 13일 한나라당 당대표 토론회가 열리는 KBS 앞에서 불교단체 관계자들이 안상수 의원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교단체 "안상수 후보 사퇴"

계속 압박 수위 높일 예정 경고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단체의 후보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의원이 한나라당 새 대표로 선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진오),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김동건),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 등 6개 불교단체는 7월 13일 한나라당 당대표 토론회가 열리는 KBS를 방문한데 이어, 1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장인 잠실종합체육관을 찾아 '봉은사 주지'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안상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불교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 대표에 출마한 안상수 의원은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게 '좌파주지 퇴출' 운운해 불교계의 반발을 불렀음은 물론, 정교분리를 명기한 헌법을 노골적으로 유린한 인물"이라며 "공당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커녕 시민 일반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이가 당대표가 된다면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수치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친이계로 분류되는 안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1295표를 얻어 1482표를 득표한 홍준표 의원에게 뒤졌지만, 대의원 투표에서 앞서 홍준표 의원을 462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

손상훈 재가연대 정보관리국장은 "문수 스님 추모제 이후 불교단체들과 연대해 안상수 새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일간지 종교 기사 불교에 치우쳤으니 고쳐라?

한국교회언론회 종교보도 분석… "언론 자유 침해 소지 있다" 우려

한 개신교계 단체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의 종교보도 기사 통계를 분석하며 종교편향 운운하는 결과를 내놓아, 언론에까지 반불교 정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김승동 목사)는 7월 12일 '2010 상반기 각 언론별 종교보도 분석'을 발표했다.

조사는 2010년 상반기(1~6월) 중앙일간지(조선·중앙·동아·경향·한겨레·문화·서울·한국·국민·한국경제)의 사건, 인물, 자료 소개 등 종교 관련 보도의 크기와 성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2010년 상반기 각 신문이 종교 관련 사항에 할애한 지면은 97만3928㎠이며, 횟수는 2896회였다. 종교별로는 불교가 38만8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신교가 24만5710㎠, 가톨릭이 19만2850㎠, 이슬람이 6만1436㎠, 유교가 8006㎠, 정교회가 5444㎠, 힌두교가 3521㎠, 유대교가 600㎠, 대종교가 372㎠, 천도교가 1321㎠이었다. 여러 종교가 혼합 관련된 보도는 5만4700㎠ 등이었다.

불교 관련기사는 경향이 6만5721㎠로 가장 많이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6만2370㎠) 중앙(4만8346㎠) 조선(4만7656㎠) 한국(4만7188㎠) 문화(3만5607㎠) 서울(3만2716㎠), 동아(3만1725㎠), 한국경제(1만3705㎠) 순이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의 불교 관련 보도가 종교기사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 중 불교를 가장 많이 보도한 언론은 국민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가 모두 해당됐다"며 "종교보도가 불교에 지나치게 치우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개신교에 대해서는 한겨레(20.41%)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도했다"며 "경향과 한겨레는 불교를 편향적으로 보도하면서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보도 비율도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같은 조사를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실시한 후 연간 통계자료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계조사를 빌미로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교회언론회는 2003년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역술·점술 광고 게재를 조사한 후 신문사에 게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일제 수탈 문화재 환수 힘 모은다

조계종, 이천시장에 이천오층석탑 회수에 힘 보태겠다 약속

일제에 의해 수탈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조계종과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주병돈 이천시장(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천오층석탑 환수에 종단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수탈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상대가 참회해 돌려주는 것으로 보여서는 일의 성사가 힘들다"며 "의욕적·선정적인 표현을 삼가면서 일이 되게끔 조용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병돈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이 한마음으로 석탑의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측도 석탑의 내력을 알고 있다. 환수위도 반환의 당위성은 설명한 상태이나 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조계종이 힘을 보태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전 국민이 호응하고, 서명해도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화재 반환은 이룰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천오층석탑은 이천 망현산 기슭에 있던 고려시대 석탑(높이 648㎝, 폭210㎝)이다. 일제가 1915년 조선물산진공회를 열면서 박람회장인 경복궁으로 옮기고, 1918년 오쿠라 기하치로에 의해 동경 오쿠라 호텔로 옮겨졌다.

이천시는 2009년 10월부터 이천오층석탑 반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해 2010년 5월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달 말경 도쿄에서 반환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자승 스님이 이천시장에게 문화재 환수를 위해 상대를 존중하고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한 것은 옛 경복궁 건물인 근정당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조동섭 기자



▶법사 방필석

耕當問奴 (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이요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신생아 작명 개명. 아호. 상호

역학개인지도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現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수상서울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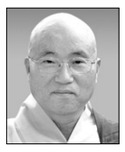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9-8259 (빨리오구), FAX 730-8528

전화신청환영 ,국내외 우편발송 우리은행/계좌번호: 306-07-194422 예금주: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 국 민 속 철 학 연 구 소 법사 방 필 석

일 주 문



문학공간 시부분 신인문학상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은 <지리산 봄>으로 <문학공간>이 선정하는 제247회 시부분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만행산여름마당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8월 6~8일 귀정사와 만행산 일대에서 만행산숲살림을 개최한다. (063)635-5453



조계사 - EBS 수능 공개특강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7월 23~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EBS와 공동으로 2011학년도 수능마무리 특강을 개최한다. (02)732-2183



정토회 2010동북아대장정
정토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8월 7~15일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는 2010동북아 대장정을 개최한다. (02)587-8990



비로자나국제선원 어린이 영어캠프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자우 스님은 8월 4~9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제4회 어린이 영어 담마 캠프를 개최한다. (02)6012-1731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상담 워크숍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담교 스님은 7월 24~25일 평택 불법사에서 '제11회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상담 워크숍'을 개최한다. (02)737-8803



불레협 연꽃어린이 연합캠프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7월 26~28일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2010 연꽃 어린이 연합 캠프'를 개최한다. (02)738-7860



대한불교진흥원 제8회 대원상 공모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7월 30일까지 제8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02)719-1855



동산불교대학 37기 신입생 모집
안동일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8월 7일까지 동산불교대학 제37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32-1206



한일문화교류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김호성 일본불교사연구소 소장은 8월 31일까지 한일문화교류 아카데미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2)2260-3123

■ 박상진 예술문화진흥연구소장

"불교문화예술은 대립·갈등푸는 해법"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예술로 풀어나가는 것이 해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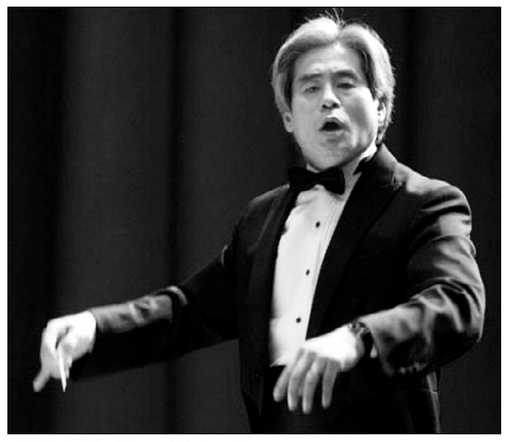
동국대 경주캠퍼스 예술문화진흥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현대 한국불교가 대표적인 종교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역할을 다하려면 불교가 축적해 놓은 문화예술로 풀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예술문화진흥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국불교예술문화의 세계화·생활화·문화자원화를 실현하고자 2009년 10월 설립됐다. 현재 연구소는 유형의 불교문화예술보다 무형의 불교문화예술에 중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진 소장은 "불교문화예술을 문화자원하기 위해 불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발전·축적된 무형의 불교문화예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상진 소장은 불교문화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사업도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소는 산업화·대중화를 위한 불교문화예술컨텐츠를 연구·개발해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한국문화를 이웃의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와 견주어 보면, 특히 뛰어난 분야가 음악입니다. 서로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자주 교류 해왔으며 우리 민족은 남들보다 월등한 음악을 가꾸어 왔습니다. 불교음악에 있어서도 한국은 가장 독창적이며 미학적으로 우수한 불교음악인 범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문화진흥연구소 박상진 소장.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이기도 한 박소장은 "한국의 문화예술사는 불교문화예술사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음악에 있어서도 불교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불교예술문화를 통한 정신건강·참살이(well-being)·일상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박상진 소장은 "선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개발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선과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불교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7월 10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문화예술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첫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김승국 전통공연예술연구소장이 '역사를 통한 불교문화예술의 진흥방향 모색'을, 구미래 성보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이 '전통불교문화의 현대적 복원' 등을 발표했다.

이나은 기자

■ 제8회 국제선서화전시회 여는 경암 스님

세계평화·종교화합 위해 붓 들다



미주포교의 선구자인 경암 스님(사진)의 글과 그림을 모은 제8회 국제선서화전 '산사에서 부는 바람'이 7월 16일 막을 올렸다.

경암 스님은 선서화전을 열며 "세계 평화와 종교간 화합에 기여할 워싱턴 평화대학교 건립을 위해 불교의 글귀와 선묵화를 소재로 감히 붓을 들었다"고 말했다.

1982년 도미해 1984년 워싱턴 보림사를 창건하고 미주 불교신문 발행, 대원불교대학 미주분교 수용 등 미주포교활동에 정진하고 있는 경암 스님은 일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 전 1956년 의제 허백련 선생에게 동양화를 사사한 선서화계의 대가다. 스님은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중광 스님에게 추상화를 가르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제8회 국제선서화전에서는 추상화 20점 등 54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선서화전 수익금은 워싱턴 대통령 국립공원 앞에 26만 평 규모로 자리할 워싱턴 평화대학교 건립에 사용된다. 워싱턴 평화대학교는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유교 등을 망라한 종교 종합대학이다. 스님은 2003년 대학 설립을 위해 부지매입을 마쳤다.

한편,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을 비롯한 마곡사 일현문도회 스님, 불교신문사장 혜자 스님,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등 불교계 중진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7월 2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열리는 제8회 국제선서화전은 10~11월 일본 오사카, 2011년 3~6월 미국 뉴욕, 텍사스, 캐나다 토론토, 2011년 8월 뉴질랜드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02)2011-1762

노덕현 기자

육군훈련소 법당 건립 1억원 후원 전국비구니회

전국비구니회가 육군훈련소 법당 건립을 위해 1억여 원을 쾌척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은 7월 15일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에게 불사후원금 1억796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명성 스님은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참해야 할 중요한 불사"라며 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했다.

이에 자광 스님은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동참해주신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불사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 호국연무사 불사를 잘 해내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회 소속 중진 스님들의 모임인 목련회는 불사후원금 1억원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창종 법회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총무원장 청파)이 7월 10일 김해시 부원동 골든뷔페 연회장에서 창종을 선포했다.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초대 종정 혜암 스님과 초대 총무원장 청파 스님을 비롯해 종단총연합회 회장 의륜 스님, 범종단협회 회장 지암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 및 종도 700여 명이 참석했다.

봉행위원장(원로원장) 무성 스님은 창종 선포문을 통해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 온 겨레의 아픔을 함께하는 승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청파 스님은 봉행사에서 "율사조계종은 불교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대중불교, 호국불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종정, 총무원장 추대식에 이어 각 부 임원 임명장을 수여했고 창종에 기여한 종도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했다.

초대 종정으로 추대된 혜암 스님은 창종 법어를 통해 "화합과 자비로 마음을 열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자. 모든 것의 출발은 화합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055)336-0108

조동섭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 대불장학금 전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명호근)는 7월 11일 서울지역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2010년 대불장학금 3000만원 중 대불련 서울지부 회원 10명에게 전달됐다.

선발된 장학생 중 대불련 중앙본부 임원 5명과 지방지부 회원 15명에게는 8월 12일 경주에서 열리는 대불련 영캠프에서 장학금이 지급된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 보광사서 무료진료



동국대 일산병원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윤형근·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파주 보광사(주지 초격)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연우회는 하루 동안 150여 명이 넘는 고양, 파주 지역주민, 경로당 어르신들과 보광사 스님 및 종무원, 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무료진료는 환자 상담, 혈압·혈당을 체크하고 양방과 한방에서 진료, 물리치료, 침술치료 등이 실시됐다.

또 연우회는 7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있을 보광사 어린이템플스테이에서 쓸 수 있는 구급함세트를 전달했다.

박선주 기자

석가여래부처님,팔만사천성군님,천백억화신천지신명,
세계승왕 인왕예하, 불교종단총연합회장 의륜대종사, 불교종정협의회장 월인대종사, 불교각종단종정큰스님, 대한민국이 증명한다.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 일시 : 오는 7월 30일(금) 음 6·19 오전 10시 입장 -기도 / 오전11시 - 법요식
• 장소 : 대구문화웨딩홀 대연회장 6층 (동대구역에서 5분거리 ☎ 053-756-1100)

임원추대식 및 임명

총 재 청암 도한수 대종사 — 총남불교조계종종정
명예회장 안신풍 대종사 — 대한불교대원종종정
부총재 현광 김용익 대종사 — 대한불교달마선종종정
회 장 석연화 대종사 — 호국불교소림선종총무원장
부총재 법각 지오 대종사 — 대승불교조계종원로원장
부회장 심향 법장 대종사 — 한국불교구산선문회회장
부총재 청원 박수용 대종사 — 대한불교불광종종정
부회장 만주 조성수 대종사 — 한국불교대불종총무원장

참여종단 및 단체

총남불교조계종 종정 청암 도한수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보리현광 김용익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박수응
대승불교조계종 원로원장 법각지오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안신풍
호국불교효예종 종정 법진 신승도
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조성수
한국불교구산선문회 회장 심향법장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총무원장 대천
세계불교화엄종 방장 월담성인 홍승운
대중불교조계종 종정 향덕 박승억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이종수
통합불교아미타종 종정직무대행 법안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원각 한경수
대한불교천안종 종정대행 청산성운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응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법정 구철회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해광 전충열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유명곤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박영주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혜륜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성 오시웅
세계불교도승왕청 최고위원 현공도일
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총무원장 덕정
한국불교내외종 대표 청단 윤문봉
대한불교정법종 종정 법정덕암
한국불교화합조계종종 종정 성해해도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태함 함명호
대한불교일원종 총무원장 대원 최진동
대한불교도생조계종 종정 청오 사불
세계불교평화종 종정 고명 김춘석
대한불교칠곡사 주지 의천 권흥수
용화세계지장종회 구환사주지 석마정
한국불교대불종 관음사주지 무송 백다흰
호국불교효예종 석왕사주지 법성 임근곤
참된삶실천운동본부 석문사주지 석혜전
한국불교 보타사·행자암주지 석보타
세계불교조동종 총무원장 청산 이재관
소림선종 대명사주지 허옥자
사)한국불교극락조계종 총무원장 은곡
대한불교여래조계종 총무원장 해덕월명
대한불교관음성종 대표 관행 정숙자
대한불교여래대명종 대표 법정 이근원
대승불교달마종 총무원장 해광 문동춘
대한불교대성종 종정 대성 김영기
세계불교화엄종 부석사주지 호조 최면배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상 조용수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회장 김익현
총남불교조계종 은혜사주지 대산 안의호

초청의 말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총재단·회장단 추대식과 함께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코져 하오니 동참하시여 우리 전통 문화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불교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 이 뜻을 응집하여 우리의 결의를 만천하에 알리고져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계층과 종파를 초월하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평화운동 주인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전통문화예술단체, 불교종단 및 신행단체 등 법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 지금 등록하십시오. 시도본부 사무소 개설 희망자
서울 구로 구로4동 732-2 ☎ 010-2500-0111 011-356-3427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중앙본부 사무총장 법왕자 김소부

◆장소 세부안내
- 동대구역에서 5분거리 : 주말에는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대구문화웨딩홀 대연회장 6층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00-4번지 Tel 053)756-1100

총회위원장 만주 성수 대종사 — 한국불교대불종총무원장
봉행위원장 일응 철우 대종사 — 한국불교전법조계종종정대행
대 회 장 법정 철회 대종사 — 대원불교조계종종정

군전법단 발족… 병원 경찰 이어 세 번째

160여 지도법사 스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부루나존자 되겠다 발원

한국 불교 미래를 환히 밝혀 줄 군포교를 전담할 기구가 출범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혜총)은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군전법단 지도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위촉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포교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진력을 다해 활동 중이다. 오늘 군전법단 출범을 계기로 군장병 포교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법단 단장 계성 스님(포교부장)은 축사를 통해 "160명의 전법단 지도법사 스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못해낼 것이 없다. 전법 홍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군전법단 지도법사로 위촉된 자영 스님(203특공여단 영평사), 도윤 스님(유도탄사령부 무극사), 효강 스님(과학화훈련단 응봉사), 백거 스님(102여단 호국일출사), 덕현 스님(5기갑여단 호국철갑사), 대해 스님(30사단 · 92여단 호국쌍룡사), 지일 스님(1기갑여단 기갑호국사), 지견 스님(75사단 호국 철마사), 탄웅 스님(용주사 포교국장), 지선 스님(내장사 주지) 등은 군포교에 더욱 더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군전법단 지도법사들은 군부대 등에서 법회, 법문, 교화활동을 펼치게 된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7월 14일 열린 군전법단 지도법사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군전법단은 포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방위적인 포교역량을 펼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출범한 조계종 전법단의 하부 조직이다. 군전법단 지도법사들이 체계적으로 군부대 등에서 법회, 법문, 교화활동을 펼침으로써 군 포교 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포교원은 전법단 산하에 이날 출범한 군전법단을 비롯해 5월 12일 창립된 병원전법단, 6월 28일 경찰전법단을 설립했다.

포교원은 대학생, 청년 전법단 등 분야별 전법단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또, 분야별 전법단과는 별개로 대구 · 경북, 광주 · 전남 등 지역 사찰 및 단체들과 연계한 전법단 지역 조직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석학강좌-불교와 음악 토론회

"불교음악, 대중에 귀기울여야"

불교문화정보연구원(원장 진철승)은 7월 13일 서울 템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석학강좌 시리즈-불교와음악'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불교와음악 강좌의 마무리 행사로 마련된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그동안의 강사들이 토론자로 나서 불교음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에 앞서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불교어산작법학교 교장)의 범패 강연 및 시연이 진행됐다. 인묵 스님은 이날 범패를 직접 시연하며 전통과 현대 불교음악의 조화를 강조했다.

인묵 스님은 "억불숭유의 조선시대 불교가 맥을 이은 것은 유교가 하지 못한 사후 세계에 대한 민중의 요구를 해소했기 때문"이라며 "불교음악도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대화로 대중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모든 음악이 그렇듯이 범패도 목소리가 굳기 전에 익혀야 한다. 현재 각 종단의 출가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그나마 동진출가가 많은 조계종이 범패의 맥이 끊기지 않게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영규 불교음악협회 회장은 "최근 열린 음악회 등을 보면 가요와 가곡이 함께 어우러져 청중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불교음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규백 작곡가는 "불교음악 창작에 앞서 우리 전통과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러 음악요소를 이용해 새로운 불교음악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작곡가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범패도 악보 등을 만들어야만 스님들과 음악가들이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용 불교문화정보연구원 이사장은 "범패라는 기본 바탕하에 대중성을 모색하는 취지를 지닌 이번 불교와음악 강좌가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불교음악계의 분명한 방향이 설정된 것 같다"며 토론회를 끝맺었다. (02)742-4288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연등축제 정진상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0연등축제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마음선원 법형제회(주지 혜원)를 비롯한 6개 단체에 정진상을, 영화사 연희단 외 8개 단체에 보현상, 몽골 아마르암갈당 포교당 외 5개 단체에 원력상이 시상됐다. 또한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스님, 한마음선원 청년회 기획팀장 이준문씨 외 13명에 대한 표창패를 시상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박종수 신도회장에게 정진상을 시상하는 모습.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신흥사 우승 · 월정사 준우승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성황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10일 충북보은공설운동장에서 제2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축구를 통한 각 지역 및 단체 포교활동가의 친목 도모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포교역량 결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 가 주관한 축구대회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포교원장의 인사말씀, 보은군수의 환영인사와 체육인 불자회 부회장의 축사 순으로 개막식이 진행되었고 곧이어 대회에 참가한 법주사, 월정사, 화엄사, 용주사, 직할교구, 동화사, 수덕사, 신흥사 등 8개 교구본사가 토너먼트 예선경기를 가졌다.

이날 축구는 속초 신흥사가 우승했고, 준우승은 평창 월정사가 차지했다. 족구는 대구 동화사가 우승을, 예산 수덕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100자 뉴스

대각사 여래선원 불교명상 강좌 개강



대구 대각사 여래선원(선원장 법산)은 7월 3일 불교명상 강좌를 개강했다(사진).

대각사에서 개강한 불교명상 강좌는 불교명상 체험코스와 불교명상 지도자 코스로 나눠 매주 금요일 기초교리, 경전강좌, 위빠사나, 사띠요가, 108성지 순례 등이다.

선원장 법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목수가 먹줄에 의해 톱질하듯 부처님을 의지해 무아의 '공' 자리를 체험해 선의 에너지를 창조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봉선사 24~25일 봉선사 연꽃축제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는 7월 24~25일 경내 승과평 특설무대에서 '화중생련'을 주제로 제8회 남양주시 · 봉선사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24일 오후 7시 개막식과 한여름밤의 산사음악회에 이어 25일 오후 2시 연꽃가요제 등이 열린다.

이와 함께 행사장 인근 연꽃유치원 잔디공원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무료 차 시음회가 상설운영된다. 부채를 이용한 단청채색 체험장과 페이스 페인팅, 만다라 그리기 체험, 천연 허브를 이용한 비누, 모기퇴치 방향제 만들기 체험 등이 펼쳐지며 연꽃사진전도 열린다. **조동섭 기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학술상 · 장학금 대상 선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 이하 진흥원)은 불교계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불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은정학술상 및 은정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선발한다.

선정 분야는 △은정학술상 △학술연구인력 장학금 △불교단체장학금 등 3개 분야이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 (02)515-9351 **이나은 기자**

문화재지킴이청년연대 조선왕실의궤 환수운동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지킴이청년연대(단장 이재권)는 7월 21~2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의 환수운동을 펼친다.

동국대, 고려대, 용인대 등 대학생 8명과 월정사 법상 스님, 봉선사 혜문 스님, 이상근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등 12명이 참가한 이번 방문단은 일본 궁내청 및 총리관저를 방문해 촉구집회를 여는 한편 국회의원 · 사회단체 인사 면담, 언론 인터뷰 등 일본 내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지킴이청년연대는 '우리 문화재를 바로알고 바로 지키자'는 취지로 2009년 창립됐으며 현재 13개 대학에서 20명의 대학생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생활불교조계종 울진서 2010 주지 연수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7월 1~3일 울진 백암한화콘도에서 '2010 주지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전국 종도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암도 스님을 비롯한 강사 스님들은 <금강경>, 생활불교의 실천, 수맥과 포교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054)682-5808 **조동섭 기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 선불교 조계종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여기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준비 되셨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세요.

- 사찰 등록 • 주지 임명 • 승려증 발급
- 행자 (예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어렵고 복잡한 것 싫습니다.
그저 종단의 보호만 받고 부처님 재산인 내 사찰 내 재산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 어렵게 살아가는 극빈자들에게 종단에서 추진하는 중생 교화, 인간방생에 적극적으로동참한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개인 사찰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단 법으로 일체 간여하지도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서의 불사나 행사에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같은 도반이요 부처님 제자요 가족이기에 품앗이 정신으로 서로서로 도우며 아무리 조그마한 사찰이라도 원만하고 자랑스럽게 행사를 봉행하도록 협조합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산하종단 국제 선불교 조계종 / 총무원 : 02)733-5670. 733-5665 / 팩스 : 02)733-567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미얀마 문화원
미얀마 연방정부 우 냔 위인 외무부 장관 내방
목탁스님께 빈민가 우물 파주기 성과에
감사의 뜻 전해



미얀마 연방정부 우 냔 위인 외무부 장관이 종로구 청진동 소재 미얀마 문화원(원장 목탁)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목탁 스님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원을 이끌고 미얀마를 위해 실질적인 봉사운동을 진행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우 냔 위인 장관은 목탁 스님께 "앞으로 미얀마를 바르게 알리는 한국의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 하며 어떠한 지원도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양국 관계가 더 큰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글을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앞서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빈민가 우물파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미얀마 양곤 빈민가 지역 중 식수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극빈 마을에 5기의 우물을 파주는 행사를 진행하여 현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협회는 한 번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년 30여기의 우물 파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연방정부가 공식인정한 미얀마 문화원은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를 바르게 알리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스님, 재가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부모님과 진로 선택 같이 해요”

영통복지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진로 · 봉사활동 프로그램

여름방학을 맞아 영통복지관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봉사활동 돕기 나선다.

수원사(주지 성관)가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복지관(관장 이용권)이 자녀의 진로탐색에 좋은 안내자가 되고 싶은 부모와 꿈을 찾는 자녀들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직업탐방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직업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것. 이번 직업탐방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상담을 받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직업탐방 프로그램은 7월 2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Strong 검사(직업적성검사)가 실시된다. 8월 2~27일에는 직업탐방(전문가와의 만남의 장)및 집중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모습.

직업탐방이 가능한 분야는 △아나운서 △의사 · 간호사 △IT개발(컴퓨터 프로그래머) △행정공무원 △호텔요리사 △바리스타 △뮤지컬 배우 △사회복지사 △변호사 △경찰 △유치원교사 △성악가 △가수 등 이다.

직업탐방은 청소년(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소년은 참가비 1만원을 내야하고 부모님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031)201-8318

이어 영통복지관은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영통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연다.

영통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1차(7월 20~22일), 2차(27~29일) 오후 1~5시 지역사회 내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개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혜영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하기위해 자원봉사학교를 열었다”고 말했다.

영통청소년자원봉사학교에 모두 출석한 학생은 12시간의 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결석 시에는 봉사 시간 인정이 불가하다. 참가비 5000원. (031)201-8314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아이들은 유치원서 세상을 배운다

승가원 부설 율곡어린이집, 범죄예방 · 안전 교육

“낯선 사람이 와서 길을 알려달라며 차에 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가원(이사장 태원) 부설 서울 강북구 율곡어린이집(원장 최영옥)에서 7월 12일 범죄예방교육이 열렸다.

교육은 낯선 사람이 길을 알려달라며 접근한다는 상황을 설정해 시작된 역할극은 그 상황에서 아동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만약 어쩔 수 없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동이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김문미 교사(우리아이지킴이 교육위원)는 그 대처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취급을 받았을 때 즉시 부모님이나 믿을만한 어른들에게 이야기 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 당했거나 나쁜 느낌이 들 경우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피한다 △만일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범인이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강요해도 반드시 부모나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고 말했다.

승가원 부설 율곡어린이집 무지개 반(5세)의 14명의 아동들은 범죄예방 교육에 눈을 떼지 않았다. 교육은 상황극, 영상자료를 활용해 40여분간 진행됐다.


승가원 부설 율곡어린이집 아동과 우리아이지킴이시민연대 김문미 교사가 인형을 이용해 역할극을 하고 있다. 김문미 교사는 이날 수업을 들은 아이들에게 호신용 호루라기를 나눠줬다.

김문미 교사는 “아동들이 강의식 교육보다는 역할극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며 “놀이터, 엘리베이터 안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교육에서는 안전한 유치원생활을 위해 △다른 친구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기 △집으로 가는 안전한 길 알아두기 △무엇이든 엄마 아빠 선생님에게 알리기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기 △집 유치원 부모님 전화번호 외워두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옥 원장은 “아이는 유치원에서 세상을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의 인생습관이 유치원에서 이뤄진다.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이들은 위험에 대처하는 법에 서툴러 사소한 일이 커질 수가 있다. 3월부터 생활, 교통, 재난, 약물, 성, 유괴 등 분야를 나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아이지킴이시민연대에서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육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연령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02)364-3389

박선주 기자

방학맞이 어린이 무료 서당교실 은평노인복지관

인덕원(대표이사 성운)산하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열)에서는 아동 · 청소년들의 보람찬 방학을 지원하고자 ‘제22회 서당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서당교실은 은평구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2학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육은 △사자소학 △예절교육 △특강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일시는 7월 26일~8월 13일(3주 간)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진행된다.

접수는 7월 23일까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로 직접 내방하거나 전화로 접수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02)385-1351

박선주 기자

몽골 아이들 꿈을 그리다

몽골드림센터, 나담축제 일환 미술전시회


몽골드림센터 민경득 간사와 미술전시회에 참가한 몽골 아이들의 모습. 2008년 개관한 몽골드림센터는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세워진 복지센터로 무료진료, 한글 · 영어 · 수학 · 컴퓨터 · 미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의 해외 복지시설인 몽골드림센터가 7월 2일 미술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미술전시회는 세계 10대 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몽골의 나담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미술전시회에는 몽골드림센터를 이용하는 14명의 아이들과 6명의 지도교사가 그린 그림이 전시됐다.

하루동안 진행된 미술전시회에는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박선주 기자

원심회 의료봉사 마하의료회

마하의료회(회장 손경수)가 7월 25일 조계사 원심회 의료봉사에 나선다.

이번 진료는 25일 오후 1~5시 조계사 불교대학 내에 위치한 원심회 법당에서 실시된다. 원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의료봉사의 진료과목은 내과, 한방, 치과 등 이다.

2007년 9월 1일 창립된 마하의료회는 같은 해 9월 9일 군법당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매년 8회 이상 무의촌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이다.

문의 011-9907-3964 (진료단장 하상현 선생님)

박선주 기자

영동 다문화가정 전통혼례 합동결혼식

영동군은 제3회 세계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7월 1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정형편상 혼례를 치르지 못한 다문화가정 3쌍의 합동결혼식을 열었다.

이번 합동결혼식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시집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영동읍 부용리 김영복(46)씨와 호티머이(30 · 베트남)씨, 학산면 서산리 임순덕(43)씨와 지우티머이(20 · 베트남), 황간면 신흥리 이무한(42)씨와 하이레커나(23 · 캄보디아)씨 등 다문화가정 3쌍의 부부가 전통혼례를 올렸다.

한편, 이날 결혼식에는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이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 회원들과 참석해 이무한씨와 하이레커나씨에게 금일봉 200만원을 전하며 결혼을 축하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생명나눔, 행복한 세상만들기 협약식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박종명)는 7월 15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박언휘 종합내과와 ‘행복한 세상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홍보에 따른 이익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명나눔운동에 기부하고, 장기 희망등록 캠페인을 함께 벌여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본부는 지난 4월에는 수성구 올래한정식과 ‘행복한 세상 만들기 협약식’을 갖는 등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한 결연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社團法人 大韓佛敎 圓融宗

奉 第8代 總務院長 就任法會 祝

귀의 삼보하옵고.
大韓佛敎 圓融宗 第 8代 總務院長 就任式을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부디 參席하시어 法席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융종 임원 구성표 =

宗正猊下 靈山堂 一空

副 宗 正 천호당 천호 元 老 院 長 설봉당 성인 僧政院長 원산당 평신
宗儀會議長 원송당 송운 宗正禮敬室長 원법 해주

總務院長 圓先堂 체의

敎育院長 원견 해안 監察院長 원벽 진허 文化院長 원효 혜광 布敎院長 원지 혜민

서울,경기 종무원장 정안 충청 종무원장 보각 부산 종무원장 혜민 전라도 종무원장 각우
경남 종무원장 우담 경북 종무원장 도경 강원 종무원장 보륜 제주 종무원장 법선
전국 비구니회장 선덕 부 회 장 진월

■일 시 : 불기2554(2010)년 7월 28일 오전10시
■장 소 :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본산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39)
■연락처 : 02)853-0531~2 / FAX 02)853-0533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모친 대불성 불자

故 이옥순 여사 장례장에 대한 인사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지난 7월 6일(음, 5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법장 속가 모친 세수 95세 별세(입적)에 장례식을 사부대중의 도움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각 종단 원로대덕 큰스님과 종정예하 및 총무원장 스님과 수백의 종도스님과 제방의 대덕스님들, 정부 및 사회 각계 각층 인사 그리고 조화, 조전 등으로 조의를 보내주신 각계 사부대중 모두에게 감사의 배례를 올립니다.
앞으로 선지식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더 수행에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올림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길 대중앞에 삼배 올립니다.

나무 청정 법신불

불기 2554년 7월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종도일동 합장
출가사문 제자 불효자 송법장 배례
법장문도회 제자대표 최도오 배례

‘반야바라밀 · 보현행원 · 구국구세’ 불광사상 주축

불광연구원 ‘전법보살 광덕 스님의 사상 · 업적’ 체계적 연구 돌입… 매월 연찬회 열어 심층 조명

숭유억불로 홀대 받던 한국불교가 근대화와 서구화의 격랑 속에서 좌초하지 않고 지금처럼 발전하기까지는 새의 두 날개처럼 한국불교를 받쳐준 선지식들이 있어 가능했다. 수행(修行)과 정법(正法)을 위해 신명을 바친 선승들과 교화(敎化)와 전법(傳法)을 위해 헌신한 큰 스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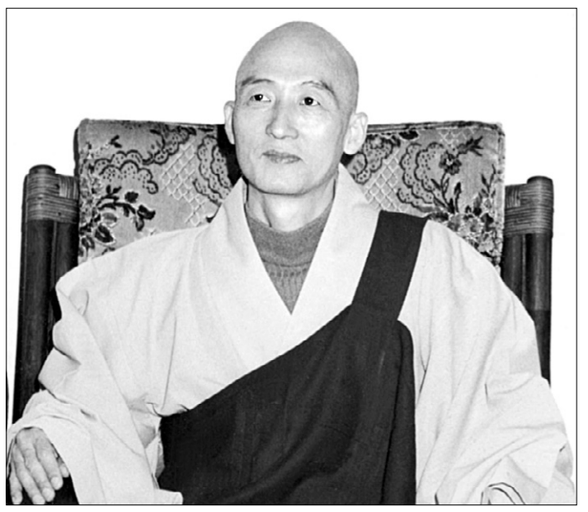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 근현대 고승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경향은 주로 수행승이나 학승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포교와 전법에 매진한 선지식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법보살(傳法菩薩)인 광덕 스님(1927~1999)의 사상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1년에 5차례에 걸쳐 10개의 연구주제를 발표할 계획을 밝히고, 7월 10일 첫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는 ‘광덕스님의 사상과 불광운동’의 주제로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했다.

김재영 박사(불교학 · 청보리회 법사)는 ‘광덕스님의 삶과 불광운동’을 주제로, 김선근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광덕스님 사상의 개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1974년 불광법회를 결성해 반야바라밀과 보현행원을 전파한 광덕 스님(1927~1999)은 현대의 ‘전법보살’이라 일컬어진다. 왼쪽 사진은 바라밀 운동회에서 참석 대중과 함께 찍은 사진.

#광덕은 곧 불광, 불광은 곧 광명

김재영 박사는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은 불가의 전통적인 수행에 의해 성숙되기 이전, 그의 치열한 생존의지에 의해 단련됐다”며 스님의 성장사를 고찰했다.

광덕 스님의 성장과정은 매우 곤궁하고 암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27년 경기도 오산에서 평범한 소농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광덕 스님은 생계문제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채 형의 도움으로 통신강좌를 이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태평양전쟁이 일어났고, 1942년인 16세 때 형과 아버지가 돌아갔으며, 1947년에는 어머니가, 1949년에는 어머니 노릇을 대신하던 둘째 누님과 매형이 이승을 떠났다.

가난한 살림, 고향 떠남, 진학좌절, 형과 부모님의 죽음, 누님의 죽음, 폐결핵 등. 성장과정에서 광덕 스님이 겪은 바위덩어리 같은 절망과 어둠은 개인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김재영 박사는 “그가 살았던 1930~60년대, 즉 일제강점과 해방, 한국전쟁, 이승만 독재, 군사혁명과 유신 등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청년 광덕은 깊이 고뇌했고, 좌우분열과 극한적 대립상황에 매우 괴로워하며 친구들과 밤 세워 토론하곤했다”며 “이러한 고뇌는 출가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덕 스님은 젊은 날의 고뇌를 안고 1950년 24세 때 범어사로 입산했다. 사미계를 받고 10여 년의 행자생활을 겪고 1960년 34세 때 득도를 했다. 스님은 용성 · 동산 · 소천 등 한국불교의 걸출한 선각자들로부터 법맥을 이어 받았다.

김재영 박사는 “용성 스님의 대각구세운동, 동산 스님의 선풍진흥운동, 소천 스님의 금강경구국운동이 불광사상의 토양이 되고 불광운동의 선구가 됐다. 실로 광덕 스님은 행운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박사는 “스님의 삶의 가난과 시대적 고뇌 속에서 단련된 투명한 감성과 문제의식이 불광사상 · 운동 전개에 결정적 조건으로 작용했다”며 “스님의 치열한 빛찾기 의식은 반야바라밀(교학 · 철학적 중심) · 보현행원(실천동력) · 구국구세(실제적 실천방향) 등 불광사상의 구조적 중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 불광사상의 기본 담마를 주요로 한 활동은 △법회 법등활동-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중고생 법회 △찬불가포교활동-보현행원송 등 △문서포교활동-월간 불광 등 △교육연구활동-불광유치원, 불광대학 △다양한 기능별 봉사활동 △생태환경운동 등을 전개하며 새로운 불교의 지평을 열어갔다.

김재영 박사는 “이런 다양한 기능중심의 활동들이 불광운동이 주력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들”이라 평가했다.

이어 김 박사는 “광덕 스님이 열반한지 10년이 넘었다. 그만큼 광덕 스님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다. 불광운동의 이념과 열정도 상당부분 소강상태로 봐야한다. 이럴 때일수록 불광운동의 이념을 살려내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김재영 박사는 광덕 스님 생전에 실시됐던 포교사 교육제도를 새롭게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일반 불교대학, 교양대학 방식의 불교지식인 육성은 별로 의미가 없다. 불광포교사 · 상담사 · 자원봉사자 · 복지사 · 환경운동가 등 불광사상과 전문교육 과목학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불광사상의 개척작업이 성공하려면 불광운동의 에너지원인 불광법회의 열정과 감동이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박사는 “법등은 불광 운동의 실체며 주체다. 법회의 에너지는 법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직되고 법등 본래의 이념인 전법운동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서대문 · 도봉구 · 부산 · LA불광법당, 청년 · 연예인 · 기업인 불광법당 등 지역별 직능별로 나누어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것이 광덕 스님의 서원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박사는 “본래 사찰은 민중들의 쉼터였고 재활센터였다. 사찰을 일컫는 vihara(精舍)가 바로 hospice(임종치유)를 의미한다. 갈 데 없고 굶주린 사람들이 절로 모여와 함께 살았다”며 “한국의 사찰도 불상 중심의 가람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쉼터와 교육장 중심으로 개혁한다면 평생을 중생의 병고로 괴로워한 광덕 스님의 뜻을 진실로 계승하는 불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야바라밀바탕으로 법등 운동

김선근 교수는 “광덕 스님의 사상은 크게 선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이 잘 어우러져 통섭돼 불광사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광덕 스님은 은사인 동산 스님의 간화선 지도로 스스로 체득한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 원천적인 부처님의 세계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스님의 사상은 <육조단경>에서 혜능 스님이 ‘항상 마하반야바라밀을 생각하라’고 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김선근 교수는 “이처럼 선가의 전통을 계승한 스님은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해 가슴 가슴마다에 진리가 용솟음치게 하는 불광사상을 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스님이 영향을 받은 반야사상에 대해 “스님의 ‘마하반야바라밀’사상은 소천 스님의 영향을 받아 <금강경>의 반야사상을 창조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스님의 여러 저서에 나타난 마하반야바라밀의 사조(思潮)들을 분석해보면 스님은 <금강경>의 제5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제8 의법출생분(依法出生分)등의 영향을 받아 스님의 방식으로 채색돼 창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광덕 스님의 화엄사상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영향을받아 ‘보현행원’으로 창조됐다. 김선근 교수는 “스님께서 보현행원을 부처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불국토를 성취하는 법성신(法性身)의 윤리라고 해석한 것은 탁견”이라며 “이러한 논리로 스님은 사회와 역사에 있어서 불자들이 담당할 의무를 보현행원으로 해석했다. 스님이 보현행원을 법성신의 윤리로 해석한 것은 회통성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불광법회는 지금도 스님의 사상을 계승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바라밀국토 성취한다’를 바탕으로 생활에서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사상이 잘 아우러져 스님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을 법등운동으로 전개했다”며 “이는 한국불교에 새로운 ‘신행모델’을 제시한 것이며 광덕 스님은 현대의 ‘전법보살’이다”고 평가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소신공양과 분신자살은 다른가?

참여불교재가연대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의미 되새겨



문수 스님 범국민 추모제를 앞두고 참여불교연대는 7월 10일 만해 NGO센터에서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사회적 의미와 불교적 생명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우희종 서울대 교수,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군위 지보사에서 3년간 무문관 수행을 하던 문수 스님은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했다. 스님의 소신공양은 현 정부는 물론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이후 환경운동을 펼치던 수경 스님은 “‘한 생각’에 몸을 던져 생멸을 아우르는 모습에서, 자신의 문제가 더욱 명료해졌다”며 승적을 반납하고 홀연히 고행의 길을 떠났다.

소신공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생사윤회를 끊지 못한 이들에게는 분노에 의한 자살로 이해됐다. ‘소신공양’이라는 표현도 낯설었다. 그 의미를 알리고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24시간 기도를 이어가는 곳도 있었지만 여전히 소화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하물며 같은 종단의 일부 수행자 조차도 그 뜻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분위기에 불교계는 또 다른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과연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문수 스님 49재를 앞두고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문수 스님 소신공양을 주제로 7월 10일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뜻을 대중들과 공감하고, 뜻을 이어가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다.

#소신공양 ‘생명살림의 사회화’ 추진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이 한국불교의 사회적 자아형성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새로운 한국불교의 사회화로 연결 돼야 한다. ‘깨달음의 사회화’를 계승발전시켜 ‘생명살림의 사회화’로 추진돼야 한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사회적 의미’를 주제 발표한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은 생명살림의 사회화를 위한 불교지도자들과 불자대중들의 명확한 인식과 참여를 요구했다.

박희택 원장은 ‘새로운 사회화’의 방향으로는 “참 생명은 무생법인(無生法忍: 일체의 것이 본래 생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지혜)”이라는 불교적 생명관을 국민 대중과 나누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명평화란 무엇인가? 박희택 원장은 “무생무상(無生無相)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볼 때 4대강 사업은 권력의 욕망이 생(生)하였기에 전개된 것으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무생법인을 한참이나 벗어난 이명박 정권의 맹목적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에 대한 불교계 일각의 소극적 대응자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공덕을 현양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권세에 눈멀지 않고, 순환진리를 체득해 긴 호흡으로 미래한국불교와 나라를 향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이날 박희택 원장은 문수 스님의 삶 전반을 살펴보고, 그의 삶이 믿음 · 이해 · 수행 · 증득(信解行證)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택 원장은 “수행과 실천의 통일을 통한 열반 성취”라고 평가하고 “문수 스님은 치열한 수행으로 지혜의 안목을 얻고, 소신공양의 열반을 통해 ‘약왕(藥王)’의 자비를 인연함으로써 진정한 완성자가 됐다. ‘지비일체(智悲一體)의 당체’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신자살과 소신공양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스님은 4대강 문제와 부정부패, 서민가난,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대의가 있었다. 또 경전에 따른 소신공양의 절차를 갖추고 있다. 경전에서는 이를 “참된 정진이고 참된 법공양으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인 보시”라고 설명했다.

백찬홍 에코피스아시아 운영위원장은 논평에서 “종교를 떠나 사회적 의미로 보면 사회 또는 타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가차없이 버린 사례는 많이 있었다”며 그들의 죽음의 이유와 사회적 반향, 남은 자들이 어떤 실천을 해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문수 스님을 ‘신격화’하려는 것보다는 유지를 이어가기 위한 설천, 종교인들의 자기 혁신과 불교도들의 자기 혁신, 내부 정화, 수행정신 회복 등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김지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논평에서 “불교적 수행의 전통을 특화시키는 순간 종교적 배타주의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은 정치적 죽음들, 불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까지도 불교적 가르침의 외연에서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수 스님의 분신공양을 경전적 전거에 따른 것으로 특화한다면 스님이 사회에 요구하는 의미가 희석된다”고 주장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은 방생법회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 ‘불교의 생명사상과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에서 “소신공양은 폭력적 상황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한 불교적 저항의 모습이다. 무명으로 인해 질곡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생을 위해 발휘하는 치열한 비폭력 저항정신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우희종 교수는 소신공양을 불교의 생명존중과 비폭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방생’에 비유했다.

“상의상존에 의한 ‘나’는 너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너와 맺어온 관계 덩어리다. 연기적 모습에 근거한 생명이 존재 원리인 불가에서 폭력은 ‘관계의 단절이나 왜곡을 가져오는 행위’다. 어떤 형태의 폭력이건, 폭력을 이기는 것은 오직 관계에 깨어있는 비폭력이다.” 폭력은 ‘관계의 단절이나 왜곡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상의상존하는 연기적 관계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것이 폭력이며, 억압이다.

그는 “무명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단절된 관계 속의 나 자신을 포함해 뭇 생명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관계, 소통하며 열린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라며 문수 스님이 뭇 생명과의 소통과 관계성을 위해 선택한 길은 분명한 소신공양이라고 정의했다. 모든 관계속에서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불교계가 찬반의 입장으로 나뉘었고 일부 일반인들이 소신공양에 대해 부정적 반응, 소신공양을 한 문수 스님에 대한 종단의 태도들은 소신공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생명존중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소신공양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생명에 대한 집착을 생명 존중이라고 착각하는 일부 일반인들에게는 도피성이거나 부정적인 자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웃종교인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과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이타적 목적을 위한 자기 헌신이자, 희생이며 관계회복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자세다.”

방생이라는 것은 결국 한 개체의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내가 더불어 보다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우희종 교수는 종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번 상황에 대한 종단의 처신을 볼 때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의지가 우려된다. 문수 스님의 영결식이 종단장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은해사 교구장으로 군위의 지보사에서 봉행됐다는 것은 불교 스스로 소신공양을 개인 분신자살로 폄하한 행위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의미와 유지계승은 종단차원에서 널리 그 뜻을 알리고 스님의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승속을 떠나 불교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또 혼자서 조용히 소신공양을 올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종교인이자 수행자의 소신공양의 의미를 세속의 분신과 동일선상에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적 시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스님의 선택이 “수행자다운 면모”라고 덧붙였다.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논평에서 “출세간적 윤리의 의미를 세간에 이해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종단에서 오히려 세속윤리에 휘둘린다면, 이는 자신의 윤리적 근거를 망실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출세간적 윤리의 토대가 종단 안에서 근원적으로 정초될 때,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바라보는 세속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웅기 참여불교연대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문수 스님 분향소가 설치됐던 조계사 현장에서 느낀점을 위주로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여전히 많은 수의 국민들, 적지 않은 불자들조차 자신의 몸을 불사른 소신공양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편해 한다. 스님들조차 소신공양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정서가 깔렸다”며 “이런 현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또하나의 살생 아닌가’라는 의문에 답을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

소아암백혈병 환우를 위한 치료비가 지원이 잇따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7월 14일 조선대학교병원 김만우 병원장실에서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치료비를 전달했다.

치료비는 투병중인 이명준 어린이와 김명관 씨 등 5명에게 각 100만원의 치료비 지원과 헌혈증서 1000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현지 스님, 김은희 후원회장, 김만우 병원장 등 환우와 가족, 병원 관계들이 참여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지난 6월 회갑잔치 비용을 생명나눔에 기부한 김은희 후원회장의 후원금 1000만원 중 500만원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광주생명나눔 홍보대사 주권기는 7월 10일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에서 생명나눔실천 음악회를 열어 아름다운 기부에 나섰다.

지난 10여 년간 광주생명나눔 후원금 마련을 위해 거리 모금을 진행한 주권기는 치료비 전달식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해 소아암백혈병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금전문가 초청 강연
광주 육화포럼

광주 빛고을 청년불자들의 모임 육화포럼(회장 김영섭)은 7월 8일 자비신행회 강의실에서 모금 전문가를 초청해, 모금 관련 강의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강의에는 모금 전문가 이명회 씨는 '모금으로 날개 달기'라는 주제로 모금의 개요와 기획, 모금관리, 모금의 원칙과 방법, 모금 조직꾸리기와 후원회원 관리를 비롯한 캠페인과 이벤트, 온라인 활용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행사

최근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 피살된 사건을 비롯해 국제결혼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복지센터에서 이주 여성을 위한 친정나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운영이사 보혜)는 이주여성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향방문을 하지 못한 결혼 이주여성 가족들의 친정방문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복지센터는 7월 12일 1차 방문을 하게 된 중국출신 최미순 가족, 캄보디아 라이헹 가족, 베트남 랑기만 등 세 가족 10여 명에게 왕복항공권과 체류비를 지원했다.

이번 친정나들이는 결혼 이주여성 뿐 아니라 부인이 자라온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간 교류를 배려해 남편과 자녀들도 함께 떠나도록 기획돼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선정 가족들은 유대감이 형성된 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 위주로 선정했다.

이번 방문에서 여성들은 1개월 이상 고향에 체류하고, 남편들은 1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결혼 이주여성 세가족을 선발해 친정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권과 체류비를 지원했다. 보혜 스님(가운데)은 7월 12일 복지관에서 이주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직접전달했다.

왕복 항공권 전달식에서 보혜 스님은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뜻 깊고 즐겁게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라이헹(여, 23)씨는 비행기 티켓과 체류비를 전달받으며 "너무 행복하다. 벌써 고향에 가 부모님을 만난 것 같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준 보혜 스님과 단체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주성 센터장은 "이번에 친정방문을 하는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3~4년차 주부이다. 어려운 한국문화에 적응하며, 아이들을 키워내는 이들을 보면, 도리어 60년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여건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향수병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행사는 본지 후원으로 지난 3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불교방송 정목 스님을 초청해 진행된 다문화아카데미의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이루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의 향기 있는 연꽃문화제



2010전주연꽃문화제가 7월 10~11일 전주덕진공원에서 개최됐다. 연꽃문화제 문화행사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이 펼쳐졌다.

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2010 전주연꽃 문화제'가 7월 10~11일 금산사 전주 덕진 공원에서 개최됐다.

연꽃이 만발한 덕진 공원은 아름다운 천연 무대가 돼 빛을 발했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송광사 도영 스님, 금산사 원행 스님, 김완주 전북지사, 불자, 시민 등 5천여 사부대중은 축제한마당에서 시원한 웃음꽃을 피웠다.

그 외에도 연꽃문화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천년 전주의 향기 속으로'를 주제로 청소년 어울 한 마당, 가요제 예선 및 본선마당, 콘서트 무대공연마당, 문화체험마당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원화는 지역 발전 역행하는 것
익산사암, 매장문화재 보관·관리 일원화 반대

익산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익산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우성, 백운사 주지)는 7월 12일 문화재청등 관계기관에 문화재청이 입법예고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매장문화재는 성격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전시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역에 보관·관리가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문화재 중앙집중화를 통해 가져 올 지역의 정체성 상실과 문화적, 정신적 박탈감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문화유산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하고, 각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빼앗을 수 있다"며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암 연합회는 "지난해 발견된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국립박물관에 보관하려고 염두에 둔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익산 사암연합회 우성 스님은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는 지역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인 만큼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인

차문화로 고품격

광주지역 불교행사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다인(茶人)들을 만난다. 최근 이들의 두드러진 활동으로 불자들은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환자와 가족들이 전통차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여러 광주불교 다인회(茶人會)의 활동이 활발하지만, 특히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 다인들의 모임인 '차예가' 활동이 눈에 띈다. (茶禮家 원장·이혜자) 차예가는 한국茶문화협회 호남지부장인 이혜자 선생의 제자들이 차문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광주지역 차문화예절사범들의 모임이다.


자비신행회 다인 '차예가' 이혜자

"차문화의 종가인 광주 호남에서 차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아 늘 안타까웠어요. 차는 소수의 문화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문화에요. 차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대중화해 전 국민에게 '다반사(茶飯事)'가 되도록 정진하고 있습니다."

원장 이혜자 선생은 누차 강조했다.

차예가는 사범과 준사범 2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한꽃차 문화아카데미를 통해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차문화 보급을 위한 '찾아가는 차예가 찻자리', 차인 양성을 위한 차문화 전문기획강좌, 차문화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학교병원 현관에서 매주 진행하는 '찾아가는 차예가 찻자리' 봉사에는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병원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불교행사가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차를 체험할 수 있는 찻자리를 펼쳐 불교행사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9년째 맞은 한꽃차문화

공 고

현재에 한국불교조계종 종단을 혼탁스럽게 하는 종도들이 있기에 본 종단 상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현재 (부산시 서구 남부 민동 225번지 한 영수(자화)스님이 (사)한국불교단체 총 연합회에 종단을 가입하여 마치 본인이 한국불교 정통이라고 하며 종단 명칭을 가칭으로 등록하고 문화관광부 제141호이라고 하여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 141호는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등록번호인데 어떻게 해서 정통을 주장하며 또한 자화스님은 천수사 (월정스님)종정으로 총무원장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화스님은 한국불교조계종 명칭과 가칭으로 종단협의회 가입한 날자는 2009년 8월 15일로 등록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와 그 당시 일용스님의 총무원장 임기와 총무원장 일옹스님이 사직서를 낸 당시는 2010년 2월 1일 날자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또한 자화스님은 그 당시 원로위원으로써 종단에 있으면서 활동하였고 본인은 총무원에 2010년 3월 15일에 원로위원 사표 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단협의회에 등록하여 명칭을 가칭 사용하여 현대불교신문에 마치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이라고 광고하여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전례도 없는 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번호 등록은 2010년 4월 15일이면 공간이 맞지 아니하며 자화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현판을 걸고 한국불교조계종 승려로써 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조치중이며 형사처벌과 동시에 상벌위원회를 조성하여 엄한 처벌을 할 것이며, 이외 가담한 스님은 필히 엄히 법적 및 상벌위원회에서 처벌을 할것이며, 각 종도스님께서는 이에 가담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4년 7월 15일

한국불교조계종 원로위원회, 종회위원회, 상벌위원회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리 300번지 / 총무원 054)572-1034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으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자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 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 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불국토를 찾아서

다인 모임 차예가 원장 이혜자

로 고품격 문화 선도한다

가 있는 곳 다인(茶人) 이들의 두드 들은 물론이 와 가족들이 들고 있다. 인회(茶人 지만, 특히 이화영) 다 가' 활동이 원장 · 이혜 茶문화협회 선생의 제 리 보급하기 광주지역



비신행회 다인들의 모임인 차예가' 이혜자 원장.

게 '다반사 정진하고 있 은 누차 강 준사범 23명 있다. 이들 데미를 통해 고, 차문화 는 차예가 위한 차문 문화 예절 있다. 원 현관에 찾아가는 차 는 병원을 계자들로부 다. 또 불교 는 다양한 찻자리를 단계 도약 고 있다. 한꽃차문화

아카데미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차문화의 대중화 사업이다. "차를 통한 봉사활동과 전통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를 고품격 인격사회로 만드는 것"이 대중화의 이유라는 이혜자 선생과 사범들은 차문화의 대중화에 사명감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대중화를 위한 첫 사업으로 8월 31일부터 '행복한 임산부 태교 茶 문화교실'을 시작한다. 문화교실은 산부인과 의사, 차인, 명상음악가, 스님 등이 강사로 구성됐다. 웰빙 음료를 대표하는 차로 임산부와 아기들의 마음의 안정과 몸의 건강을 체험하는 강좌를 준비했다.

차예가는 앞으로 탄탄한 기반 닦기에 나선다. 향후 차문화 전수관을 겸한 센터 건립으로 상설교육관을 세우는 일이 그 중 하나다. 교육관에는 차의 역사를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수관을 비롯해, 차문화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될 예정이다.

광주는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여기에 담아야할 많은 문화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차문화는 단연 으뜸 문화콘텐츠다.

빛고을 광주를 차문화 나눔의 명가로 만들려는 차예가의 활동이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작은 시작이다. '차문화를 새롭게 꽃피우고 차문화 예정교육을 통해 인격을 바르게 표현하고, 사람사이의 아름다움의 빛이 발하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고품격 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는 단체의 설립목적이 광주에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음보살님의 메시지

로 치유한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
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
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

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
어다.
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
만들어야 할 지어다.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김건희

78 (오전 9시~오후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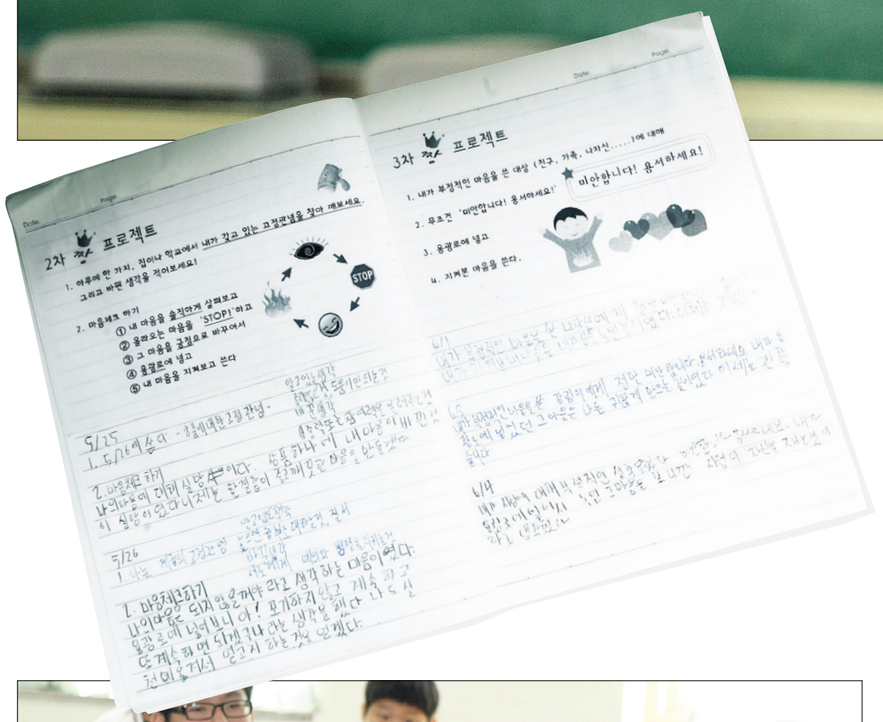
제 793 호 현대불교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모든 것의 바탕은 사람 "내면의 용광로 활용하세요"

한마음과학원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젝트' 세류중 '짱 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이은희 지도교사(한마음과학원 연구원)가 마음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배우는 주제를 토대로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이것을 '짱노트(위)'에 기록한다.

아이들도 각자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다. 학업, 우정, 집안, 외모문제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까지 표현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고민하는 것은 어른들과 똑같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보다 주체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있다.

세류중학교 1학년 2 · 4반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통제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 있었다. 바로 '짱 프로젝트' 덕분이다.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돼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미 그 사람이 돼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서 마음속 용광로에 던집니다. 난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월 13일 화요일 오전, 수원 세류중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이 모여 이은희 지도교사(한마음과학원 연구원)의 설명에 따라 명상을 한다. 방학을 앞두고 들떠있던 모습들도 잠시, 모두들 진지하게 임한다.

'짱 프로젝트'는 한마음과학원(원장 대행)과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권), 수원 세류중학교(교장 오세응)가 2010년 1년간 협약을 맺고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한마음과학원이 기존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 선보인 첫 프로그램이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1학년 2 · 4반 학생들은 5월부터 매주 화요일 8주 동안 마음 다스리기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들었다.

프로그램은 △내 마음을 관찰하기 △올라오는 마음을 멈추게 하기(Stop) △올라온 마음을 긍정으로 바꾸어 용광로에 넣고 녹이기 △그 뒤의 내 마음을 지켜보기로 짜여 있다. 여기에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 퀴즈활동, 노래, 동영상자료, 사진자료, 신문기사, 뉴스보도자료 등을 활용했다.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사건, 현상, 과학적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의 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짱 노트 쓰기'다. 매주 수업을 통해 경험한 마음의 힘을 아이들이 노트에 기록해 생활 속에서 스스로 활용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수업은 8주차 마지막 수업으로 학생들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점검하고 용광로에 집어넣기를 통해 얻은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솔직히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엔 내가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짱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것은 나의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내가 하는 말이 웃기다며 내가 없었으면 재미가 없을 것이라 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험공부가 하기 싫어졌을 때 나의 시험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용광로에 넣어보니 시험공부의 필요성을 알게 돼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공부, 스트레스, 엄마의 잔소리)을 용광로에 넣으니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렇듯 학생 스스로도 마음 다스리기의 중요성을 실생활에서 체험하며 알아가고 있었다.

이은희 연구원은 "한나무 인성교육은 일방적으로 도덕적 규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느껴서 그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나무 인성교육은 불교를 근간으로 하지만 '마음'이라는 주제가 보편성을 갖고 있기에 누구에게나 거부감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쉬운 방편의 가르침이다"고 설명했다.

8주간의 짧은 교육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어보였다. 특히 왕따문제 등이 그러했다.

세류중학교 1학년 4반 변지연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 산만했던 교실분위기가 좋아지고 집중력이 늘었다. 학생들끼리 왕따를 시키거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횟수가 줄고 서로 왕따 친구를 감싸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학기 때도 학생들을 짱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최용진군은 "늘 우울하고 난 안될 것 같았고 자신도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 이러한 마음을 용광로에 집어넣었더니 찝찝하고 울고 싶던 마음이 싹 사라져 기분이 너무 좋았다. 지금은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용광로를 자주 쓰고 싶다"고 말했다.

8주 교육 후 산만하던 교실분위기 변화

규범 강요 아닌 자발적 필요성 느끼도록 해

한나무 인성교육은 이와 같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하에 관념과 지식으로서의 인성의 습득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며 체득하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교육정책을 바꾸기보다 일관적으로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정신을 회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전에는 된 사람이 되기를 가르쳤는데 요새는 난 사람이 되기만을 바란다.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람이다. 아무리 난 사람이 되더라도 인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학부모, 교사, 학교가 아이들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031)471-6926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적 포교, 불교교육법 전형 제시한 선지식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부처 키우는 일이다." 천운 스님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는데, 그런 아이들이 150명을 넘는다. 후학들과 아이들은 천운 스님을 엄격하면서도 유머가 넘치는 분이라고 회고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당(天雲堂) 상원(尙遠) 대종사(大宗師)는 호남불교를 일으킨 개척자이며 현대 도심 포교, 불교 교육, 복지의 물꼬를 트고 방향을 정립한 선각자였다.

1932년 1월 1일 전북 고창의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천운 스님은 해방이 됐을 때 소학교(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완고한 할아버지는 신학문을 부정하고 한학을 고집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부러웠던 스님은 서울로 도망쳐 학교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새벽에 집을 떠났다가 마침 길에서 비구니 스님을 만나 정읍 내장사로 가게 됐다. 그 때가 16세였다.

내장사에서의 첫 새벽 스님은 도량석으로 울려 퍼지던 <화엄경> '약찬게'의 청아하면서도 절절한 염불소리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그날 스님은 박한영 스님을 만났다. 당시 팔순의 노스님은 소년의 사연을 듣고 절에서 글을 배우면 중학교에 보내주겠다고 했다. 천운 스님은 그 때부터 한영 스님의 시자로 절집 생활을 시작했다. 노스님의 공양상을 챙기고, 측간으로 모시며 목욕을 시켜 드리는 일 등 고된 시봉을 하면서 아침저녁 예불과 <초발심자경문>을 배웠다. 한영 스님은 그를 친손자처럼 아끼고 귀여워했다. 스님은 한영 스님 이불 밑에서 '할아버지'라고 안기며 잠을 잤다. 천운 스님은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한영 스님의 수행과 불교관과 품성, 미래를 읽는 혜안을 배워 후일 천운 스님으로 하여금 호남 불교 중흥의 주역을 담당케 했다.

내장사 생활 1년 만에 한영 스님이 입적하자 천운 스님은 평창 월정사로 옮겨 은사인 지암 이종욱 스님(1884~1969)을 만난다. 스님은 이종욱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계를 받았다. 이종욱 스님을 12년 동안 모시면서 천운 스님은 무소유의 삶과 포교의 가르침를 배웠다.

스승은 젊은 천운 스님에게 "포교하는 사람은 감투 쓰면 안된다. 무소유로 살아라. 여자관계 철두철미해라"는 세 가지를 간곡히 부탁했다. 은사스님 역시 엄하지만 자비로운 분이었다. 천운 스님은 생전에 은사스님에 대해 "여든이 넘어서 마흔이 넘은 제자를 비행기 태우며 놀 정도로 허물이 없고 자비로운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전단지 배포 등 현대 포교의 귀감

천운 스님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군에 입대해 통신병으로 활약하는 한편 군승이 없는 군에서 불교모임을 이끌며 군내 포교를 담당하기도 했다. 군에서 제대하고 은사스님이 입적한 뒤 천운 스님은 조계산 토굴, 도갑사 · 대흥사 · 선운사 선원 등에서 10여 년간 참선을 했다. 특히 스님은 고창 선운사 도솔암에 처음 선방을 열어 3~4년 묵언정진을 해냈다. 당시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목에 '묵언패'를 걸고 정진해 이후 묵언정진하는 수좌들의 길잡이가 됐다. 당신 공부를 하는 한편 구례 화엄사 주지를 맡아 가람을 일신하고 정진 대중을 외호하는 등 이후 포교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토굴과 선원 등지에서 가행 정진하던 스님은 스스로 깨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널리 펴고 제대로 된 제자를 키워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원력을 갖고 광주 상무대 근처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향림사를 열었다. 이 때가 1971년이었다. 스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고 가는 길'이라는 포교지를 만들어 나누어주며 불법을 알렸다. 천막포교당을 세우고 불교 전단지를 배포하는 포교 방법이 서울과 수도권에 등장한 것은 이보다 10여 년 뒤였으니 스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짐작케 한다.

#시은 갚기 위한 세가지 보살행 진력

천운 스님은 포교를 시작하면서 신도들의 시주를 갚는 길을 고민하며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학교를 가지 못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 길을 터주는 것이었다. 둘째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되는 것이었다. 셋째는 아픈 사람을 위한 문병이었다. 스님은 이 세가지 원칙을 그대로 실천했다. 스님의 교육열이 강해 향림사에서 학기 초 등록금만 1억원이 넘게 지불했다. 장애인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다 아예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었으며 아픈 사람을 마음 놓고 치료하기 위해 한때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돈은 모두 스님이 전국의 대중들과 만나 법문하고 절 살림을 아껴 모은 소중한 정재였다. 스님은 향림사에서 찬불가를 보급하고 어린이 · 중고생 법회를 열었다. 또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 모든 것이 현대 한국불교 포교사에서 신기원으로 기록되는 대 사건들이었다.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무소유 실천해야 비로소 사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16일 해남 대흥사에 마련된 천운 스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불교의 미래 위해 신도교육 강조

스님이 포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신도교육이었다. 새 신도에게 기초 교리강좌는 물론이고 광주불교대학과 광주불교대학원을 설립, 신도를 교육하는 한편 포교사 육성에 힘을 기울여 전국포교사단 광주전남지단의 활성화와 함께 향림사를 호남지역 포교전진기지로 만들었다. 또 전남지방경찰청 경승실장과 광주교도소 교화위원회 불교회장 소임을 맡아 경찰 및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쳐 사회의 어두운 곳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비추는 역할도 수행해 왔다.

복지포교분야에 역점을 둔 스님은 1983년 향림유치원, 1994년 향림사어린이집, 1996년 해남 한들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는 등 복지를 겸한 어린이 포교와 함께 1992년에는 광주시로부터 우산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모범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에서 불교위상을 높여왔다. 이외에도 인근 군부대들을 중심으로 군포교에도 관심을 가져 많은 군불자를 배출했으며 종립 정광중 · 고등학교 이사장직을 맡아 교육사업에도 헌신했다. 스님은 향림사에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생활 속 불교를 실현하기도 했다. 이후 광주불교대학, 대학원, 향림출판사 등을 세워 향림사를 호남 포교의 중심처로 세웠다.

스님의 원력은 1994년 불교광주방송 설립으로 이어졌다. 1996년에는 광주지역 2000여 학생이 참가한 대규모수계법회가 열려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님의 이 같은 공을 종단에서도 인정해 스님은 두 차례 포교대상을 수상 했다. 또 2001년 조계종 사회복지대상 특별상, 2002년엔 제1회 전국 교정인의 날 국민포장을 품수했다.

#정성 다해 아이들 보살핀 천진불

천운 스님은 향림사에서 아이들 교육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스님은 이곳에서 수행과 포교를 하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다. 스님은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부처 키우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며 무럭무럭 자라도록 보살폈다. 스님에게 아이들은 부처며 화두였다. 스님은 힘닿는 대로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는 등 뒷바라지에 정성을 쏟았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줄 뿐 특별히 강요하는 것도 없었다. 유난히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있으면 행동이 달라질 때까지 스님 방에서 재우며 키웠다. 40년 동안 이렇게 스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150여 명에 이른다.

스님은 엄격하면서도 매우 유머가 넘치는 분이었다. 수행자로서 혹은 종단의 큰 스님으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젊은이를 만나면 젊은이의 말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천진하게 굴었다. 이 때문에 엄격하다는 소문에 잔뜩 겁을 먹은 재가자들이 스님의 우스갯소리에 어리둥절해 하거나 금세 마음이 풀어져 편안하게 대했다고 스님을 만난 이들은 한결 같이 입을 모은다.

스님은 또 평생 무소유의 정신을 따랐다. 스님은 생전에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간단한 일인데 너무 욕심이 많아 제대로 못 보는 것"이라며 수행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들에게 욕심 없는 삶을 강조했다.

#"수행자 본분 지키라" 강조

천운 스님의 법문은 쉬우면서 직설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님은 늘 불교의 연기 사상에 입각하면서 누구나 생활과 삶 속에서 지켜야할 윤리와 원칙을 갖고 불교를 설명하고 가르침을 내렸다. 늘 화내지 말고 남의 말 잘 듣고 험담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라며 남 탓 하지 말고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했다. 천운 스님은 철저한 수행자였으며 부처님의 올곧은 제자였다. 출가한 이래 조석예불 드리는 것을 거른 적이 없었으며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6시까지 참선하고 예불 모시고 좌선, 염불, 다라니까지 빠뜨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6시 15분 아침 공양을 마치고 1시간 동안 포행을 하고 나면 줄지어 기다리는 신도들을 만나 친절히 상담했다. 점심공양 후에는 광주불교대학, 사무실, 복지관, 정광학원, 향림원 등을 돌아보는 생활을 입적 전 까지 어긴 적이 없었다.

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유훈에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이게 곧 불교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는 부처님의 '칠불통게(七佛通偈)'를 강조했다. 수행자의 본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던 평생의 가르침을 가시는 길에도 불자들에게 새삼 강조했다.

정리=조동섭 기자

#다시 듣는 천운 스님의 법문

올해도 어김없이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습니다.

금년이 불기(佛紀) 2550년이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80년을 사셨으니 부처님 오신지 어언 2630년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도에서 태어나신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은 여러 나라와 중국을 거쳐 오게 되었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을 거쳐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전래되었습니다.

본래 인도 왕족이었던 허 황후가 서기 48년 불상을 모시고 뱃길로 가야에 온 것은 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승려였던 마라난타 존자가 384년 법성포로 들어와 포교를 시작했고, 이로써 화려했던 백제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 영실에 존자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 제자였던 발타라 존자가 한라산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부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1600년 전 중국을 거쳐 고구려(372년 소수림왕 2년)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2600년 전 부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불교는 부처님 열반이후 부처님 제자가 그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는 진인(眞人)불교였습니다.

고구려 이전, 이 땅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한문으로 쓰여진 경전에 의존하기보다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인 진인불교였을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맞이하는 초파일에 진인불교를 생각해봅니다. 문자에 갇혀있는 불교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불교를 말합니다.

36년 전, 광주에 향림사를 창건할 당시 주위에서 모두들 말렸습니다. 나무 하나 없이 민가와 함께 있는 절에 누가 오겠냐고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산속에 계시지 않았고,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가르침을 펴셨고 길에서 가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속세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바꾸었고, 뜻 모르는 경전을 읽기보다 찬불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참선만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돌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향림사에는 오래전부터 오갈 데 없는 노인과 장애인, 고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절과 복지시설에서 먹고 자는 대중이 150여 명에 이릅니다. 신도들의 보시와 봉사로 이제껏 한번도 굶지 않았고, 누구에게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에서 조선시대는 참으로 곤혹스런 시대였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선지식들의 간절한 수행과 포교로 불교의 맥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힘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흔히들 치마불교라고 하지만 어머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불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선을 한다고 앉지도 못했고, 글을 모르기에 경전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들의 입에서는 한시도 염불과 주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하며 숟가락하나 더 놓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인불교입니다.

참선, 염불, 주력, 포교, 가람수호는 오늘의 불자들이 행해야할 5대수행입니다. 불자라면 이 가운데 하나라도 선택해 간절히 해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口業)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입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천수경> 십악참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하는데 망어(妄語), 기어(綺語), 양설(兩舌), 악구(惡口) 등 4가지가 바로 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업을 막는 방법으로 염불과 주력이 최고입니다.

공부를 했고 안했고는 화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보려면 얼마나 화를 내지 않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내고 보면 모든 허물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원망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입으로 진실된 말을 하고, 자비실천을 수행하면 성내는 마음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은 초파일과 어린이날이 겹쳤습니다. 어린이는 마음에 때가 없이 순수합니다.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싸우거나, 못살겠다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맑은 마음의 거울에 비쳐져서 언젠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파일을 맞아 진인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부처님의 가르침(七佛通偈)을 소개합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의 시제불교(自淨其意 是諸佛敎 :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이것이 곧 불교다)

-천운 스님의 불기2550년(2006년) 광주 향림사 봉축법문 中에서

그대 곁에 두어라. 어쩌면 그대 옛 추억 누이를 닮은
슬프도록 아름다운 우리 야생화!
산야초 분재도감

• 한국야생화연구회 편/
• 올컬러/ 국배판/ 전2권/ 총420쪽/
• 보급가 10만원(정가 148,000원)
"소박 청초한, 때로는
놀라우리만치 강렬하고 요염한,
자연 미학의 또 다른 정점에 선
이 땅의 각종 야생화에 대한
생태와 특징, 분포,
번식법 및 화분 재배법까지
생생한 원색사진을 곁들여 안내하고 있으며
기호에 따라
개화(開花)순으로 식재함으로서
다채로운 순환 관상이 가능토록 한
국내 초유의
야생화분재 종합지침서!"
식물병해충도감 | 진단과 방제 |
- 수목 · 과수 · 화훼 · 채소 · 기타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편/
올컬러/ 4*6배판/ 전2권/ 총880여쪽/
보급가 12만원(정가 16만원)
작물병해충방제도감
- 과수 · 채소 · 기타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편/
올컬러/ 4*6배판/ 530여쪽/
보급가 68,000원(정가 85,000원)
각종 식물 및 원예작물 전반의
주요 병 · 해충별 증상과 생태,
제반 방제법 및 검증된 적용약제 등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
각종 재배 및 식물보호 현장의
생산성 극대화를 실현케 한
독보적 교본!!
아래로 연락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T.02-2618-0700, 070-8811-5775 F.032-348-1240 학술편수관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庚寅 仲夏 편집인 日江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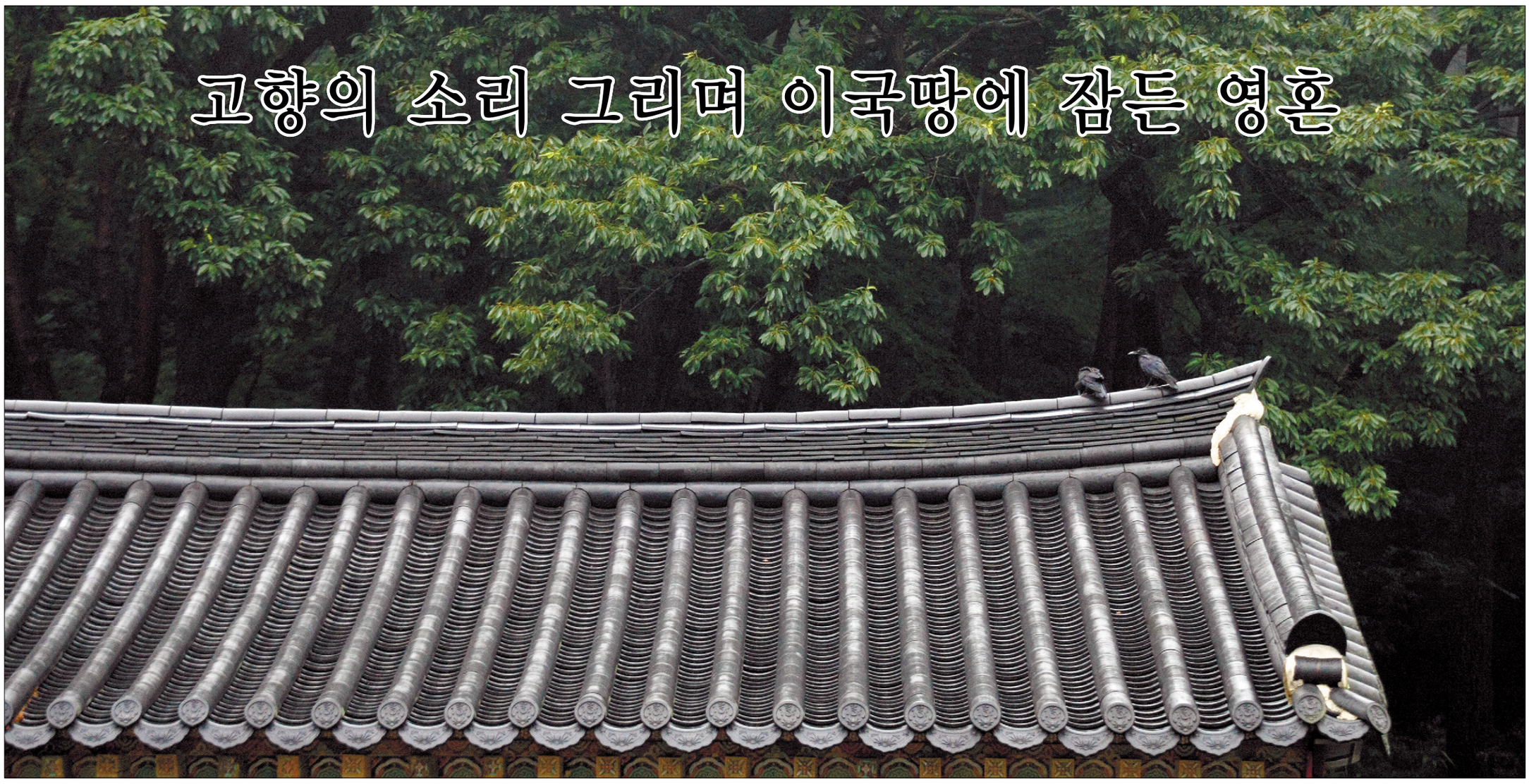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2,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그밖에 도서목록 -
▪ 영혼과 운명의 비밀(365쪽)
▪ 불교종합의식 집(393쪽)
▪ 한국 한양굿 전통의식 집(225쪽) 등이 있다.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종



고향의 소리 그리며 이국땅에 잠든 영혼

작곡가 윤이상의 향수
⓮ 통영 용화사(龍華寺)

1972년 8월 1일, 독일의 뮌헨 국립오페라극장에서는 뮌헨올림픽을 축하하는 오페라 한 편이 무대에 올려졌다. 제목은 '심청'이었고, 작곡가는 윤이상(1917~1995)이었다. 올림픽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독일이 준비한 오페라는 바그너도, 베르디도, 푸치니도 아닌 한국인 윤이상이었다.

윤이상은 경남 통영에서 나고 자랐다. 늘 푸른 바다가 눈앞에 있었고, 도솔암, 용화사 등 천년고찰을 품은 미륵산이 또한 곁에 있었다. 바다에서는 파도소리와 어부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미륵산에서는 북소리, 예불소리, 범패소리가 들려왔다. 삶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좋아했던 꿈 많은 소년 윤이상은 마흔이 되어 유럽으로 떠난다. 그리고 그는 독일에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된다. 고국에 돌아와 자신의 음악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그는 그 꿈을 영영 이루지 못한다.

"고향 바다요?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고향 바다는 어릴 적 내 꿈을 키워준 곳이에요. 지금 나는 세계적인 작곡가로 그 꿈을 이루었지만 이 머나먼 땅에서 이렇게 늙어가도록 고향에 갈 수 없다니…. 내 마지막 남은 꿈은 고향 바닷가에서 파도소리 들으며 잠드는 거예요." [인용문 출처 · 작곡가 윤이상 이야기 나비의 꿈]

2007년 9월 29일, 미륵산 용화사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윤이상 씨의 부인 이수자 여사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40여년 만에 밟아 보는 고국 땅, 남편의 고향이었다. 통영이 낳은, 아니 한국이 낳은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은 고국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의 무덤은 독일 베를린에 있다.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그는 독일정부의 협조로 풀려났지만 죽는 날까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용화사는 통영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그가 자주 찾았던 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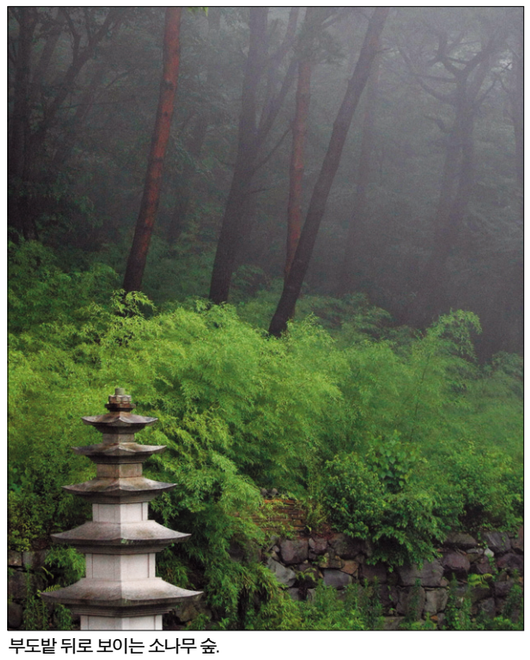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량을 둘러싼 소나무 숲은 안개에 반쯤 지워졌고, 보광전 지붕 위엔 산새가 날아와 앉아 있었다. 용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은점 스님이 미륵산 중턱에 절을 짓고 정수사(淨水寺)라 했고, 고려 원종 3년(1263)에 자윤, 성화 두 화상이 미륵산 제3봉 아래로 자리를 옮겨 천택사(天澤寺)라 했다. 인조 6년(1628)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영조 28년(1752)에 벽담 스님이 다시 짓고 용화사라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하지만 그의 음악은 한국에서 쉽게 들을 수 없다.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다. '심청', '연꽃 속의 진주', '바라', '나모(南無)' 등 그의 작품들을 쉽게 구할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올 봄 개관한 통영의 그의 기념관에서 처음 '바라'를 들었고 '나모'를 들을 수 있었다. 98년도 한국뮤지컬대상 음악상을 받은 오페레타 '심청'을 작곡한 최귀섭(원광보건대 실용음악과 학과장) 교수도 '윤이상의 심청'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의 고향 통영에 들어서면 그의 얼굴 사진이 붙은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곳곳에서 그의 이름과 얼굴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쉽게 들을 수 없다.

범어 대장경을 바탕으로 한 합창곡 '옴마니 반메훔(연꽃 속의 진주)'이나 서양에 전한 우리의 이야기 '심청' 등 그의 많은 음악들을 끝내 듣지 못했다. 그의 고향인 한국에는 그의 무덤만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음악이 우리 곁에 많이 없었다.

불어온 바람에 숲이 웅성거렸다. 지붕 위에선 산새가 지저귀고 추녀 끝에선 풍경이 울었다. 숲에 고인 안개는 음계와 음계 사이의 침묵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를 채웠고, 악보에 그려 넣을 수 없는 산새소리와 풍경소리는 어제 처음 들은 '바라'를 떠오르게 했다. 늘 듣는 풍경소리와 산새소리가 용화사 도량에서는 윤이상의 현대음악처럼 들려왔다. 용화사에 간다면 윤이상의 음악을 듣고 갈 일이다.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들려오기 때문이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도밭 뒤로 보이는 소나무 숲.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78대 대원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국제 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인 대원 선사님이 하택 신회대사의 현종기를 수련회 기간 동안 법문하십니다. 현종기는 육조대사의 법의 골수를 담은 글로서 그 법을 직접 이어받은 78대 대원 선사님의 육성으로 이 법문을 듣는다면 깨달아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낙을 누릴 정법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양 나래를 편 대선지식의 회상에서 정법의 진수를 누리십시오.

국제 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2일(목) 오후 2시 – 8월 15일(일) 오후 2시
회 비 : 1인 8만원 / 가족할인 1인당 6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복장 (발우 대여, 현종기 무료제공)
전 화 : 031-531-8805 / 010-8980-9442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0번지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귀사와 귀하의
홍보를 대행해 드립니다

"저비용 · 고효율" 홍보대행 서비스, 주요 온라인 매체에 빠르게 전송

Daum NAVER NATE YAHOO! KOREA Paran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홍보 효과를 위한 취재 및 보도자료 서비스입니다.
대성사의 홍보대행 서비스는 10년 노하우의 전문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주요 온라인 매체에 빠르게 전송 합니다.

서 비 스 내 용

- 보도자료 원문 서비스: 보도자료 원문이 국내 주요 포털에서 검색 가능
- 보도자료 작성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주요 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
- 기사화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기획 취재후 해당기사를 언론사와 포털에 제공하는 서비스
- 행사 사진촬영 서비스: 대성사 기자가 현장을 방문, 기획 취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여 CD로 제작 서비스

보도자료 및 취재기사는 국내 주요 포털 (다음·네이버·네이트·야후·파란) 에서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기사제보·구독·광고문의
E-mail : ksson108@hanmail.net
본사 대성사 ☎ 010-9522-8453 (옥천 대성사 혜철 스님)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충북지사 ☎ 043-732-5560
대전지사 ☎ 042-223-8214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3〉

움직이는 것이 정이다
〈定〉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정(定)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부정(不定)이야."
학승이 물었다.
"어찌해서 부정(不定)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살아있는 물건이야, 살아있는 물건."

問 如何是定
師云 不定
學云 爲什麽不定
師云 活物活物

정은 삼매를 말한다. 원래 정(定)자는 '고정된다' '정해졌다'라는 의미이다. 정신이 하나에 고정돼 있어서 다른 것이 침범할 틈이 없는 것이 '정'이다.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선지식은 한결같이 선정을 닦을 것을 강조했다. 선정삼매는 전생의 습기를 녹이고 깨달음을 얻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정하지 않는 것이 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주 스님은 정에 대한 입장을 본질적 측면을 들어서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분히 선적이다. 즉, 자성은 본래 형체가 없어서 항상 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삼매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따로 정에 들어가는 수행은 필요 없고 오로지 살아있는 물건답게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정이라는 것이다.

정을 닦는 것은 좋으나, 행여 일평생 움직이지 않고 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최상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람은 움직이고 일함으로써 스스로 존재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정에 들어가 죽은 자처럼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기만 한다면 도대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그런 멸진정(滅盡定)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조주 스님은 육조 스님의 뜻과도 부합한다. 육조 스님은 〈육조단경〉에서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양을 내세워 이것을 공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자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는 것이니라"라고 말해 정에 빠져 있는 자들을 경계했던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것에 따라다니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합당한 거야."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 학인의 본분사였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 봐. 벌써 따라붙었잖아, 따라붙었어."

問 不隨諸有時如何
師云 合與麽
學云 莫便是學人本分事
師云 隨也隨也

학인의 본분사는 언제나 항상 수행하는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습기는 다겁을 윤회하면서 쌓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10~20년 수행으로 깨끗한 불성과 같은 행동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진정한 수행은 한번 깨닫고 평생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이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체에 유혹되지 않는 것이다. 세간의 모든 개념은 하나의 헛된 주장이고, 생각이고, 약속이다. 그런 것이 절대 진실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런 허망한 개념 어떤 것에도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마음이 동요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할 뿐, 마음은 고요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과 삶은 본래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동요될 필요는 없다

해야 할 도리 다할 뿐 삶 · 죽음은 본래 없는 것

이렇게 일체에 유혹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조주 스님을 방문했던 학인도 그러한 수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주 스님께 점검 부탁 차 질문했다.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도 '일체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긍정해 줬다. 그러자, 학인이 "네, 그렇군요. 그것이 학인의 본분사임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조주 스님은 직하에서 예리하게 지적해줬다. "그것 봐, 자네는 지금 '그것이 학인의 본분사'라고 단정하고 있잖아,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따라간 것이 아니고 뭐겠어. 매사 조심해야 돼"라는 점검을 내려준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옛 사람은 30년간 하나의 활과 두 개의 화살로써 단지 반 개(半箇)의 성인(聖人) 밖에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온전히 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 스님은 불쑥 일어나 나가버렸다.

問 古人三十年一張弓兩下箭 只射得半箇聖人
今日請師全射
師便起去

〈벽암록〉 81칙 평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삼평 스님이 처음에 석공 화상에게 갔다. 삼평이 거의 다 다가오는 것을 본 석공은 곧 활을 쏘아댈 자세를 취하면서 말했다.
"화살 보아라."
그러자 삼평은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살인(殺人) 화살입니까, 활인(活人) 화살입니까?"
하고 반문했다. 석공은 곧 활줄을 세 번 퉁겼고, 삼평은 곧 예배했다. 석공이 말하길 "30년 동안 활 하나와 두 개의 화살로 오늘에야 비로소 겨우 반 개의 성인을 쏠 수 있었군"하고 활과 화살을 꺾어버렸다.

이 고사에서 석공 스님은 오랜만에 삼평 스님과 같은 걸출한 선객을 만난 것을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석공 스님은 삼평 스님을 성인(聖人)이라고까지 추켜세워 말한 것만 보아도 삼평 스님을 매우 유망하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석공이 자신의 선적 가르침을 다만 반 개의 성인을 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삼평의 자질은 원래부터 부처이고 부처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다 적중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석공은 다만 활줄 3번의 퉁김을 통해 삼평의 잠자고 있던 일부분을 깨웠을 뿐이다. 그래서 반 개를 맞혔다고 말한 것이다.

석공이 세 번 활줄을 퉁긴 것은 우선 삼평이 다른 납자와 다르게 가슴을 활짝 내밀고 그 화살이 살인 화살인가, 활인 화살인가 묻는 것부터 심상치 않는 기백이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석공은 저런 자라면 한번 화살을 날려 볼만 하겠구나 하고 내심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세 번의 활줄 퉁김은 선악, 빈부, 중생과 부처, 늘어남과 줄어듦, 생과 사 등의 양변을 떠난 제3의 화살을 날린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삼평이 '제3의 뜻'을 알아채고 즉시 예배를 했으므로 석공은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다. 30년을 기다려도 이렇게 즉시 알아듣는 인재를 만나지 못했는데, 비로소 인재를 만났으니 석공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부러뜨려버린 것이다.

이러한 선적 행위는 즉석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주 스님은 노련한 노승이므로 학인에게 이렇게 명쾌한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❺ 입도안심요방편법문

무작 · 무원 · 무상이 참된 해탈
〈無作〉 〈無願〉 〈無相〉

보리달마의 선법을 계승한 제2조 혜가를 비롯해 제3조 승찬의 시대까지는 몇몇 제자만 따랐던 유행생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제4조 도신 시대부터는 500여 대중이 본격적으로 정착생활을 시작해 명실상부 선종이라는 교단이 형성됐다. 이것이 이후 제5조 홍인의 선법과 더불어 출현한 소위 동산법문(東山法門)이다. 정착생활에 따른 갖가지 대중생활에 대한 직무와 규범이 등장했으며, 사찰의 자급자족 생활에 근거한 작무의 의무화가 도입됐다.

제4조 도신에 대한 자료로는 〈속고승전〉 권26 및 돈황 출토의 〈능가사자기〉가 도움이 된다. 도신에게 〈보살계법〉 1권과 〈입도안심요방편법문〉 2권 등의 저술이 있었다고 한다.

〈능가사자기〉(716)는 돈황본 자료 페리오 3294 · 3537 · 3437 · 3703 · 4272 등에 해당하는데 태행산 정각(淨覺)의 찬술이다.

4권 〈능가경〉을 전수한 계통의 전등사서로서 그 번역자인 구나발타라를 중국 선종의 초조로 내세운다. 이로써 초기 중국선종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 가운데 제4조 도신장에 수록돼 있는 〈입도안심요방편법문〉을 통해 도신의 선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 도신의 선법은 좌선을 통한 일행삼매의 실천이었다. 도신의 법요는 〈능가경〉의 제불심(諸佛心)을 제일로 간주하는 것에 의거하며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의거한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행삼매는 일상삼매(一相三昧)이기도 한데 좌선과 염불이 실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4조 도신 대사

〈입도안심요방편법문〉 처음 부분의 '나의 법요는 〈능가경〉의 제불심제일(諸佛心第一)에 의한다'는 기록은 도신의 선법이 〈능가경〉 권1의 게송에서 말한 '대승의 모든 바라밀실천은 제불심을 첫째로 간주한다'는 것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의한다'는 것은 제불이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기초해 일행삼매에 들어간 사람은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이 무수한 부처와 유일한 이법의 세계가 일여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신은 제불의 마음을 근본으로 해 일행삼매의 경지에 있는 수행자를 예시해 '대저 신심방촌(身心方寸) 거족하족(擧足下足)이 항상 도량에 머문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의 평소생활을 되돌아보고 말한 것이다. 도신은 일거수일투족 도를 실천하는 경지에 이르는 수행을 보여주는 데에서 〈보현관경〉을 인용하고, 단좌해 실상을 염하고 부처를 염하여 그것을 지속시켜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그것이 곧 부처를 염하는 것이고 마음을 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종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관심수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다만 자연에 맡겨라"라고 말한다. 또한 "서방을 향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만약 자심이 불생불멸하여 청정함을 알아차리면 곧 그곳이 불국토인데 굳이 서방을 향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중생은 그대로 공이다. 따라서 중생이 멸하여 공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공임을 깨치는 것이다. 대승 수행자는 공을 배우는 것을 깨침으로 삼지만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단지 공을 아는 것만으로는 진실한 공을 깨치지 못한다. 수행해 진실한 공을 파악한 사람은 공과 공하지 않는 것과의 구별을 하지 않고 분별적인 관념을 가지지도 않는다"고 간절하게 중생이 그대로 공임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초학자들에 대한 좌선의 방법과 믿음을 내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생(無生)의 올바른 이치를 깨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마음에 경계를 반연해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일어나는 도리를 관찰하면 필경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방법을 제시한다. 초학자로서 좌선간심(坐禪看心)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경지의 좌선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성을 깨친 사람은 대승의 수행자, 도를 깨달은 사람, 진리를 안 사람, 달인, 본성을 알아차린 사람이라고 해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성스러운 마음에 의해 불성이 자각되는 차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신(捨身)의 법에 대해 자신의 몸을 통해 마음과 경계가 분명한 도리를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전에서는 공하여 무작(無作), 무원(無願), 무상(無相)하게 되는 것이 곧 참된 해탈이라고 말한다"라고 결론짓는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판매된 「**Ⅰ · Ⅱ · Ⅲ · 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 · 래정(來情) · 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변 가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재(齊)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 만을 구입 · 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련 증보 · 개정**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 · 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5. 방문자별 각 사정 **자동적시 화면처리** / 전체 **원터치** 기능 / **초보 · 문외한**도 **즉시적 활용 성과획득보장** / **미리** 보고 **먼저 판단**하며 / **예비성(메모)** 또한 백미 입니다!



구입 · 승인 · 교환 안내 : 051) 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 및 4대강 개발 반대 재가불자 생명평화선언

자신의 생명을 던져 온 생명을 구하고자 한 문수스님의 서원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 4대강 개발 반대 재가불자 1만인 생명평화선언(1차)

모든 생명가진 것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르치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승가에 귀의합니다.

베트남의 틱광득 스님이 독재정권의 압제에 항거하여 소신(燒身)한지 47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몸을 살라 4대강의 풋생명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구하고자 하였던 한 젊은 수행자의 처연한 희생 앞에 섰습니다.

문수스님!
당신의 소신공양은 자신의 육신을 던져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자 한 대자비심의 방로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향을 꺾었고 몸을 스스로 태워 온 우주를 비추었던 희전보살의 소신공양이 그러하였을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전생에 자기 육신을 던져 다른 생명을 구하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살행이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뽓어지고 함퍼여져 속살을 드러낸 채 아우성치는 강의 신음에 스님이 그토록 아파하는 동안, 우리는 부끄럽게도 귀머거리와 장님이었습니다. 이토록 참혹하게 생명의 강이 파헤쳐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이 시대의 환경보살들이 엄마나 외롭게 분투하고 있는지도 외면하였습니다.

문수스님!
고요하고도 자비로운 당신의 항거 앞에서 이제야 참회합니다. 인간의 삶이 엄마나 자연에 깊이 의존하는지를 모르고, 다른 생명을 가벼이 여겼던 우리 안의 무지를 참회합니다. 자연을 오직 수탈의 대상으로만 삼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방치·동조해 온 우리 안의 무관심을 참회합니다. 무지한 국가지도자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가치관을 조금이나마 심어주지 못한 우리의 무능력을 머리 숙여 참회합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이제 우리 안의 무지와 무관심, 무능력부터 떨치고 일어서려 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살리는 대장정에 망설임 없이 나서, 우리 어깨에 죽비를 내려친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 화답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존재들은 평화롭게 공존할 권리가 있을을, 그 권리를 파괴하고 짓밟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하게 맞설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려 합니다. 우리 1만명의 불교도들은 금일부터 생명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4대강을 위해,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돌보는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자비무적의 정신으로 나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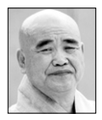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로지 개발이익만을 생각하는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자행되었고, 이로인해 인간의 건강에서부터 기후, 경제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가 파괴될 위험에 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사회에서는 구태의연한 대규모 환경파괴행위들이 전국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류와 지구에 대한 보편적 책임은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름다운 우리 강과 강의 생명들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진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겠습니까?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물어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만이 죽어가는 강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공존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나갑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한 수행자가 포크레인에 신음하는 생명의 목소리를 아파하며 목숨을 던졌습니다. 제 목숨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많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생명파괴를 멈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특정 구간 한 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확산여부를 결정하자는 국민 다수의 요구를, 최소한의 합리적 대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불교도들은 금일로부터 문수스님의 유지를 깊이 새겨, 4대강에서 반생명적 파괴행위가 중단되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평화가 올 때까지, 불퇴전의 자세로 정진해 나갈 것임을 사방세계에 고하는 바입니다.

2010. 7. 14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 4대강개발 반대를 염원하는 재가불자 1만인 생명평화선언(1차) 동참자 일동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⑨

내가 죽으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



그림 · 김필헌

◆참청기연(參請機緣)

세상 사람들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혜능이요 북쪽은 신수'라고 하나,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니라. 또한 신수 선사는 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하고, 혜능 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르니, 법은 한 종(宗)이나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이 달라서 이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이 이뤄지게 됐느니라. 어떤 것을 점(漸)과 돈(頓)이라고 하는가? 법은 한 가지이나,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니 견해가 더디면 바로 점(漸)이요 견해가 빠르면 바로 돈(頓)이니라. 법에는 점과 돈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점'과 '돈'이라 이름한 것이니라.

신수 스님이 지성 스님을 불러 말했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해 조계산으로 가서 혜능 스님의 처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듣기만 하되, 내가 보내서 왔다 하지 말아라. 들은 대로 그 뜻을 기억해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라. 그래서 혜능 스님의 견해와 나와 누가 빠르고 더딘지를 보게 하여라."

지성은 즉시 조계산으로가 혜능 대사의 법문을 듣고 그 말끝에 문득 깨달아 바로 본래의 마음에 계합했다. "대사이시여,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 스님 밑에서는 깨닫지 못했으나 대사님의 법문을 듣고 본래의 마음에 계합했습니다. 대사께서는 자비로써 가르쳐 주시기 바라옵니다."

대사께서 말씀했다. "그대의 스승이 가르치는 계 · 정 · 혜는 어떤 것인지 나에게 말해 주기를 바라노라."

"신수 대사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혜라고 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함을 정이라고 합니다. 신수 대사의 말씀은 그러 하온대, 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음이 자성(自性)의 계(戒)요, 마음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음이 자성의 정(定)이며,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의 혜(惠)이니라. 계 · 정 · 혜는 작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요, 나의 계 · 정 · 혜는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니,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계 · 정 · 혜도 세우지 않느니라."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 했다. 7년간 <법화경>을 외웠으나 마음이 미혹해 바른 법의 당처(當處)를 알지 못하더니 와서 물었다.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대사님의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했다. "법달이여, <법화경>에는 많은 말씀이 없나니, 7권 모두 비유와 인연 말씀이니라. 부처님께서 널리 삼승(三乘)을 말씀하심은 다만 세상 사람들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며, 경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승(乘)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불승(佛乘)뿐이라'고 하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헤아리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해 삿된 견해를 떠나나니 이것이 바로 일대사인연이니라.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바로 양변(兩邊)을 떠나니라.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空)에 집착하나니, 모양에서 상(相)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는 것이 미혹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법달이여,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신회라고 했으며 남양 사람이다.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물었다. "대사님께서는 좌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대사께서 일어나서 신회를 세 차례 때리시고 나서 신회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으냐?" 신회가 대답했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했다. "그대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 했는데 어떤 것이냐?"

신회가 대답했다. "만약 아프지 않다고 하면 곧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고, 아프다 하면 바로 범부와 같아서 이내 원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사께서 말했다. "신회여, 앞에서 본다고 한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兩邊)이요, 아프고 아프지 않음은 생멸(生滅)이니라. 그대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와서 남을 희롱하려 하는가?"

"그대 마음이 미혹해 자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을지니, 마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성을 보게 되면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여라. 그대가 스스로 미혹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혜능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아는 것이라 그대의 미혹함을 대신 할 수 없느니라. 만약 그대가 스스로 본다면 나의 미혹함을 대신하겠느냐? 어찌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선지식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

참청기연(參請機緣)은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남돈북점(南頓北漸)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신수 스님이 지성 스님을 조계산으로 보내 혜능 스님의 법문을 듣고 다시 자신에게 그 법문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법달이라는 사람이 육조 스님과 <법화경>의 세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입니다. 네 번째가 <법화경> '방편품'의 최상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회라는 사람과 육조 스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육조단경>에서 선문답의 형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부처님은 <가정경>에서 아라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라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지만, 부처님은 아라한의 대답을 제일로 쳤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 또한 깨달은 사람,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중국 신화에는 선지식을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참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과 참사람을 어떻게 구분 할까요? 사람은 눈 · 귀 · 코 · 입 · 몸 · 뜻에 이끌려 사는 것이라면, 참사람은 색깔 ·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분별에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혜능 선사는 사람과 참사람의 차이를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사람과 <법화경>을 굴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참사람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참사람은 무위진인(無爲眞人)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위진인은 말 그대로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할 일이 없다는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헐떡이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제 선사는 <임제록>에서 참사람을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며, 차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혜능 스님은 조계산의 보림사에서 법을 펴고 있었습니다. 육조 혜능이 머무는 보림사는 남중국에 있었고, 신수 스님의 옥천사는 북중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능북수(南能北秀)라고 불렀습니다. 혜능 스님은 단박에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펴고 있다고 해서 돈종(頓宗)이라 하고, 신수 스님은 점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점종(漸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분별심을 일으켜 남돈북점(南頓北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진리)에는 돈, 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돈과 점이 나눠질 뿐입니다.

혜능 선사는 사람과 참사람을 점(漸)과 돈(頓)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진리에는 점돈(漸頓)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점과 돈이라 이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 스님의 계(戒) · 정(定) · 혜(惠)에 대한 물음에도 '마음바탕에 그릇됨이 없음이 자성(自性)의 계요, 마음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음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의 혜이다'라며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그 자리가 곧 계 · 정 · 혜가 완성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혜능 스님은 법달과 <법화경> 공부에 대한 답변에서도 <법화경>에 담긴 뜻을 마음으로 녹여 <법화경>과 하나 됨을 강조하며, <법화경>에 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법화경>을 자유로이 굴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승(三乘)에는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이 있습니다. 성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교법이며, 연각승은 스승 없이 홀로 깨닫는 가르침으로서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을 관하고 또는 다른 인연에 의해 깨닫는 가르침입니다. 보살승은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보리심을 발해 불도에 입하고 사홍서원을 발해 육도만행(六度萬行)을 수하여 무상정각(無上正覺)을 증오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문(聲聞) · 연각(緣覺) · 보살(菩薩)의 삼승(三乘)에서도 혜능 스님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나눠 설명할 뿐 셋이 아닌 하나로서 최상승인 불승(佛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대승경전에서 만날 수 있는 숱한 부처님의 각기 다른 이름이 진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투신, 여럿이 곧 하나이며 문수와 보현이 둘이 아닌 하나요, 관음과 지장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과 하이드가 둘이 아닌 하나이듯, 마음을 떠나 부처가 따로 없으며 생활을 떠나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처휘진적(處輝眞寂) 스님이 깨달음을 이뤄 첫 설법을 하기 위해 법상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한 동자승이 일어나 당돌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셨을 때는 황금빛 연꽃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스님의 첫 설법에는 무슨 상서로운 조짐이라도 있었는지요?"

스님은 법상 위에서 빙그레 웃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막 문 밖의 눈을 쓸었네."

어느 날 제가 머무는 사자암에 신도들이 몰려와 "고승이 죽으면 상서로운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데 만 훗날 스님이 죽으면 어떤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도들의 기대에 당연히 상서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서쪽으로 질 것입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종무법인 禪農教團 (법원등기 제3750호)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禪農 一道
開心 正覺

◆입 종 비 : 없음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 사무국장 :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3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과정 ◆

■ 실기교육 : 홍은사 주지 성각스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법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모 집 : 수시모집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초보자도 여법하게 불공과 제의식 가능하도록 교육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종무소
(051)243-3165
011-887-8600

카이로프락틱(체형교정)
치유사 수강생 모집

◆대상 : 스님, 일반불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법!
스님,불자님 이제 건강도 직접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한국대체의학연구소에서 책임집니다.



교육과정 카이로프락틱 치유사
교육내용
◆체형교정치유 - 목 등 허리 골반 디스크 / 척추 / 성장 / 비만
◆통증치유 - 급 만성 요통 / 어깨 무릎 통증 / 다리저림 / 오십견 / 두통 / 생리통 / 턱관절
◆재활치유 - 척추손상 / 관절손상 / 뇌졸중(중풍) / 뇌성마비 / 척수마비 / 루마티스 관절염
연수장소 안양 아크로타워 4층 세미나실
교육기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13시 - 17시(3개월 과정)
교육특전 수료증, 심사후 자격증 수여, 치유센타 개설시 운영지도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의학박사 엄갑호 원장
·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소장 · 한국B,N 카이로프락틱협회 경영고문
· 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사범자격소유 · 원천의학사(국제자격증)
· NLP인성 교정사(국제자격증) · 최면심리교정사(국제자격증)
국가기관 한국대체의학연구소
예약문의 031)381-6100 / 010-3748-2500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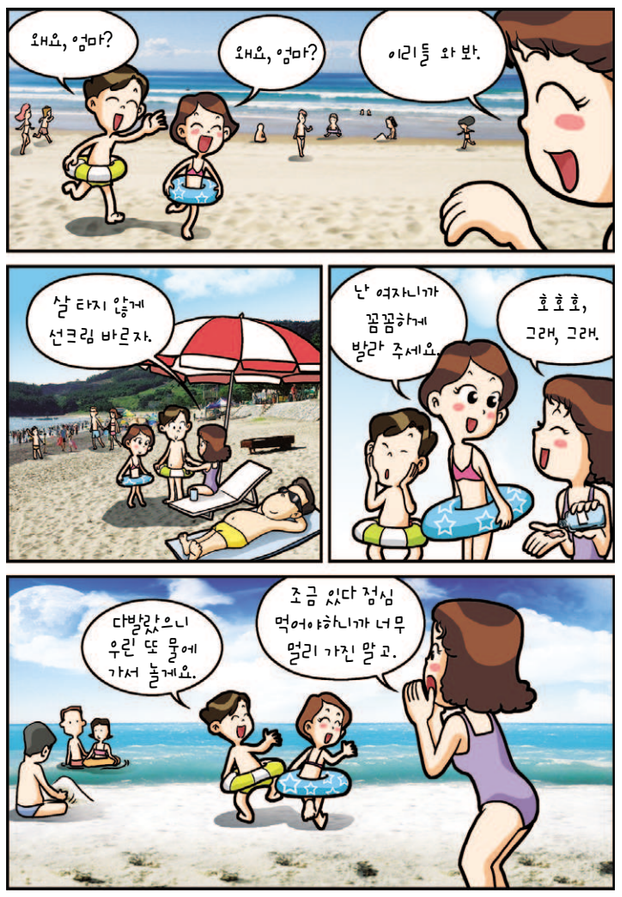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요절복통 여래네 집

#19. 후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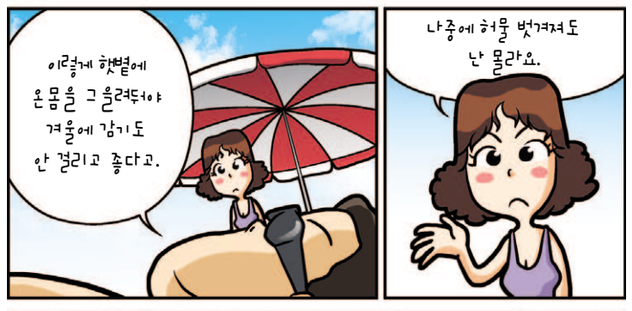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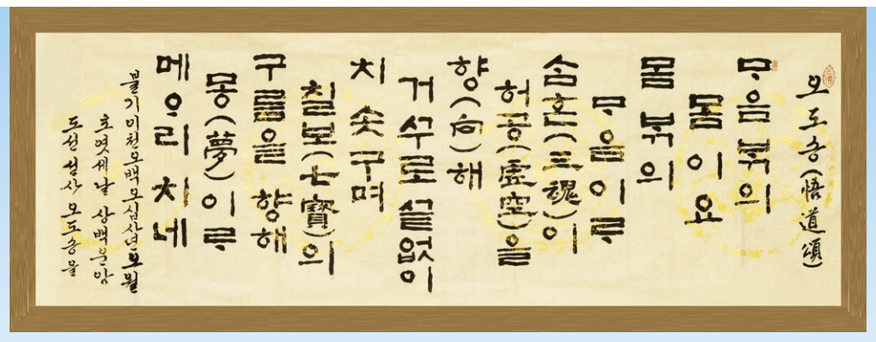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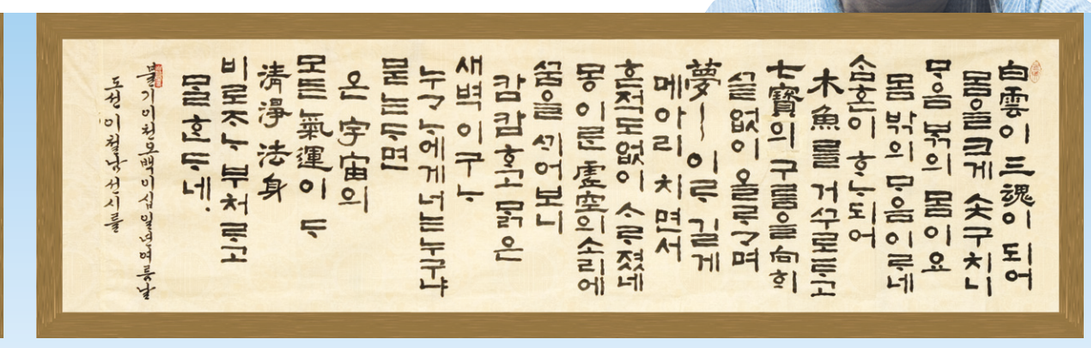
사랑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사랑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이 없으면 걱정이 없거니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법구경



도인이여 꿈을 꾸었습니다.
눈 밝은 스승이여 꿈 속의 메아리를 보았습니다.







도교와 불교가 만난 피안의 세계
「道와 佛의 깨우침의 노래 1,700수」
특허출원 41-2009-0030312

화두 풀이에 대한 비매품 서적(10월말 출간 예정) 입니다.
인연있는 분들께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산 율선 도문 남초 도선 합장 010-3007-5989

인성교육의 열쇠 '아기'



최근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사건에서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재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죄의식을 느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또래를 괴롭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재미로 노숙자를 괴롭히는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청소년이 아동을 성폭행하는 등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 청소년들과 관련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을까?

<공감의 뿌리>에서는 관련 전문가나 교사,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인성 교육 문제, 나아가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를 '아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캐나다의 유치원 교사였던 저자 메리 고든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가진 힘'을 발견하고 지역에 사는 갓난아기를 유치원 · 초 · 중등학교에 초대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그리고 "아기가 아이를 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자는 1년 동안 갓난아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공감 능력을 높이는 심리 교육 프로그램인 '공감의 뿌리'를 시작한다.

아기 관찰하며 소통법 배워
10년 만에 왕따 90% 줄어

공감의 뿌리 강사가 교실에 초록색 담요를 바닥에 깔면 아이들은 조용히 담요 가장자리에 둘러 앉는다. 교실에 들어온 엄마가 담요 위에 앉아 안고 있던 아기를 내려놓으면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기가 하는 행동을 지켜본다. 아이들은 아기의 첫 이가 났는지, 만나지 못한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엄마에게 질문한다. 그리고 뒤집기나 장난감을 찾아내는 새로운 과제를 성취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준다. 이렇게 아이들은 아기의 감정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감성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능력을 배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왕따 시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이의 사소한 놀림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됐다.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과 아기가 받아야 할 보살핌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십대 미혼모 문제도 줄어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지 10년, 캐나다 전역에서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현상이 90퍼센트나 줄어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며, 공감 능력과 학습능력도 발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책은 오늘날 과도한 경쟁 교육 속에서 다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 외우기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킬 가장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희망의 씨앗인 '공감'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감의 뿌리 | 메리 고든 지음 · 문희경 옮김 | 샨티 펴냄 | 1만5000원 이나은 기자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물럿거라

마음이 지닌 치유력에 주목… 장현갑의 '스트레스는 나의 힘'



권위 있는 보고에 의하면 오늘날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80%정도는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돼 병이 생긴 스트레스 관련 환자라고 한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병, 뇌졸중을 포함한 순환기 질병이 50%를 넘는다. 순환기질환과 암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오랜 기간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생기는 병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불량한 생활습관은 만병의 근원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인 것이다.

뉴욕대학교의 여성의학자 수잔 코바사는 건강과 성취감에 대한 연구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하면서도 건강한 CEO는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생활에서도 질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결근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코바사는 이런 CEO의 특성을 스트레스 강인성(stress hardiness)라고 명명했다.

그녀는 스트레스 강인성을 가진 CEO는 3C, 즉 통제감(Control), 도전감(Challenge), 몰입감(Commitment)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의욕을 부추기는 도전으로 보고, 삶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직장의 일이나 가족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몰입한다.

수잔 코바사의 말처럼 한국명상치유학회 명예회장이자 저자인 장현갑도 <스트레스는 나의 힘>에서 "스트레스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지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런 지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뇌과학을 연구했던 심리학자인 저자는 이런 지각 극복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바로 미국 심리학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완반응과 마음챙김' 이라고 강조한다.

이완반응과 마음챙김 치료는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에 주목하며 출발한 스트레스 질병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완법은 집중명상의 하나로 하버드 대학 부속병원에서 1975년부터 도입해 널리 활용하는 방법이고, 마음챙김 명상법은 통찰명상의 하나로 매사추세츠 대학병원에서 1979년부터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두 명상법은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가장 권위 있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돼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한편 책에서 저자는 소리나 단어와 같은 진언 또는 만트라나 기도문과 같은 언어적 방법을 통해 엄습해오는 잡념과 공상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마음에 휴식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에 주목했다.

하버드대 벤슨 박사는 이런 변형의 경지를 '브레이크 아웃(Breakout)'이라 불렀는데 이 현상이 발생하면 몸과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브레이크 아웃이 바로 자기변형의 기본 과정으로 종교적 체험, 특히 명상과 같은 심신의 이완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저자가 진료한 환자들의 심신치료 사례들과 독자들이 직접 이완반응과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이완반응을 일으키는 방법' '이완반응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완반응의 간단한 활용 등을 별색으로 인쇄해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스트레스는 나의 힘 | 장현갑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전통 닫집 보존 관리에 심혈 기울여야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총서' 두 번째 '닫집' 펴내

사찰에서 제일 처음으로 찾는 곳이 부처님이 모셔진 전각일 것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불상 위에 작은 집 모양의 장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닫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닫집은 천장 높이 달려 있어 정작 사람들이 전각에 들어와도 닫집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워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전각을 나서는 경우가 많다.

닫집은 불교사상의 상징물로 대중이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들의 신심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존경하는 부처님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 모시려는 종교적 신앙의 발로였다.

하지만 불교계나 문화계에서는 이런 중요한 불교문화중 하나인 닫집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탓에 약간의 보수만 하면 얼마든지 오래 갈 닫집도 그대로 방치될 정도로 지금 닫집의 보존과 관리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불교문화의 가치와 생생한 아름다움을 조명하기 위해 발간하는 '불교문화총서' 시리즈 두 번째로 닫집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닫집>을 발간했다.

민병천 이사장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닫집을 이대로 두면 얼마 안 있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 책을 펴내게 된 것도 전통문화의 자랑스러운 분야인 닫집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통 닫집의 보존에 일조를 하기 위함"이라고 서두에 밝혔다.

심대섭 대표(한국전통건축연구원)와 신대현(불교신문 논설위원)이 필진으로 참여했으며, 1년에 걸쳐 전국의 오래된 닫집을 하나하나 찾아가보고, 현재의 닫집 제작 현황도 조사했다.

<닫집>은 닫집의 뜻부터 상징적 의미, 삼국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시대의 닫집과 전등사, 개암사, 미황사, 범어사 등 닫집의 실례등도 담고 있으며, 닫집의 제작 현황과 과정도 다뤘다.

불교문화총서2 닫집 | 심대섭 · 신대현 지음 | 대한불교진흥원 펴냄 | 2만원 이나은 기자

괴로움은 행복의 거름



사람들은 사는 것이 늘 힘들고 괴롭다고 말을 한다.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부처님은 "사람들은 괴로움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지만, 그 늪은 헤어나지 못할 늪이 아니다"고 확언했으며 그 헤어나는 길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이러한 때야말로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밝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중앙도서관장, 문교부 차관, 환태평양변호사 협회장 등을 지낸 이상규 변호사(77)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출간해 부처님 재세 당시의 일을 근간으로 해 인간의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가르친 사성제와 팔정도를 <아함경>과 <빨리경전>에서 살폈다.

저자는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아함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바로 그 밑의 각주에 상응하는 내용의 빨리경전을 실어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아함경> 전권을 주제별로 재분류해 7권으로 번역 출판한 <전해오는 부처의 가르침>을 비롯해 <금강경의 세상>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 등> 다수의 불교관련 책을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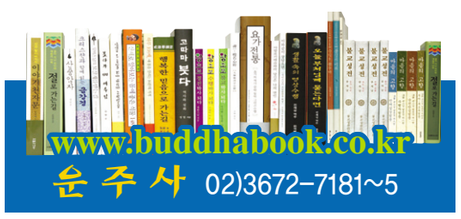
이상규 변호사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설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 것 뿐"이라고 밝혔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 이상규 지음 | 해조음 펴냄 | 1만2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2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3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6	지리산 스님들의 못 말리는 행복 이야기	천진/현현	불광출판사
7	광명진언 기도법	김현준	효림
8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9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미산	명진출판
10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선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진정하고 실체적인 죽음이 과연 존재하는가

대한에 불교가 전래된 후 진정한 죽음의 실체를 가장 확실히 설명한 자 누구인가?
우리 역사상 죽음을 진정 죽음답게 설명하고 해석한 어떤 문헌이 존재하는가?
죽음에도 생명이 있다는 사상초유의 학설을 주장한 필자는 과연 누구일까?

불교에서 행하는 모든 사실은 구경에는 불교 상담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대한의 불교 속에 안주하는 인간들은 불교상담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다.
이 책은 난해한 서양심리학과 불교유식학을 체험적인 사실로 접목하여
누구든지 한 번 읽으면 내담자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심리학설이 함장된 서책이다.

신간

삶과 죽음의 자아론
불교 상담의 실제





죽음에도 생명이 있는가
도서출판 삼보각

송암 지음 | 신국판 | 368쪽 | 정가 12,000원

•구입문의 : 010-9029-4200 / 052)211-8997
입금계좌 : 제일은행 788-20-052734 (예금주 : 박찬용)

저자 인터뷰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

근본교리 알면 불교적 대안 척척

1995년부터 '법공양' … "원력 세워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뤄져"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은 지금까지 〈생활 속 예불문〉 〈생활 속 반야심경〉 〈참회 · 참회기도법〉 등 불교 입문서를 펴냈다. 김 원장이 신간 〈불교근본교리〉를 들고 밝게 웃고 있다.

"불자들은 불교를 접함에 있어 그 핵심이 되는 근본교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기본인 교리를 모르는 것은 집을 지을 때 1층을 짓지 않고 2,3층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월간 〈법공양〉 발행인이자 도서출판 효림의 대표로 있는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 원장(57)은 최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불교의 응용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이때,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보다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본 바탕이 있어야 현재 각종 사회현상과 문화적 변화에 불교계가 대안을 제시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2년간 한국불교를 연구했으며, 우리문화연구원 원장, 성보문화재연구원 2대 원장 등을 역임한 김 원장은 이런 생각을 담은 책 〈불교근본교리〉를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삼법인, 중도, 12인연, 사성제 등 근본교리를 정리했다. 각 항목마다 사례를 들고, 의미를 되짚고, 요약하거나 강조하는 식으로 구성해 어려운 교리를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

불법홍포의 원력 때문일까. 7월 12일 서초동 도서출판 효림의 집필처에서 만난 김 원장의 얼굴은 밝았다. 그에게 불교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향후 불교계의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불교근본교리〉는 불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불교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특히 교리는 학자들이 연구해 일반불자들이 심도 깊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불교근본교리〉는 지난 2년간 월간 〈법공양〉에 불교교리 해설과 관련해 연재된 것을 모은 것입니다. 불자들이 불교의 기본인 교리를 보다 충실히 알고, 또 불자가 아닌 사람도 책을 보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마음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선재동자를 남순동자라고도 합니다. 선재동자가 남순동자인 이유는 문수보살 이후 보현보살을 만나기까지 남쪽으로 순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양이 있는 남쪽, 즉 바름과 가르침을 상징하는 곳으로 순례를 떠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순동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가듯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또 조계종 등 각 종단은 불자의 깨달음과 수행 등을 진작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중3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9년 무렵 당시 아버님께서 절에서 하는 수련회에 한 달간 저를 보냈습니다.

그 절에 계시던 한 노스님이 제게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책에 나온 부처님 일대기를 보는 순간 내 얘기와 같구나 하는 신심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불교 공부에 심취했습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지' 하는 마음에 고등학교 시절 공부보다는 경봉, 성철, 일타 스님 등 당대 큰스님을 찾아뵙고 불교 책을 보곤 했습니다. 불교를 믿지 않던 부모님은 당연히 이런 저의 생각에 반대하셨습니다.

고1 때의 일화입니다. 경봉 스님이 계시던 통도사 극락암에 갔습니다. 당시 양산 통도사는 대구에서 교통이 좋지 않아 하루가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절이면 절마다 찾아다니는 아들을 만류하기 위해 함께 가신 어머니께 경봉 스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누고?'

'제 아들입니다.'

'내 도.'

만류하러 가셨던 어머니의 말문이 막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일간 극락암에서 머물렀는데 스님께서 밤마다 불러 '꼭 스님 되러 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러던 제가 출가에 대한 생각을 접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양산 내원사에서 대학교 내 불교관련 활동으로 5박6일간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대구에 와야 하는데 날이 저물어 비구니 암자인 익성암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면도조차 하지 못해서 산도둑같은 젊은 청년을 비구니스님들이 재워줄리 있겠습니까. 묵을 곳이 없어 익성암 다리 밑 개울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에 개울 소리에 눈을 떴는데 보름달이 너무 훤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같구나.'

보름달을 보며 강한 집념이었던 출가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스님이 됐다면 더욱 더 부처님 가르침을 펴며 멋지게 살 수 있었겠다' 생각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도서출판 효림의 설립과 〈법공양〉 창간의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1972년 2월 대학교의 지도교수셨던 이기영 교수님의 이끎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의 불교분과를 맡아 일하게 됐습니다. 12년간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가 끝난 뒤 불교관련 책들을 더욱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림출판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출판이라고는 접해보지 못했던 터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스님들과 관련된 책을 내며 신심하나로 버텼습니다.

변화는 1992년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2억의 사재를 털어 1억 원은 출판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불교계는 '밥공양'이 없었습니다. 탑골공원 등지에서 이웃종교계는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배식을 하는데 불교계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함께 연구와 집필 등을 하던 지인의 소개로 그 1억 원으로 '밥공양'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조직 구성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밥공양이 아니라 법공양을 하자'였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 글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글로써 부처님 법을 더욱 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1995년 2월 〈법공양〉을 창간했습니다. 창간호는 32페이지에 2000부를 찍었는데 1년 만에 2만부가 됐습니다. 현재는 7만부를 찍어내고 있으며 군법당과 병원 등에도 보내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서포교에 나서며 보람찼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좋은 점은 '법공양'을 하니 당초 하고자 했던 '밥공양'이 자연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IMF던 1998년 〈법공양〉에 실직자 및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한 무료배식을 펼치자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 짧은 글을 보고 수많은 불자님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무료배식은 계속 펼쳐 서울 효행의집이 탑골공원에서 7년 간, 현재 대구 효행의집이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네팔 지혜학교 등도 건립해 매년 1만 불씩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원력을 가지고 노력하면 어떤 것이든 이뤄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문서 포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심 나게 하는 글로서 불교로 이끌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는 한 글을 많이 써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법공양〉 7만 독자들에게 더욱 충실할 계획입니다. 많은 책을 내는 한편 〈법공양〉 또한 10만부, 15만부 펴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내게 주어진 하루는 '선물'

티베트 여행 에세이 '삶은 어차피…'



하루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행복으로 충만하고 매일 매일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소박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티베트 사람들이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를 전하는 에세이집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는 저자 현진 스님이 티베트에서 느낀 점과 티베트 속담, 불교 경전 문구 등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다.

책에서는 티베트의 아름다운 정취와 그 속에서 자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책장의 사진마다 티베트의 독특한 풍물이 가득하다.

저자 현진 스님은 티베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누가 물었다. 오르막이 쉬우냐? 내리막이 쉬우냐? 오르막, 내리막은 상관없다. 중요한 건 짐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행복이나 불행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번뇌가 없어야 한다. 즉, 삶의 무게를 줄여야 즐겁다는 것이다.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는 인간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 야크소와 무엇이 다른가."

스님은 이 책에서 스스로에게 충만하지 못한 삶은 늘 궁핍하게 마련이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된다고 말한다.

"모든 존재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티베트 격언을 소개하며 스님은 자기 성찰을 강조한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과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한 스님은 이 책에서 '지금 만족할 줄 알면 인생이 늘 유쾌하다'는 지족상락(知足常樂)이란 좌우명을 끊임없이 전한다.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 | 현진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3000원

노덕현 기자

상류층의 일상 그 덧없음이여

황석영 소설 '강남몽'



소설 〈강남몽〉은 남한사회에서 자본주의 근대화 이면에 감춰진 병폐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1995년 6월 무너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5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의 각장에서 다섯 인물은 근대사에서 자본주의에 적응해가는 인간상을 대변한다.

화류계에 입문해 룸살롱을 운영하던 박선녀(1장)는 백화점 창업주이자 일본군 밀정의 경험으로 미 군정청 특무기관의 요원이 되었다가 재벌이 되는 김진(2장)의 후처다.

정치권 실세들과 협잡해 강남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동산업자 심남수(3장)는 한때 박선녀와 사실혼 관계를 가진다.

조직폭력배 두목 홍양태(4장)는 박선녀와 나이트클럽을 동업한다. 최하층 도시 빈민의 딸 임정아(5장)는 하루 용돈 3000원으로 살아가는 백화점 아동복 매장 임시직원이다.

백화점이 붕괴되는 날, 김진은 붕괴 조짐을 알고도 세일기간 매출이 아까워 영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둘째 며느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던 박선녀와 점심으로 5분 만에 김밥을 먹고 손님을 맞던 임정아는 함께 건물 더미 속에 깔려 구조를 기다린다. 박선녀는 생존을 위해 임정아에게 많은 물질적 보상을 약속하지만 결국 죽고, 임정아는 살아난다.

책은 극단적 자본주의로 흘러가는 사회의 병폐와 거품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반영한다.

이 밖에도 박정희, 이후락 등 실명을 사용하고 제주 4 · 3사태, 광주 5 · 18 민주화운동 등 당대 역사적 사건도 함께 담아 소설이지만 사실감을 더한다.

저자는 "욕망의 추구로 오히려 서서히 몰락해가는 상류층의 일상은 그 꿈이 어쩌면 덧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제목을 강남몽이라고 정했다"고 말했다.

강남몽 | 황석영 지음 | 창비 펴냄 | 1만2000원

노덕현 기자



세계 불교사에 매머드급 허리케인이 상륙한다

영산불교가 자신있게 내놓은 불서(佛書)의 초신성!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분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염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삼매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견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무수한 삼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육도의 지옥, 아귀, 수라, 하늘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신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붓다라고 할 수 없다."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토와 도킹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안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팔품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일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피력.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Ⅰ Ⅱ Ⅲ**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Ⅳ권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시리즈 – 행복초대장 近刊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

매월 음 8일, 23일 대법회 http:// www.hyonjisa.com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대전 분원 Tel 042)525-5325, 5345

최연의 산 이야기 <19> 황악산 2

사명의 국난 극복 의지 직지사서 영글었구나



사명대사가 입산 출가하여 머리를 깎았던 사명각. 안에 사명대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황악산의 북쪽 기슭인 물한리에 은자(隱者)로서의 벽계(碧溪) 스님이 있었다면 남쪽 기슭인 직지사에는 임진왜란의 승장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있었다.

직지사(直指寺)는 천년 고찰로 신라 눌지왕 2년(418년)에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아도화상이 선산의 도리사(桃李寺)를 창건하고 멀리 서쪽의 산 하나를 가리키며 "저 산 아래도 좋은 절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산이 황악산이고 그 터에 세운 절이 직지사로서 아도스님이 곧게 가리켰다고 해서 직지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직지사는 이곳에 주석하셨던 능여대사(能如大師)가 고려 태조에게 도움을 준 보답으로 태조19년(936년)에 사세를 크게 키우게 된다. 견훤(甄萱)이 서라벌을 함락하고 경애왕을 살해하자 이를 구하러 간 왕건이 오히려 팔공산 전투에서 대패하여 부하 신숭겸(申崇謙)이 임금 옷을 대신 입고 도망쳐 죽음으로써 구사일생 목숨을 부지한 왕건(王建)이 직지사에 사람을 보내 묘책을 물어보니 능여대사가 하루 밤 사이에 삼은 짚신 2천 켤레를 왕건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그 짚신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능여대사의 도움으로 곤경에서 벗어나서 후백제를 물리치고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황악산에서 흘러내려 직지사 경내를 휘돌아 나가는 계곡을 능여대사 이름을 따서 능여계곡이라고 한다.

그 이후 조선조에 가서 사세가 기울어졌다. 승병장 사명대사가 출가한 사찰이라고 왜병들의 혹독한 보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사명대사는 신묵(信默) 스님을 은사로 직지사로 출가하였다. 18세에 승과(僧科)에 합격하고 30세에 직지사 주지가 되고 32세 때는 당시 선종(禪宗)의 수사찰(首寺刹)이었던 봉은사(奉恩寺)의 주지로 천거 받았으나 이를 사양하고 수행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묘향산으로 서산대사(西山大師)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35세 때 금강산 보덕암에서 3년간 머물다가 팔공산, 청량산, 태백산 등을 거쳐 43세에 충북 옥천 상동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47세에 다시 금강산에 들어가 유점사에 머물렀는데 49세 되는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분연히 승병을 일으켜 금강산 일대와 강원도 여러 고을의 백성들을 구했다.

전래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호국불교의 전통이 사명대사가 이제 그 맥을 잇게끔 요구하였는데 아무리 민족과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나 살생이 수반된 일이라 수행자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희생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황악산은 사명대사라는 걸출한 명인(名人)을 배출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다.

황악산은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금강(錦江) 상류 유역을 이루는 산줄기들과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백두대간의 남쪽 즉 영남(嶺南)의 김천(金泉), 선산(善山), 성주(星州) 등 분지형(盆地型) 고을들을 부려놓았다. 이중에서도 백두대간의 추풍령 아래 첫 고을인 김천은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으로 조선시대 전국 5대 시장(市場) 중의 하나로 손꼽힐 만큼 교역의 중심지였다.

대덕산(大德山)에서 흘러내린 감천과 황악산에서 발원한 직지천이 김천 고을 끝자락 황산(黃山) 아래서 만나 김천의 '감문(甘文)들'과 선산의 '해평(海坪)들'을 적셔주고 금오산(金烏山)이 굽어보는 구미공단 초입에서 낙동강의 본줄기와 합류한다.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삼산(황악산, 대덕산, 금오산)과 이수(감천, 직지천)의 고장으로 불린다. 직지천은 물줄기가 짧아 이내 감천에 합류되지만 감천은 낙동강 수계(水界)에서 중요한 지류(支流)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감천 물줄기에 기대어 삼한시대의 조마국(曺馬國)과 감문국(甘文國)이 형성되었으며 감천(甘泉)의 모래가 무쳐이나 곱고 부드러워 전국 장사 씨름대회가 감천 모래사장에서 최초로 천막을 치고 열렸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실내체육관으로 장소가 옮겨지면서 이마저도 이젠 과거의 추억 속에서만 회상될 뿐이다.

삼산(三山)이 부려놓은 김천, 선산 고을에는 유명한 삼사(三寺)가 있다. 황악산 품에 안겨 있는 직지사와 대덕산에서 갈라져 나온 수도산 자락의 청암사, 그리고 금오산의 산줄기가 해평들에서 잦아들고 감천 건너에 조그맣게 솟아난 냉산 아래 위치한 도리사가 그것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자연의 순환

벌들에게 무심했던 모양이다. 서양벌들이 벌통 입구에서 들어갈 틈을 노리며 날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4일 전이다. 입구 주변은 침략자와 수호하려는 자가 엉기어 물고 찌르며 죽고 죽이는 전쟁터였다. 더위와 습기를 쫓기 위해 벌통 바닥을 돌멩이로 괴어 공기 순환을 돕게 해준 것이 반팔 여름옷을 입기 시작할 때였으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사이 서너 번 양봉장을 둘러봤을까?

고임돌을 없애고 벌통을 내렸으나 한 번 꼬이기 시작한 도둑벌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윙윙' 벌통 앞에서 날다가, 문지기 벌들이 집을 지키느라 분주한 가운데 생기는 빈 공간을 파고들어가는 서양벌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막대기를 주워들고, 내려앉은 벌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노리거나 꿀을 배에 가득 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꾹 눌러 죽이는 동작을 반복하며 벌통 앞에서 하루 한두 시간 씩을 보냈다. 잡나를 놓치지 않아야 하므로 성공률은 반에 반 정도여서 숙인 허리가 아플 때쯤이면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오늘. 가만히 지켜보니 방어에 나서고 있는 토종벌도 이미 벌통의 주인은 아닌 듯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벌통 하나를 집 안 마루로 옮겨 눕히고 살펴보니 무리를 이루고 있어야할 벌들이 송두리째 보이지 않았다. 여왕벌도 보이지 않았다. 꿀을 옮겨가기 위해 침입한 벌들만이 기어다니는 벌집을 털어 밭에 버렸다. 주위의 두 통도 마찬가지였다. 남은 두 통 중 한 통도 군세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결국 한 통만 남은 셈이다. (지난 핸 20통이 넘었다. 가을에 말벌들의 침입을 막지 못한데다 해동기의 추위까지 겹쳐 겨우 세 통만이 봄을 맞았다. 올 봄엔 애벌레가 죽어나가는 병이 번져 분봉도 두 통을 받는 것에 그쳤다.)

> 무엇도 으스대거나
> 굽실거릴 것이 아니다
>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 권력과 힘의 관계를 떠날
> 때에야 우리는 진정 자신
> 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서양벌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가까운 곳에 누가 서양벌통을 갖다놓은 것일까? 지금은 아카시아 철도 아니어서 누군가 슬쩍 일주일쯤 갖다놓았다가 가져가는 일이 벌어질 때도 아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날아온 것일까? 반경 2km까지가 활동범위라고 하니 산 너머에 있는 양봉장에서 날아온 것일 수도 있다.

가서 항의라도 할까? 내 벌통 값을 물어내라고 할까? 당장 서양벌 사육을 멈추라고 할까? 토종벌들도 무자비한 강도가 되어 내 벌통을 침략했으니 아래윗집에 가서 물어내라고 해야 할까? 날개 있는 것이 어딘들 못갈까? 내 벌통의 벌을 죽이고 꿀을 가져갔다고 해서 벌의 임자를 도둑으로 몰 수 있을까? 무엇보다 증거가 없다. 내 벌통의 꿀을 가져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13년 전 한 통 갖고 시작한 양봉이 아닌가? 마음의 흐름이 여기에 다다르자 일렁이던 가슴 속 물결이 가라앉으며 덤덤한 감정이 나를 채웠다. 또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며 비어져 나온 것도 그쯤이었다.

사람들은 '자연' 하면 대부분 평화로운 정경들을 떠올린다. 평화롭게 살고픈 인간 욕망의 발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얘기하며 자신의 정치논리나 부유함을 정당화 한다. 그러나 어쩌랴. 이 세상은 홀로 우뚝 선 강자도 없고 무한의 바닥에 엎드린 약자도 없다. 가장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인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가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의 침입에 앓아눕기 일쑤다. 나아가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

먹히는 것은 다른 생명의 삶을 영위해 준다. 먹히는 자가 없다면 먹는 자도 있을 수 없다. 힘이 센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강할수록 약한 것에 의지한다. 먹고 먹힘은 하나의 순환이다. 잡아먹는 존재는 곧 잡아먹힐 존재다.

무엇도 으스대거나 굽실거릴 것이 아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권력과 힘의 관계를 떠날 때에야 우리는 진정 자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다행인 점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다. 어쩌다 스쳐가는 사람이 지위와 돈과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인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진다.

HOT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멍석(카페트)로 cool 하게~~
네츄럴 삼베 수제 멍석(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中) (大)
신제품
■ 삼베 수제 멍석(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평 ~ 20평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 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 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 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 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용두 작명 역학 연구소
수강생모집.
제기역3번출구
최단기간에 성심껏지도
02)3295-3456
011-9020-8215
달마 김대영

꿈바위불교교육원
능엄신주. 경전독송 영가천도
전국 기도 회향 대법회
(6월 30일 .부산국제신문사 대강당)
참가신청바람
꿈바위 후원자를 모십니다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불자님 자연의
치유법으로
건강하게 해드립니다.
▷45세 이하 남.녀 다섯분까지
금화산 관음사
031)533-0741
www.saam.asia

세상만사 어렵고
힘든 분, 각종 말못 할
고민이 있으신 분
전화주세요.
무료상담 (심령암)
010-5781-8577

염불 역학
1달 속성 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숙식가능
011-716-3811

공양주 모십니다
남녀 행자
모십니다
▷경기 안성에 산세수려한 도량
010-8954-8033

동영상 기문둔갑
- 26강좌로 확실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홍국한국기문둔갑, 평생의명, 육친, 신수, 일진의 길흉, 결혼날짜, 장사 잘되는 개업식날 잡는 법 등등 강의
- 그외에 사주원리, 용신, 일진내정법
- 명반법(나화법), 육효, 파동성명학과 오운육기등의 과목을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좌입니다.

www.beumchun.com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은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사무직원
모십니다.
공양주 모십니다.
▷대전
010-5792-3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5213-7443
043)532-2072

한국선불교조계종
강원도 대덕사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9219-7695

청정 명산 비슬산
자락에 명상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있으니 스님,
재가 불자님들 수행과 심신
건강을 채워 보십시오.
15명 우선.
010-4576-0852

부전자리
구합니다
(45세 비구)
염불 소리 잘 합니다
011-281-4481

조용한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54)772-413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노보살 원함
02)917-336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김포시
010-9469-662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숙식제공, 월 80만원 65세 미만)
▷경남 창원
010-5040-7584

역학무료
숙식강의
남녀 스님 불자
▷달마선원 대현사
011-223-33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찰 건축 전문
사찰 설계, 신축, 보수, 해체, 이전, 토목공사 일체
단순히 목(木)공사를 전문으로 한 한옥 목수의 시각이 아닌 사찰건축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으로 생각이 다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 070)7433-9919, 031)637-8886

부전자리
원합니다
▷비구스님
010-4597-397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컴퓨터, 운전 가능한 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4748-1080

대체의학 비법전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올리기 힘들 때
-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전수 (이론없이 실기만 가르침)
- 엄중한 중풍을 철저히 고치는 중국 고대 비법전수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중풍환자 출장치료 가능함)
- 수련시 각종 그림 나타나는 분들께 초능력 기공을 가르침 (별도강의)
-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각종 질병 치료 비법 교재 증정)

010-7703-3825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출가체험자 모집
- 대상 : 15일 수행관 생활이 가능하신 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하의 남자
- 회주 우학스님의 법문 및 강의. 교육비, 숙식비 전액 무료제공
-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편의시설을 갖춘 수행관
-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상시 지원 가능! 언제든지 상담가능!

문의 : ☎ 010-2488-8228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도요타홈미싱
법복수선 / 정신수양
- 모터 힘이 강력하여 [법복 수선]도 척척
- 생산적인 작업에 집중하여 [정신 수양]에 최적
- 각종 주머니,손가방,보조가방,걸망을 원하는대로 손수 제작
- 추천모델: EC164(149천원),무료 택배,사찰 주문시 사은품



문의.02)2637-4172
홈페이지 www.toyotakr.com
도요타자동차 기술이 미싱으로!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대승불교조계종
멸빈 제적 공고

1. 속 명 : 안종억 법 명 : 청송 청파
사찰명 : 성불암 (경남 김해)
2. 속 명 : 송관빈 법 명 : 법성 혜암
사찰명 : 대원사 (대전 서구)

위 승려는 본 종단에 해종행위와 법규를 위배했으며 승가에 피해를 줄 위험이 사료됨으로 멸빈제적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멸빈 제적 사유
본 종단의 제도를 위해하고 〈대한불교율사조계종〉창종 등등
- 또한 본 종단의 분한재등록을 하지 않은 승려는 불기 2554년 7월 29일 이후 일괄 탈종처리합니다.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관 현각

* 문의사항은 총무원으로 문의바랍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연기
- 법당 : 35평
- 요사 : 8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6억 8천

- 위치 : 인천
- 법당 : 50평
- 요사 : 45평
- 부지 : 400평 (사용 3,000평)
- 가액 : 18억

- 위치 : 경기외곽
- 법당 : 20평
- 요사 : 70평
- 부지 : 2,700평
- 가액 : 17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서울명산에 소재한 기도 영험 도량입니다
- 천하 명당 사찰임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 가액: 12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지리산 아름다운 절
- 총 대지 : 2,100평
- 법당 30평, 요사 40평, 토방 10평
- 사계절 계곡물 철철, 정남향
- 아름답고 마당 넓은 사찰
- 가액: 6억 8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 부지 : 50,000평
- 법당 : 20평 (목조, 단청)
- 요사 :2동 40평
- 가액: 전세 5,000만원(양도가능)
- 특징 : 도심인근의 기도 도량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0평
- 법당 : 40평(목조,단청,3포7포)
- 요사 : 80평 ●산신각: 10평(목조,단청,닷집)
- 기타: 석불(15자) 연못, 석등
- 가액: 5억 3천만원
- 특징: 불사금 20억이상이 소요된 대가람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1)632-182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 법당 29평, 요사 30평
- 공양실, 창고(콘테이너)
- 대지 264평(기타 80평)
- 가액: 5억 (부동산사절)
- 직거래하실분만연락바람
- 전세도 가능함

010-8710-78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대지 : 약 300평
- 법당 : 23평 (90%완성)
- 요사채 : 31평(완공)
- 산신각, 창고
- 가액: 8천만원(절충불가)
- (총공사비는 1억 5천만원소요) 50년이상된 사찰임

010-3877-2579

포교원(급)안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 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거창 토굴터 . 1017평

055)632-3840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가정동
- 평수: 65평(3층건물중 3층 전체)
- 법당 20평, 방4, 공양간 大, 화장실 2
- 주차장등 시설완벽 A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8427-6199

전원주택안내

- 위치: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 산세 좋아 편안한 마을인접
  남한강이 보이고, 양평 시내 인접
- 수행터 비구니 스님 적합
  요양지 투자 적합
- 대지 250평, 건평 50평
- 방4, 화장실3, 대형거실1
- 가액: 2억 9천만원
  (융자 1억 2천만원 포함)

010-4736-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완산초등학교 부근)
- 대지 50평, 건평 30평
- 전망좋음 (주변 대지매입가능)
- 가액: 5천만원
- 포교원 양도시 전북 임실군 기도도량 사용가능

063)231-3436
010-6302-3436

동해바다 사찰터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 대지:540평(평당 100만원 조정)
- 시내중심가 2km 인 산자락
- 연못 2개소, 홍련, 백련 2년생
- 앞-시내, 바다 뒤-산자락
- 야생화 자연스런 조경
  전망 및 야경 좋음

010-4544-0815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거창 토굴터 . 1017평

055)632-384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사거리 상업지역
- 3층, 60평
- (옥상포함. 전체사용가능함)
- 보증금+시설비 6천만원
  월 62만원 ● 현법회중
- 뒤에 산과 폭포있음

011-496-64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주택가 횡단보도 사거리
- 2층 30평 ●소불 100불 인등 270등, 탱화10점
- 보증금 4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시세 절반가 1600만원
- 1층은 불교용품점 비구니스님 도량으로 최적

010-2446-2626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3천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 주택 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 바다가 보이는 전망좋은 아름다운 절
- 4층 65평, 법당 30평, 방3개, 주방, 삼성각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011-831-7322
052)293-73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 4층 약 60평
- 시설완비
- 가액: 전세 5000만원

010-2880-44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 고속도로 IC 2분거리
- 대지 약 330평
- 법당 25평, 요사 25평
- 주지실, 처소 각 10평
- 해수관세음보살석불입상 (높이 6m), 주차장완비
- 가액: 3억 2천만원

011-9388-0975

쑥뜸방(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 온천 역세권, 아파트 밀집지역.각 노선버스 정류장, 홈플러스, 재래시장 입구
- 법당 겸 쑥뜸방, 시설 깔끔
- 3층, 33평
- 가액: 합 4500만원
- 기술 책임 전수, 비구니 보살님 적합
- 사정상 양도하고자 함

017-560-1035

시내사찰안내

- 위치 : 청주시
- 대지: 50평
- 1층 : 방4, 거실, 주방, 화장실
- 2층 : 방3, 화장실, 주방
- 3층 : 법당, 지하실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도심속 사찰터 안내

- 31만명 원주시 중심, 삼면이 5m인 높은 성, 아주 큰나무
- 20여 구루. 주변 아파트단지 예정인, 조건 좋고 예쁜 터.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원동
- 대지 = 645평
- 건1=2층(50+50평), 지12평
- 건2=허가50평+무허50평
- 가격 = 평당 300만 +α

011-9867-8871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중앙동
- 법당과 안쪽 방1칸 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200만원
- 이전불사관계로 급 안내

055)262-3679
010-4877-1679

사 찰 안 내

- 위치: 송파, 천호 20분거리
- 부지 133평
- 건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외 30평 ● 산신굴법당
- 주변여건 : 4차선 대로선 앞
- 뒤는 야산, 경관 예쁘고 마당 500평 이상 사용중
- 가액: 12억

010-2862-510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107평, 건물 45평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거실大, 방3 (화장실2, 남향뒷야산)
- 차량마당진입, 건축비 1억8천만원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11-531-556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진천
- 평수 : 30평 ●방3, 법당
- 월45만원
- 보증금+시설비 900만원 불법포교의 원을 세우신 스님께 공간을 무료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043)532-3271
010-3240-3272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사천
- 65평, 방4, 주방
- 집기일체양도
- 즉시법회가능
- 시설비 4,000만원(조정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010-4876-8977

임야 사찰 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 2칸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5535-6487
053)522-6487

암자 ·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부지 710평, 대지 300평
- 신축건물 30평, 창고 . 요사채 20평
- 아미타 삼존불, 약사여래불, 용왕단, 신중단
- 계곡물 흐르고 연못도 있음
- 큰 미륵바위 有
- 가액: 1억 7천만원 (융자 5천만원) 가격절충

010-8794-125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아래
-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011-329-6606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전하동
- 3층 건물 5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상시설

011-9534-2000

포교원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53-8
- 대지 107평
- 건평 총건평 약 190평(텃밭 있음, 채소, 과일나무)
- 지하 20평, 1층 70평,
- 2층 60평 법당, 거실, 방2, 주방거실, 화장실2
- 3층 32평 미륵전 방4, 창고 2
- 포교원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송군(영천) ●평수 약 2000평,
- 건물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15평
- 황토방 2칸, 산신각(목조) ,20년된 사찰
- 사찰 주변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 인연이 되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임
- 가액: 2억 5천만원
- 기도 시간외 연락바랍니다

011-541-4495

사찰부지 안내

- 불교연수원 및 템플스테이 장소로 적합
- 위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 지목: 토지임야(보존관리지역)
- 평수: 4500평 (3000평도 가능)
- 특징: 정남향(절골)쾌적하고 조용함
- 서울 강변역 59km 한시간거리
- 가액: 평당 23만원 주인직접

010-2215-365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 한옥기와 1동 外 토담집 1동
- 대지 外 텃밭 450평
- 교통 편리하며 조용하고 수행하기 좋음.
- 가액: 7500만원 . 도인 은신처

010-5309-65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 시내중심가 2층
- 평수 20평, 방1, 법당, 화장실
- 부처님, 삼존불, 산신님,각단탱화
- 보증금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800만원●합 1000만원

010-5201-8338

도심속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근처
- 평수 2층, 3층 총 60평 정도
- 가격 : 보증금 포함 4천만원. 월 90만원
- 깨끗합니다. 완벽합니다. 최상의 포교당입니다

010-4115-2143

토 굴 안 내

- 위치 : 축령산휴양림자락
- 비구니스님 10년 공부한 집
- 위치: 전남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 대지 132평, 건평 17평 한옥기와집
- 온돌황토방 1칸, 편백나무방 2칸
- 입식부엌, 화장실 ●가액: 3,800만원

010-4915-818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만수산 자락 (보령 20분, 청양 20분, 부여 30분 서해고속도로 20분거리
- 부지: 약 1,200평● (사찰 뒤 도유림,주차장완비)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방 4, 주방, 거실)산신각 3평, 창고 20평
- 사찰주변 경관 및 전망이 수려한 기도사찰
- 가액: 2억 8천만원(시설집기포함)
- 거래하실분만 연락바람(부동산사절)

010-3857-33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동구 전하동
- 3층 건물 5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상시설

011-9534-20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만수산 자락 (보령 20분, 청양 20분, 부여 30분 서해고속도로 20분거리
- 부지: 약 1,200평● (사찰 뒤 도유림,주차장완비)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방 4, 주방, 거실)산신각 3평, 창고 20평
- 사찰주변 경관 및 전망이 수려한 기도사찰
- 가액: 2억 8천만원(시설집기포함)
- 거래하실분만 연락바람(부동산사절)

010-3857-33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목4동
- 3층 건물중 3층 40평
- 4층 옥상(창고) 전체사용 ● 최상시설,최고 상권
- 방2(침방,친견방),법당,공양간,해우소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권리시설비-답사후 절충

010-3342-4115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27 X형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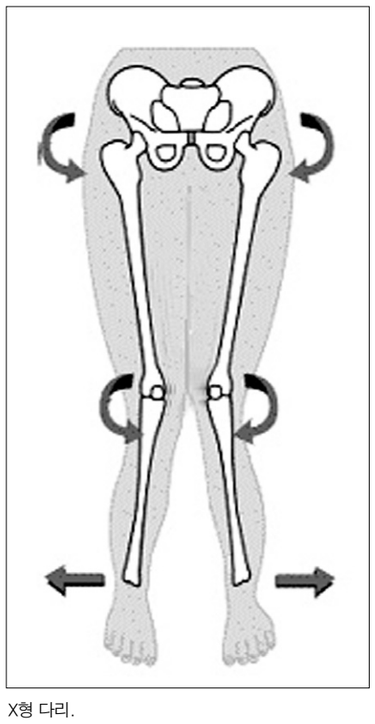
비만으로 인해 많이 생겨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생활로 인해 대체적으로 O형 다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O형 다리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X형 휜 다리입니다. X형 다리는 O형 구조와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고 비틀어진 다리입니다.

일반적으로 X형 다리는 90%이상이 비만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비만체형이 많은 미국, 유럽, 호주 등 서양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다리 모양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도 햄버거 · 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으며 점점 서구화된 식생활로 변화함에 따라 비만인 체형이 늘고 있습니다. 변화된 식생활과 더불어 운동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양인과 비슷한 체형 구조를 닮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로 서양인에게서만 나타났던 X형 다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비만체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X형 다리는 다리와 연결된 고관절이 돌출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지를 허리사이즈에 맞추지 않고 엉덩이 바깥쪽, 즉 골반에 맞춰 바지를 구입하는 분들은 X형 다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X형 다리는 골반이 넓어지고 엉덩이를 처지게 만듭니다. 때문에 보행 시 안짱걸음과 같은 불균형한 걸음걸이를 갖게 됩니다.



X형 다리.

X형 다리는 무릎이 밖으로 향해, 잘못된 자세 습관을 장시간 방치하면 골반, 척추, 목 등의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또한 X형 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도한 비만 상태이기 때문에 두껍고 처진 엉덩이와 허벅지의 외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X형 다리는 골반교정을 통해 순환계의 정상 기능회복과 타이트하고 탄력 있는 엉덩이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늘어져 있는 허벅지를 포함해 하체근육 발달을 위한 꾸준한 지방연소 운동과 밖으로 틀어진 무릎을 안쪽으로 돌리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X형 다리 교정을 위해서는 체형교정 관리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활습관, 식습관을 유지하며 체내 축적된 체지방과 내장지방의 꾸준한 연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X형 다리 교정을 위해 필자를 찾아온 여학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학생은 장시간의 수험생활로 인해 X형 다리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있는 엉덩이 처짐, 복부비만, 하체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0cm가 안 되는 키에 몸무게가 60kg이 넘었으며, 윗몸일으키기 동작을 2개도 못할 정도로 최소한의 근력도 없는 상당히 저하된 체력이었습니다. 여학생은 항상 야식을 하며,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피로감이 쉽게 오며, 외출 시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항상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이 학생에게는 약화된 복근과 다리근육을 위한 맞춤운동과 함께 틀어진 골반과 무릎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체형교정을 실시했습니다. 3개월째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본인이 살을 빼려는 의지가 강해 교정 효과가 더욱 컸습니다.

체중은 점점 줄었고, 다리와 체형은 곧은 체형으로 변해 갔으며 6개월째에는 약 8~10kg가량이 감량됐으며, 다리는 곧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진 경우는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가 운동 처방으로 교정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지금도 예쁜 체형을 갖기 위해 평상시 자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항상 바르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른 자세 습관이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15 요실금 대책

아랫배에 따뜻한 찜질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 나오는 현상을 요실금(尿失禁)이라고 한다. 중년 이후 일부 남성 혹은 여성에게 많이 생긴다. 방광이나 요도의 기능이상 또는 정신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배뇨장애를 일컫는 통칭이다.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를 할 때, 심할 경우 큰소리로 웃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소변이 찔끔찔끔 흐르는 사람들이 있다. 복부의 압력이 올라갈 때마다 요도와 방광의 기능을 돕는 골반근육이 제 기능을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산후조리를 잘못하거나 출산 때 요도괄약근이 다치거나 약해져 생기는 경우가 많다.

출산으로 산도(産道)가 열리면 방광과 자궁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이 손상을 받거나 늘어져서 신축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오줌을 지리는 상태가 계속된다. 분만 경험이 많은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요실금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원인에 있다. 또한 폐경 이후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골반근육이 더욱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러 경우 골반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거의 치료될 수 있다. 편안한 자세에서 항문을 10초 이상 조였다가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이 운동은 다치거나 늘어진 요도괄약근의 신축성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2달 이상 계속하면 요도괄약근의 강화와 아울러 성기능의 회복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방광의 소변저장능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방광염을 앓아도 요실금이 생긴다. 방광염은 흔히 오줌소태라고 하는데,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고 자주 마려우며 배뇨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평소에도 아랫배가 아픈 증상이 수반된다.

특히 여성은 요도가 짧고 습하며 항문과 가까이 있어 과로나 임신, 생리 등으로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방광염의 발병 확률이 높다. 몸을 깨끗이 하며 소변을 참지 않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몸을 차지 않게 하고 따뜻한 좌욕을 자주 하면 예방할 수 있다. 방광염의 경우 원인치료와 함께 골반근육강화운동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소변을 지리면서도 소변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누어도 시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의 경우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 때문에 생기기 쉽고,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진단 치료와 아울러 골반근육운동을 하면 중년 이후의 성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산딸기씨를 복분자(覆盆子)라고 하는데, 모양이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해 붙은 이름이다. 이 복분자는 요실금뿐만 아니라 정력증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방광괄약근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원기를 돋아 준다. 복분자 외에도 방광괄약근을 강화하는 약으로는 댑싸리씨, 댕댕이 덩굴, 느릅나무껍질 등이 민간에 많이 쓰여 왔다.

요실금에는 뜸도 많이 응용된다. 제2와 제3의 요추양옆으로 2치 되는 위치의 신수(腎兪)혈, 배꼽 아래 1.5치의 기해(氣海)혈, 불두덩뼈 위의 1.5치 부위의 중극(中極)혈이 대표적이다. 방광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원기를 돋우는 대표적인 혈자리이다. 민간에서는 부위를 찾기 힘들므로 아랫배 전체를 자극하거나 따뜻하게 찜질하는 방법이 많이 쓰여 왔다.

뜨거운 모래를 넣은 주머니를 아랫배에 15~20분씩 찜질하거나, 돌을 달궈 하나는 아랫배에 대고 다른 하나는 사타구니에 댄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방광이나 요도가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다. 파 100g 정도를 찧어 아랫배에 하루 3번 한번에 20분가량 찜질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된 방법이다.

한방에서는 요실금을 음기가 허해진 대표적인 증상의 하나로 본다. 골반근육 강화운동, 침 뜸이나 찜질, 그리고 원인 치료가 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27 영춘권 3

간결하고 빠른 공방이 주특기

영춘권은 다른 권법에 비해 기술이 단순합니다. 북파 권법인 팔극권이나 형의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격기만이 아닌 블로킹, 트래핑 등의 유술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힘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영춘권의 기술은 간략하면서도 위력적입니다. 상대방과 근접한 상태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손기술은 상대방의 공격을 무마시킵니다. 또 2차 공격 수단인 팔이나 손을 봉쇄해 상대의 반격과 방어 가능성을 꺾습니다.

공격은 언제든 방어가 될 수 있으며 방어는 언제든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발 기술은 사용하긴 하지만, 주로 상대의 노출된 하단(주로 오금)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거나 걸어 넘어뜨릴 때 사용됩니다.

서로의 팔을 붙이고 행하는 '치사오'는 근접전 수련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중국영화 등에서 사람크기의 두꺼운 나무에 말뚝 같은 것을 몇 개 꽂아 놓은 괴상한 운동기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목인장이라는 수련법으로 이 운동기구를 샌드백으로 삼고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투로(鬪路, 일종의 품새)는 소념두, 심교, 표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매우 간략합니다. 자세는 따로 없고, 대부분 자연체로 행합니다. 그 외에 조그만 쌍검을 다루는 팔참도라는 무기술과, 봉술 등이 있습니다.

주 기술은 수기이며, 기술명은 광동어 발음에서 유래했습니다. 용법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이 기술로 어떤 상황을 얻어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춘권 수기는 몇 가지만으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응용될 수 있습니다.

(1) 지권 (직권/충권) – '영춘걸 펀치'라고도 부릅니다. 주먹을 꼭 쥐고, 건배하듯 앞으로 쭉 뻗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격 기술입니다.

(2) 팍사오 (박수) – 중심으로 들어오는 상대의 팔을 손바닥으로 옆으로 쳐내는 기술입니다.

3) 랍사오 (협수) – 날아오는 상대의 팔을 잡아채 그대로 깊이 잡아당깁니다. 상대는 등이나 복부를 노출해 신체 균형을 내주게 됩니다.

(4) 봉사오 (봉수)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상대의 내려치는 공격을 살짝 비틀립니다. 태권도의 얼굴막기를 약간 낮춘 자세로 보면 됩니다.



목인장 단련 모습.

(5) 탄사오 (탄수) –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상대 팔을 손날로 받습니다.

위의 수기 해설에서 알 수 있듯, 영춘권은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간결하고 빠른 공방을 주특기로 합니다.

무술의 기본은 끊임없는 노력과 정신력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무조건 센 무술을 찾기 이전에 자신의 몸을 최상으로 만들고 단련하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 소개료, 수수료가 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을 수 있습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대출안내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한국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하고 있는
본종단은 문공부등록 141호 사단법인체로
화합하는 본종단 종도로써 초빙코져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께서는 본총무원 외에 본 종단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는 사단법인체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러한 단체가 있다면 즉시 본종단 명칭 사용을 중지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자 화

■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225번지
■ 연락처 : 010-3262-1005

사단법인
순일선원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수행 방식을 탈피하여 쉽고 재미있는 수행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초기경전(5부 니까야)을 정확하게 해석한 정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전 과정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법문과
금강경, 반야심경 강의
삼매, 위빠사나 프로그램
(빨리어 경전 말씀 그대로 수행)

※ 매주 일요 정기법회와 수, 금요일에는 평일법회 및 금강경법회가 열립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석 가능합니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7-2 / 070)4129-4127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66-3
070)7779-7711 홈페이지 www.soonil.org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혜 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 봉 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다구를 찾아서 ㉒ 바이사오

격식 ·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일본의 다도는 크게 나눠 차노유와 찻잎을 우려 마시는 전다도(煎茶道, 한국과 중국에서는 포다법(泡茶法)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의 형식이 존재한다.

일본의 전다도 성립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은원 선사(隱元禪師, 1592~1673)와 바이사오(賣茶翁, 1675~1763)를 빼놓을 수 없다. 은원 선사는 명대(明代) 말기 중국 푸젠성(福建省) 황벽산(黃檗山) 만복사(萬福寺) 주지였으나 일본의 요청으로 1654년 제자 20명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다.

일본에는 선종의 삼대종파인 임제종(臨濟宗), 조동종(曹洞宗), 황벽종(黃檗宗)이 있는데 은원 선사는 황벽종을 들여온 인물이다. 그는 황벽종과 함께 당시 명나라에서 유행하던 포다법을 함께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은원 선사는 자니관(紫泥罐) 이라 부르는 다관을 항상 곁에 두고 혼자 차를 마셨다. 당시 일본에서는 차노유가 이에모토(家元, 다도와 같은 예능을 가전(家傳)으로 계승하고 있는 가계(家系) 또는 그 가계의 수장을 의미)로 제도화되고 격식을 우선시하면서 점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던 때였다.

차를 파는 노인이라는 의미의 바이사오는 에도시대 중기에 전다를 보급시킨 인물이다. 그는 11세에 류신지(龍津寺)의 개조 게린도류(化霖道龍, 1634~1720)에게 출가했고, 13세에 게린을 따라 우지에 있는 만푸쿠지로 가게 됐다. 그곳에서 게린의 스승 도쿠단으로부터 계를 하사받았다. 우연히 나가사키에서 청나라 사람에게 전다법을 배운 뒤 제자에게 류신지를 물려주고 1722년 홀연히 절을 떠난다. 이후 20년 후인 1731년 57세에 교토에 상경했다. 60세에 통선정을 지어 차를 팔기 시작했고, 68세에 이름을 고유가이(高遊外)라 고친 후 사람들에게 바이사오로 알려졌다.

그가 차를 팔 때의 이야기는 "교토 외곽의 산기슭 소나무 아래 낯선 모습을 한 노인이 나타나 소박한 다점(茶店)을 열었다. 가게 이름을 통선정(通仙亭)이라 하고 가게 앞에는 '청풍(淸風)' 이라고 쓴 기를 매달았다. 또한 가게 앞에 '찻값은 황금 100냥이든 반 푼이든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냥 마셔도 좋지만 공짜보다 싸게는 안 됩니다' 라고 적어놓았다. 게다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중국풍의 의상을 걸치고 차를 파는 이상한 모습이었다. 얼마 안 있어 그 노인은 봄이면 경치 좋은 꽃그늘 아래, 여름이면 시원한 개울가로, 가을이면 단풍나무 아래로 옮겨 다니며 차를 팔았다"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바이사오의 차를 파는 행위는 출가는 했으나 속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차노유를 배우고 권세가들과 어울려 값나가는 다구(茶具)를 늘어놓고 다회(茶會)를 여는 당시 승려들의 행태와 함께 지나치게 형식화된 차노유를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이사오 사후(死後) 전다이에모토제도가 생겨나 차노유와 같은 길을 가게 된다. 격식에만 치우친 차노유를 비판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았던 전다도가 차노유의 전철을 밟은 것을 보면 어떤 것이든지 조직화, 형식화 하려는 일본인의 성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다제람개구(煎茶提籃皆具).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제람(提籃)의 높이 22.1cm 폭 20.7cm.

전다제람개구(煎茶提籃皆具)는 다구일습을 담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바구니에 다조(茶銚), 량로(涼爐), 수주(水注), 명완(茗碗)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은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이한 점은 다구와 함께 문방구(文房具)도 갖춰진 것으로 에도시대 전다도가 유행하던 시기 문인풍의 차문화가 남아있는 유물이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㊸ 일지암(一枝庵)에서



추사의 아버지 유당 김노경(1766~1849)이 4년 동안의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들 추사와 친숙하게 지낸다는 초의(草衣 · 1786~1866) 스님을 한 번 보고 싶어 일지암을 찾는다. 유당은 초의 스님의 인격에 반한다. 하룻밤을 일지암에서 묵은 유당은 초당 뒤에 있는 유천(乳泉)의 물맛에 또 한 번 반한다.

유당이 하룻밤을 묵었던 것처럼 스님의 흔적에 반해 일지암에 하루 묵었던 적이 있다.

세상에 남은 것은 차밭을 거니는 달빛과 달빛에 젖은 초옥(草屋)이 전부였던 밤. 주지 스님이 빈 찻잔에 차를 채울 때마다 문 밖에선 밤이 깊어갔고, 찻물소리 끊어진 객방엔 밤새 유천의 물소리가 흘렀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5도 칠보지팔공덕수금은유리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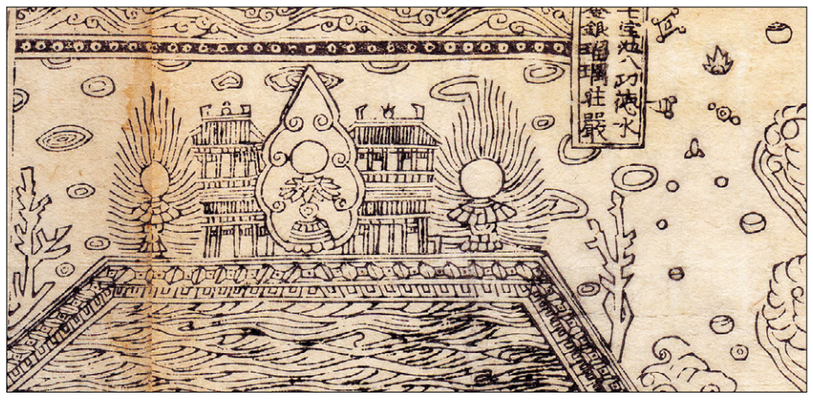
연못 주변은 여덟 가지 공덕의 물로 금 · 은 · 유리 · 파려로 장엄됐다. 그 뒤편 역시 금 · 은 · 유리 · 파려 · 산호 · 마노로 장식된 누각과 광채가 나는 꽃으로 아름다운 연못을 묘사하고 있다. 삽화는 <아미타경>의 4~5쪽까지 이어지는 도상이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칠보의 못이 있느니라. 팔공덕수(여덟 가지의 공덕을 갖추고 있는 물)가 그 중에 가득하고, 못 밑바닥에 고른 금모래를 땅에 깔고 네 가장자리의 섬돌 길을 금 · 은 · 유리 · 파려로 모아 만들고, 위에는 누각이 있다. 또 금 · 은 · 유리 · 파려 · 자거 · 적주 · 마노로 장엄하게 꾸몄느니라. (又舍利佛 極樂國土 有七寶池 八功德水 充滿其中 池底 純以金沙 布地 四邊階道 金銀琉璃 玻瓈 合成上有樓閣 亦以 金銀琉璃玻瓈 硨磲 赤珠 瑪瑙 而嚴飾之)"

<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의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연못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강당에는 절과 궁전과 누각들 모두 칠보로 장엄돼 있다. 그것들은 저절로 변화해 만들어졌으며, 진주와 명월마니주로 엮은 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느니라. 그 안팎과 좌우 양편에는 여러 가지 목욕할 수 있는 맑은 호수가 있으며, 크기는 10~20유순(由旬) 혹은 30유순이다. 나아가서는 100~1000유순도 되느니라. 그 호수들은 팔공덕수가 충만한데, 청정하고 향기로운 맛은 마치 감로수와 같으니라. 그 호수에서 목욕을 하면 정신이 열리고 몸이 상쾌해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겨지느니라. 또한 그 물은 너무나 맑고 투명해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잔잔한 물결은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고, 아늑하게 출렁거리고 있느니라. 미묘하고 은은한 파도소리는 자연히 울려나와 진리를 아뢰나니, 그래서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법문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며, 스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고요한 열반의 소리나 일체 만법이 본래 공해 내가 없다는 소리, 대자비의 소리 등 여러 가지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들려와 기쁘고 즐거운 마음도 한량이 없느니라."

경전의 내용을 독송하면 팔공덕수로 가득한 아름다운 연못과 극락세계가 바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장면은 물이 주는 편안함과 물결소리가 주는 깨달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올 여름 바닷가나 계곡여행을 떠나, 물속에 몸을 담그고 팔공덕수가 흐르는 연못을 상상하며 깨달음의 여름휴가를 맞이하는 꿈을 꾸어 보자.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5도 칠보지팔공덕수금은유리장엄(七寶池八功德水金銀琉璃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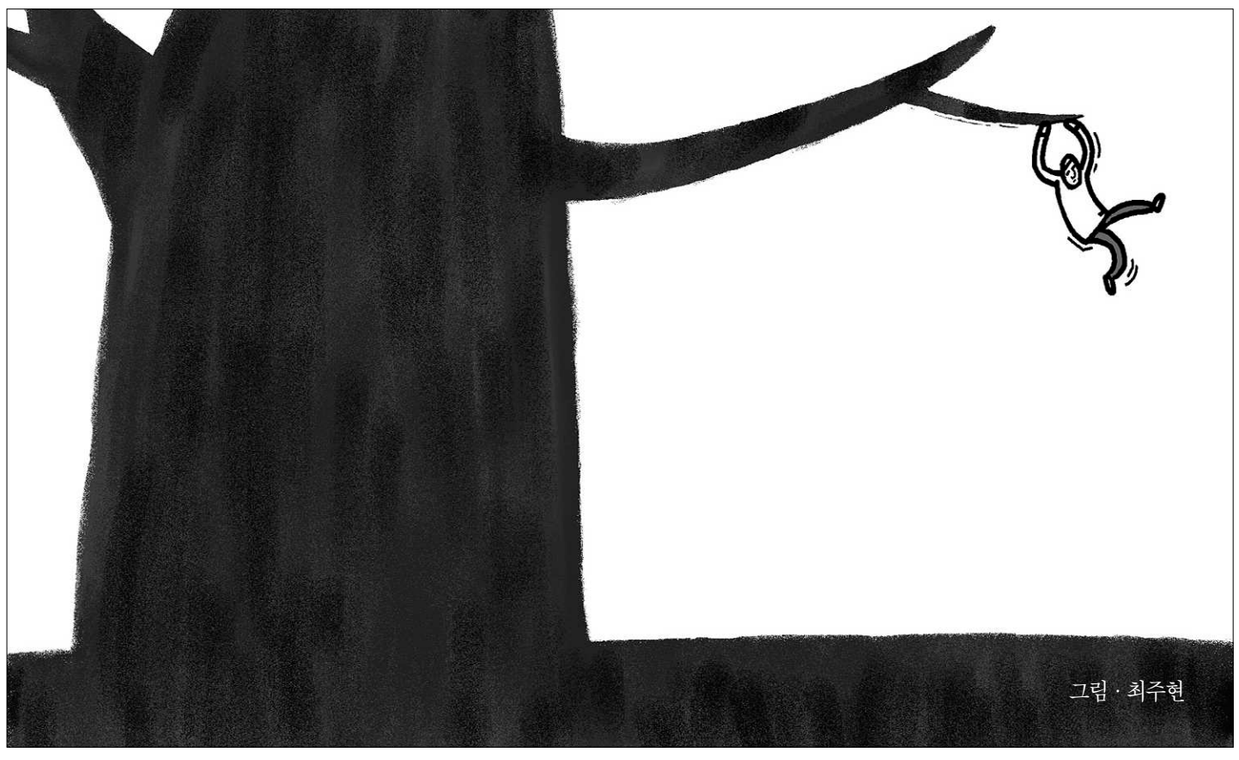


이것저것에 다 끄달리지 말고 용광로에 놔버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물질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마는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또한 내 몸이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보신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보신이 따로 있나? 십대제자도 내가 가지고 있지, 오방신장도 내가 가지고 있지, 호법신장도 내가 가지고 있지, 화신도 가지고 있지, 뭐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전성이나 영계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탁 밀치면서 '야, 내 말을 들으려면 들어오고 내 말을 안 들으려면 들어오지 마라!' 이럭하고서는 탁 잡으면, 붙기만 하면 다 그냥 하나로 요리가 돼 버리니 그거 또한 묘한 법이라.

그러니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는데 '선과 악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닷물을 다 삼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무 욕심이 많았죠. 나부터도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욕심을 내려면 그런 욕심을 내세요. 왜? 내가 아무리 선을 추구해서 선을 닦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디쯤 가다가 보면 악도 범해요.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악을 또 받게 되고 이러다 보면 윤회에 말려서 사생 속에서 좌천이 되거나 승진이 되어 돌아가면서 윤회에 끄달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휘달리겠어요. 그러니 선도 놓고 악도 놓으면, 악도 모으지 않고 선도 모으지 않는 거죠. 한 찰나예요! 선도 한 찰나요 악도 한 찰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한 찰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전대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악도 한 찰나고 선도 한 찰나인데 운전할 때는 그저 악도 선도 다 놓고선 다시 거기서 생산해서 써라 이거죠. 용광로에 별별 쇠가 다 들어가지만 녹아서 다시 넓적하게 네모반듯한 철판으로 턱하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라서 그냥 생산을 해서 써라 이거예요, 굴려서. 그러니 이것저것에 다 끄달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초적인 거는 여러분이 좀더 공부하세요.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좀 아시겠죠?


그림 · 최주현

참, 요거 한마디 하고 갈까요, 또? 내가 한 소식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린애를 낳아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야 어른이 되죠. 그렇듯이 내가 나를 낳고도, 터득을 했다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건 발견한 게 아닙니다. 키워져야 발견했다는 뜻이 나오죠. 근본 자체, 그 참자기를 발견했을 때는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스승은 수억겁을 거쳐 나와서 경험이 많아요.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려니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얘깁니다. 별짓 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쇳송을 할 때 일곱 번을 친다고 적혀 있다면 '넌 열두 번을 쳐라.' 요렇게 바꿔 놓습니다. 또, 한 번을 쳐라 그러면 두 번 치게 하고, 두 번 쳐라 하면 한 번 치게 하고,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가르칩니다. 그럴 때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고 자기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혜를 내나, 그걸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거든요. 이 마음의 스승이 어떠한 물질로다가 나오는가 하면 꿈에도 보이고 꿈에 말을 해 주기도 하고, 꿈에 좋다 나쁘다 이유가 붙기도 하고 또는 생시에도 나는 지금 저리로 가고 있는데 '저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스승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마는 내가 오관을 통해서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실에 내가 남한테 창피를 당하는 일이거나 누(累)가 되는 일, 즉 선원에 누가 된다기보다도 불가에 누가 되게 하고 부처님의 용호를 더럽히는 일, 그전에 나의 용호가 먼저 더러워지겠지만, 그러한 일은 하지 말고 또 놓아야죠.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소릴 듣지 않고 공부하려면 이리로 가라 해도 '아, 날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한번 생각하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다가도 '너 지금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거야.'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을 거라는 것도 의미를 모르겠고 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그 때에도 '야, 이게 뭐냐?' 하고서 거기다 또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자성불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얻어듣기 위해서 거기다 도로 팽개쳐 놔라 이겁니다, 네.

이 뜻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자기를 부딪치게 했고, 수없이 모습 없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거기에 속지 않고 항복을 받았고 자기라는 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도 자기 스승 아닌 게 없느니라. 모두 내 스승이니라. 그것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공부를 어찌 했을꼬?" 하셨거든요. 또 부처님이 그렇게 그것들을 보고서 깨쳤으니 그들은 부처님을 보고 또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속지 말고 공부해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금 얘기도 아니고 미래 얘기도 아닙니다마는, 꾸며서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허허허…. 한번 꾸며 볼까요? 옛날에 어느 노승이 제자를 넷을 두고서 사시다가 열반하시게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답니다. '아이구, 이것들이 아직 자라질 못했는데 내가 열반에 들어서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주르르 흐르더랍니다. 주르르 흘러서 뚝 떨어지는 눈물을 한번 마음의 손으로 받아 보니 큰 금덩어리가 됐더랍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 하나를 놓고 사 형제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죽은 뒤에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을 이파리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족하느니라. 그 나무 뿌리가 죽은 것은 아니니 너희 사 형제가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거라. 이다음에 너희가 이 절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딴 데로 가게 되면 금덩어리를 서로 나누려고 할 테니 그때 아무 데 있는 세 고개를 넘어가면 거기 삼촌이 계시고 법촌이 계시고 무촌이 계시니 그 무촌 스님한테 여쭤 봐라.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갈라서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느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네 형제가 법의 부모를 잃고 살다 보니까 엇각이 났거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이렇게 엇각이 나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스님이 금 한 덩어리 남겨 놓으신 거를 나누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네 동강이를 내면 똑같은데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신 것처럼 삼촌 스님 계신 데 가서 여쭤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삼촌한테 가서 물어볼 땐 반드시 무촌 스님이 계시니라. 삼촌, 법촌 이렇게 비켜 놓고 무촌이 계시니 반드시 무촌께 여쭤 보면 바로 그 스님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느니라."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가서 여쭤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나눠 가질 게 아니라 재산으로 그대로 두고 각처로 나가서 너희들이 벌어 오너라. 이거는 스승님의 재산이지 너희들 재산이 아

☞26면으로 계속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5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8월 19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8월 20일(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이 재 진	051)632-4440 / 011-488-7745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그저 악도 선도 다 놓고 근본에서 다시 생산해서 써라

☞25면에서 계속

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려던 곳으로 각각 흩어져서 벌어 오되, 벌어 오게 되면 이 금덩어리가 중한 줄 알 테니 바로 그때 나누기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각각 나갔어요. 맏형은 어디로 가다 보니까 농부가 소를 끌면서 농사를 짓는데 젊은 사람이 아니고 노인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보수도 바라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일을 해 줬어요. 그래 농사 다 짓도록 몇몇 일을 해 드리니까 그 노인이 "참 고맙습니다. 스님, 참 고맙습니다." 하고 노비로 은전을 그득하게 줬거든요. 그래, 그걸 가지곤 부리나케 형님은 달려왔어요. 벌어 가지고 오랬으니까요. 그때 나누자고 했으니까 벌어 가지고 왔어요.

둘째는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논바닥이 전부 갈라져서 모심은 게 영 피지를 못하니 그 농촌 사람들이 아우성이거든요. 비가 안 와서 올해 농사가 이렇게 안됐으니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 동네에서 자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을 다 모아 놓고 물구덩이를 만들자 이랬죠.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수지! 네. 그것도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거예요. 만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받게 되면 농사도 다 지을 수 있으니 동네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땐 저수지라는 말이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크게 저수지를 만들어서 논에 물이 다 들어가게 해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돈을 모아 줬어요. 그래, 둘째 형도 돈을 받아 가지고서는 또 절로 달려왔어요.

또 셋째는 가다 가다 보니까 어느 도시로 떠억 가게 되었는데, 임금이 신하들한테 코끼리의 근수를 달아 오라고 명을 내렸대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야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니라." 그랬대요. 예전에 말씀해 드린 서춘보 스님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무리 돌아가면서 머릴 짜내 봐도 도대체 그런 저울은 세상천지에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이 고을 저 고을 찾아다녀도 그것을 달 사람을 영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머리를 싸매고 죽겠다고 드러누워 있는 그 마을에 이 스님이 간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집은 저렇게 곡기를 끊고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저분이 정승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라든가 뭐 내무장관, 외무장관 이런 분들이겠죠?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세 사람한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인제는 다 그냥 안으로 문을 잠그고선 죽겠다고 하고 있는 판에 그 셋째 스님이 가서 그런 겁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렇게 죽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죽을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코끼리를 달아 볼 방법이라도 연구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서 미음이라도 잡숫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 놓는 그 스님은 배에다가 코끼리를 실었대요. 그리고 배가 잠기면서 물이 올라오는 거를 봐 가지고 금을 그어 놓은 거죠. 그러고는 코끼리 대신 모래를 그 금 그어 놓은 데까지 배가 잠기도록 갖다 넣고 그 모래의 근수를 다 달아서 그분한테 알려 주었더래요. 좋은 일을 했죠?

마음의 스승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오관을 통해서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임금은 참, 인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을 또 청해다가 맡기고 스님에게는 나라의 일을 보라고 하니 그 스님은 지금 제일 바쁜 일이 한 가지 있어서 그러지 못하겠노라고 하더랍니다. 그래, 뭐가 바쁘냐고 그러니까 지금 절에 들어갈 일이 바쁘다고 하더랍니다. 하하하…. 나라의 일보다도 절에 들어갈 일이 바쁘다는 거죠. 삼촌님, 법촌님, 무촌님을 모시고 해야 할 바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내리니까, 그 스님은 상 같은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하도 안 보내 줘서 나중에 오기로 약속하고서야 돌아갈 수 있었더랍니다.

이건 바로 즉석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서 옛날에 들은 얘기를 거기다 첨보한 겁니다. 이거 실지로 얘길 해야죠? 참 재밌는 거예요. 또 막내 스님이 어느 절에 가니까 고양이를 놓고 싸움을 하더랍니다. 예전에는 스님네들이 동당이니 서당이니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더랍니다. 근데 그 스님이 거기를 거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고양이 하나를 가지고 나누려니까 고양이 반쪽은 동당 것으로 삼고 반쪽은 서당 것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고양이가 말입니다, 추우니까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자다가 한쪽 다리를 다 데었거든요. 그랬으니까 동당 맡은 스님네들이 약을 발라 주고 헝겊으로 처매 줬거든요. 그랬는데 추우니까 아궁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엔 그 헝겊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채로 이리저리 뛰다가 사방에 다 불을 붙여 놨다 이 겁니다.

그러니 동당도 타고 서당도 탔다 이 말이지요. 다 타 버리니까 뭐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서당에서는 동당을 나무라고 동당에서는 서당을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제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스님이 가다가 그걸 봤거든요. 들어 본 즉, 동당과 서당으로 갈라서 공부하던 중에 고양이 한 마리를 반쪽은 동당, 반쪽은 서당 것으로 삼았는데, 동당으로 돼 있는 쪽의 다리가 불에 데여서 헝겊을 처매 주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요리조리 뛰면서 동서당을 다 태워 버렸으니, 동당에서 서당을 지어 달라 이거죠. 동당 고양이 반쪽짜리가 저쪽 서당까지 태워 놨으니 서당까지 지어 놔라 이거지요, 인제. 너희가 물자를 다 대서 절을 지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이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습기가 짝이 없거든요, 아주.

그래서 스님네들하고 같이 싸움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서당의 다리 둘이 아니라면 어떻게 동당의 다리 둘이 움죽거렸겠느냐. 그러니 이 서당의 두 다리가 부축을 해서 전부 태운 거니까, 허허허…. 오히려 이 두 다리는 쳐맨 다리요 이 두 다리는 성한 다리니, 서당의 두 다리가 동당까지 태워 놨으니 그러면 이쪽을 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만 싸우던 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서당과 동당이 한마음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동당 서당을 다시 짓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잘 마무리를 해 주고 떠나니까 스님네들이 너무 고맙다고 참, 값나가는 숟가락 하나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숟가락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정어정 또 갔습니다. 절에 떠억 가 보니까 위의 형님들은 다 돌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 형제가 다 모이니까 그 법촌 스님이 "무촌 스님,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무촌 스님이 맏형더러 "그래, 이 금을 지금 나눠야겠는데 나가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왔으며 이 돈을 벌고 난 뒤에 어떠한 생각이 들던가?" 하고 물었거든요. 맏형은 "돈을 이렇게 벌어 보니까 그거를 나누지 않아도 내가 벌어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고?" 하고 물으니까 "저는 그저 허망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왜 허망하냐?" "그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그저 모두 고생들을 하고 사니, 나가 살고 싶지 않고 전부 허망하게만 보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래? 그렇게 생각이 들더냐?" "예."

또 셋째더러 물어보니까 셋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전자에 갈 때에 금이 현재의 나에게도 있건만 그조차, 내 금도 내 금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이러거든요. "제가 벌어 온 금이 바로 제가 벌어 온 금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했거든요. 자기가 금은 벌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인제 막내한테 물어보니까 그 막내는 그저 벌떡 일어나더니 "이래도 합장, 저래도 합장." 하더니만 그냥 앉아서 아무 소리 않고 합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촌 스님이 이따 하는 소리가 "참 장하구나! 참 너희들 장하구나!" 그랬대요.

그러니 그 사 형제가 어떻게 해야 한 형제로서 화목하고 그 사 형제마저도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 형제는 어떻게 해야 금도 없고 사 형제도 없고 무촌 스님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느냐 이 소립니다. (잠시 사이) 왜 삼촌 스님도 법촌 스님도, 또 무촌 스님도 그 사 형제 스님들도 전부 없느냐는 얘깁니다. 왜 이 스님도 없고 저 스님도 없고 모두가 어째서 없느냐는 얘깁니다. 전부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는 없어졌다니 말입니다. 그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곤 했죠.

그런데 사제법, 팔정도, 사무 사유의 뜻에서 보듯이 우리의 마음 돌아가는 이 자체가 아주 귀중한 겁니다. 없다는 것은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없으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둘이 아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력, 능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력, 충성, 의리, 도의, 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 가정에서도 통솔력이 충만해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지혜로운 통솔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도량에서도, 도량도 크게 치면 전체지만 작게 치더라도 이 도량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겁니다. 지혜롭고 자비스럽게 통솔한다면 바로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비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상대의 몸을 통해서 나를 다지는 그 감사함이죠. 이걸로써 우리는 참 영원한, 잠시잠깐 받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우리의…. 저 은하계의 별성이 저렇게 운행되는 것처럼 바로 인간의 마음들이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의 별성들이 모여서 무리를 짓고 짓고 또 지어서 돌아가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사생에 관한 건이요, 바로 불성입니다. 우리 사생의 불성! 헤아릴 수 없는 사생의 불성 말입니다. 태로 낳는 거, 알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해서 낳는 거, 이 사생이 따로따로 차원대로 무리를 짓고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묘한 줄 아십니까? 큰 별이 하나 떨어졌으면 우리의 큰 일꾼이 하나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조그마했을 때 별을 쳐다보고 난 그랬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하다 보면 밤이 다 가곤 그랬죠. 내가 앵무새 노릇을 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앵무새일 뿐이고, 이 말 자체가 말이 아니라 바로 법이 되어 모두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닿고 감응이 됐다면 이것이 한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8년 7월 10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자 세상보기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헌법의 가치 존중돼야 한다

우리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헌법을 제정해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헌법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한 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법질서로서 국가의 모든 법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규범이다. 헌법에는 국가의 이념과 국가운영의 방향,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국가의 기본조직과 그 조직의 권한 등이 담겨 있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 국민주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하면서 법치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법치국가원리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최고의 법질서란 점에서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하고, 국가 내의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 조정과 타협을 통해 사회적 평화를 구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대한의 보장을 의미할 뿐이다.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공존하는 자유이고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도 1948년 제정돼 60여 년간 9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경험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했던 우리에게 남북분단이란 시련 속에서 민주공화국의 운영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랜 기간 헌법은 그 효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헌법 개정에서 국민의 의지는 배제됐지만 국민의 저력은 유감없이 발휘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오늘날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개정됐다.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담긴 헌법이기에 과거의 헌법과는 달리 기본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다. 헌법의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도 설치 · 운영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밟고 합의를 도출시켜 만든 문서이다. 헌법은 국가에 있어서 최고문서로서 국민의 존재와 국가의 존립에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근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정치적 도구화해 오 · 남용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것이고 국가의 존립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물론 헌법에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민주헌법의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헌법수호의지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봇물 터져 나오듯이 여러 헌법쟁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중에 가장 첨예화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정보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수단인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보장될 수는 없다. 즉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제한이 따른다. 그래서 헌법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규범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지만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규범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규범이다. 그런 점에 입각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또한 이는 작금의 헌법개정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국민의 개정의지에 의하여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헌법은 민주와 법치에 기반하고 세계화와 통일의 시대에 대비한 내용으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 개정돼야 한다.

60년이 넘은 헌법의 역사 속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묘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종단 · 시민단체는 상생관계다

NGO는 사전적으로 비정부 기구 혹은 비정부 단체, 시민사회단체라고 불린다. 시민사회단체라고도 불리는 단체는 19세기 중반부터 반노예제, 여성인권 등에 중점을 두고 조직되기 시작해 현재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라는 이름으로 NGO활동이 시작됐다. 초창기 단체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그 이후 환경, 정치사회, 경제정의, 교육, 여성, 종교, 학술 언론 등 다양한 운동영역이 개발됐다.

불교계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불교계 NGO들은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적응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있다고 본다. 평화시위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의 삼보일배, 천성산도룡뇽 지키기와 단식투쟁을 통하여 자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지율 스님, 걷기를 통해 주위의 생명을 돌아보게 해준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 탁발순례단 등 기존의 NGO 활동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NGO 활동의 활동방법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NGO의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넓혀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불교계는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 DAC가입을 통해 세계에서 최초로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발돋움해 한국의 국제개발모델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 더프라미스, 로터스월드, JTS등의 국제개발구호 단체 등이 그 모델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다양하다. 정부활동을 감시하고, 각종 정책홍보, 상담 등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한다. 대중의 지지를 구하고 모금 활동도 하며,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시켜주기도 한다. 또한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문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불교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본다.

종단은 불교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려 하고 있다. 종단이라는 큰 조직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은 불교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 간의 관계가 항상 순탄하지는 않다. 시민사회단체 활동 중 종단에 대해 쓴 말을 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때문에 종단과 단체와의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단에서는 불교시민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교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10년 째 진행하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시에는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재단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했지만, 2008년부터는 불교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원한 사찰생태문화 가이드북 제작 사업은 선운사를 모델로 가이드북이 제작되고, 현재 전국 사찰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남북관련 운동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금 시기에 남북화해 및 교류에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남북평화의 끈이 끊기지 않도록 도왔다.

종단에서는 매년 '불교시민사회단체 워크숍'을 열어 불교시민사회단체와 종단이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높이고 단체와 종단, 단체와 단체 사이에 서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연초와 연말에는 단체와의 신년회,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소통의 자리를 열고 있다.

종단과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서로 경쟁을 하는 사이가 아니다. 종단과 불교시민사회단체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있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 받아 실천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있다. 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함께 상생을 해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종단은 불교시민사회단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종단의 미처 나서지 못하는 영역에서 활동해, 종단이 놓칠 수 있는 것을 챙겨주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실천이 필요하다.

[독자] 4대강 개발 추진 못하면 국민 피해

4대강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일 일부 종교계와 야당에서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단순히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이 반대 일색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미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범람하는 강물을 가두어 조절하고,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여 오염 부하를 오수처리장과 자연정화능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강물이 구간별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치수(治水) 사업인데, 무조건적인 반대 논리와 일부 종교계의 편향된 정치논리에 의하여 원만히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자의 선택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실제적인 시행 방법과 방안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별별 반대 의견만 내세웠지 합리적인 의견은 없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1970~1980년대 경제부흥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을 정부 여당은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로써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방지해야 한다. 국책사업을 일부 반대 여론의 큰 목소리에 매몰되어 추진할 수가 없다면 그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다. 야당에서도 당리당략인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기술해 보면, 전투함 함장이 작전 지역의 지형지물을 숙지하고 있고 첨단 해도(海圖)와 정밀한 항해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좌초(坐礁)라든지 인위적인 사고는 있을 수 없다.

천안함 장병들의 국토방위를 위한 희생과 유가족들의 가슴을 두 번 찢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국민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천안함 유족 윤청자 여사의 용기와 본보기에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한다.

신현덕 / 부산 부곡동

사 설

영담 스님의 해명 설득력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내 종교인 도지원위원회의 '4대강 사업 및 대북 인도적 지원, 국민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에 대한 공직 사퇴 요구가 거세다.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불교환경연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등이 잇따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영담 스님과 성타 스님의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총무원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도 벌이고 있는데, 15일에는 출근하는 영담 스님과 사퇴를 촉구하는 단체의 실무자들이 맞딱뜨리는 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12일 영담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대국민 설득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평통 종교지원위원회 명의의 호소문에는 "이미 4대강 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서…"라고 돼있어 영담 스님이 말하는 국민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민적 합의를 말하려면 공사 중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어떻게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민주평통자문회의는 그 기능이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치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 운영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어느 기구이든지 그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서 운영되면 큰 혼란을 가져온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법을 넘어선 권한행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권력이 법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면 사회는 혼돈과 공포로 뒤덮인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가 4대강 관련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평통자문회의법이 규정한 기능을 넘어선 탈법이라는 불교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한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과 별개로 영담 스님은 평통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 기대 크다

여러 불교단체들이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결성키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요 단체들의 대표들이 13일 한 자리에 모여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회적 이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후 논의를 통해 네트워크의 형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종단 안팎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 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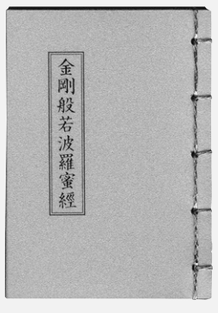
불교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논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각각의 단체들이 자기사업에 몰두하다보니 공통의 사안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동안 불교계의 시민사회 활동은 이웃종교나 여타의 영역에 비해 미흡했다. 이는 불교계가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은데, 시민사회에 대한 불교계 내의 잘못된 인식이 한몫했다고 본다. 즉, 시민사회 곧 반정부라고 등식화하는 오해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사회가 정부와 기업에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판을 반정부 · 반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판이 없다면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비판을 하면 반대자로 몰아 비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퇴행적인 처사이다. 덧붙여, 비판은 말과 글로써 드러나는데, 이를 불온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발상이기도 하다.

발전한 사회일수록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부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한 사회의 필수 영역이다. 한 사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해가는 역할을 하며, 권력을 감시 비판함으로써 사회의 건전성을 높인다. 생활인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치 · 경제 · 교육 · 문화 · 종교 · 언론 등 사회의 각 영역에 간섭함으로써 더 살맛나는 세상을 제시한다. 이명박정부 들어 시민사회의 활동이 위축됐다. 불교 안팎의 상황이 불교계 시민사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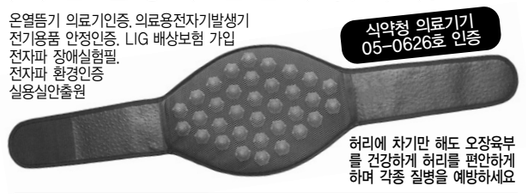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위해서는 설비에 많은 투자가 들기는 하지만 고품질을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조 후 재단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향 반죽 상태에서 미리 절단을 한 후에 건조하는 방법과는 달리 건조 후 다이아몬드 톱날을 사용해 절단하는 방법을 쓰는

은 무엇이었을까요? "매향(埋香)" 의식은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것을 "침향(沈香)"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향나무로서의 침향은 엄연히 다릅니다. 침향(Aquilaria crassna)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향나무로서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취급이 되어 온 수종입니다. 반면 침향(매향)은 최고의 향인 침향을 뛰어넘는, 어떤 물리적인 기준으로는 잴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이자 숭고한 의식인 것이지요.

저희는 기업인으로서 피우는 향으로서는 최고의 상품을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향 제품이 발달하게 된 것이겠지요. 아마 저희 침향이 인정을 받는 이유는 침향으로서의 순순한 향, 쉽게 말하자면 자연 그대로를 옮겨놓은 향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 이념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6. 능인향당의 향은 고가(高價)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향재료로 전통 향을 만드는 제작방식으로 만드는 향이고, 허브 향은 순수 원향 재료에 천연 프리미엄 에센스 오일을 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침향은 능인향당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향으로 프리미엄급 자연산 침향으로 만들어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 프리미엄급의 침향제품군은 오히려 외국에 침향을 수출하는 상품입니다

8. 능인향당의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견지동의 직영매장과 인사동의 매장이 있는데 그 외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침향의 정확한 비교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리고자 지금 조계사 맞은편에 침향전시관을 준비 중입니다.

관습이랄까요? 악습이랄까요 부처님 전에는 대충 향을 올리고 자신이 피우는 향은 좋은걸 쓰는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사를

- 대표 소개 (약력) -

- 능인향당 대표.
- 국악인 / 국악인 대금연주자로 활동.
- 1986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 국악전수소 소장(1986~2000)으로 재직 후 고문으로 활동중.
- 1986년부터 예술인들을 규합하여 수류회 창단.
- 1998년 수류회 멤버 및 석학 제자들과 더불어 문화 사업체 능인화 창립.
- 2007년 능인화를 능인향당으로 개칭 후 대표로 추대.
- 2008년 향 회사간의 불가능한 기술로 여겨지던 꿈의 450메쉬를 능인향당 자체기술로 돌파.
- 2010년 3월 프리미엄급 약성 침향 전 등급을 모두 향 제품화 하는 프로젝트 완료.

능인향당 www.nihwa.com

순수원향을 지향하는 고품격 향의 명가

항상 열려있습니다.

그동안 능인향당의 침향제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능인향당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침향 전반에 관한 문의를 해주십시오.
늘 그렇듯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침향 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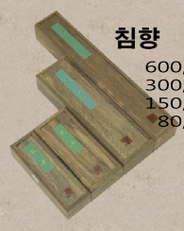
능인침향 수
150,000
80,000
50,000

프리미엄 침향에 인도 마이소르산 최상급 백단을 더하여 향의 품격을 한껏 올린 새로운 향



침향적정
300,000
150,000
80,000

프리미엄 침향에 불가의 오단향인 진자단향을 더한 명상과 기도용 향의 수작



침향
600,000
300,000
150,000
80,000

능인향당 향 법제기술의 총아, 프리미엄 자연산 순수 침향100%로 만든 침향제품의 명작

능인향당에서 준비한 최고의 공양물



침향 108주



침향 합장주



침향왕단주



침향 1000주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직영매장 : 02)730-6888(조계사맞은편), 인사점(통인가게입구)

爐香觀空法圖 -金弘道